

『러시아·유라시아 연구』는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학회지로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문학, 어학, 문화, 정치, 경제, 지역학 등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 서평 등을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 및 편집과 관련한 모든 문의 사항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전화: 053-950-7301

·홈페이지: ires.co.kr ·온라인 논문투고: ires.jams.or.kr

·이메일: iresknu@gmail.com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420호

Russian & Eurasian Studies is published twice a year by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The Journal is dedicated to the academic papers and reviews about Russian and Eurasian literature, language, culture, politics, economics, regional studies and etc.

Contribution and other editori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to the editor of the journal.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Tel: 053-950-7301

·Homepage: ires.co.kr ·Contribution address: ires.jams.or.kr

·E-mail: iresknu@gmail.com

·Address: 420, Humanities Korea Bldg, 80, Daehak-ro, Buk-gu, Daegu

러시아 | 유라시아 | 연구

Russian & Eurasian Studies

Vol. 13. Apr. 2025

ISSN 2671-6054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위원회 ■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

편집위원장 _이종현(경북대, 러시아문화)

편집간사 _김민채(경북대, 러시아어학)

편집위원 _권경준(성균관대, 러시아어학), 김정일(경북대, 러시아어학)
김태욱(충북대, 러시아문학), 서광진(경북대, 러시아문학)
이강은(경북대, 러시아문학), 이기주(안양대, 러시아문학)
이선우(전북대, 러시아정치), 홍택규(한림대, 러시아어학)
박노자(오슬로대, 한국사)
노나카 수수무(사이타마 대학, 러시아문학)
아나톨리 아프락신(상트-페테르부르크대, 철학)
유리 스메르친(쿠반국립대, 동양학)

■ *Russian & Eurasian Studies* Editors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ef Editor _Lee Jonghyeon(KNU)

Managing Editors _Kim, Minchae(KNU)

Editors _Kwon Kyong Joon(SKKU), Kim Jung Il(KNU)
Kim Tae Ok(Chungbuk N.U.), Seo Kwang Jin(KNU)
Lee Kang Eun(KNU), Lee Ki Ju(AYU)
Lee Sun Woo(Jeonbuk N.U.),
Hong Taek Gyu(Hallym U.), Park No Ja(Oslo U.)
Nonaka Susumu(Saitama University)
Anatoliy Apraksin(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Yuri Smertin(Kuban State University)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

목 차

바실리 그로스만의 ‘시의적절하지 않은’ 인간관: 「베르디체프 시에서」와 「개」를 중심으로	1	김 민 채
러시아어 담화어 <i>скажем</i> 연구	19	김 정 일
『비이』 - 타락과 징벌의 프로토타입	43	전 민 규
사회주의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비판: 『죽음의 집의 기록』을 중심으로	63	정 재 환
일반-사실적 불완료상과 주화제의 예측적 의미 사슬에 관하여	89	정 지 윤
Частушка о смене кадров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А. М. Горького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домашнее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зеркало социокультурных изменений ранней советской культуры	109	Чечнёв, Я. Д.

| 서평 Book review

우정의 자질로서의 서정: 129
시선집 『유일한 날들』 서평

길 혜 민

| 부록 Appendix

연구소 규정 139

편집 규정 144

투고 지침 148

연구윤리 규정 154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

목차

The “Untimely” Humanism of Vasily Grossman: Focusing on “In the Town of Berdichev” and “The Dog”	1	Kim, Minchae
A Study on Russian Discourse Marker <i>Skazhem</i>	19	Kim, Jungil
“Viy” – A Prototype of Fall and Punishment	43	Jeon, Minkyu
Dostoevsky’s Critique of Socialism: Focusing on <i>Notes from the House of the Dead</i>	63	Jung, Jae Hwan
On the Predictive Semantic Chain of the General-factual Imperfective Verb Aspect and the Topic	89	Jung, Ji Yoon
A Chastushka on Staff Turnover at Maxim Gorky’s Publishing House Vsemirnaya Literatura: “Domestic Creativity” as a Mirror of Socio-Cultural Change in Early Soviet Culture	109	Chechnev, Ya. D.

| 서평 Book review

Lyricism as a Quality of Friendship: 129	Gil, Hyemin
A Review of <i>Unique Days</i> by B. Pasternak	

| 부록 Appendix

Institute Regulations	139
-----------------------	-----

Editorial Regulations	144
-----------------------	-----

Contribution Guide	148
--------------------	-----

Regulations for Researchers	154
-----------------------------	-----

바실리 그로스만의 ‘시의적절하지 않은’ 인간관: 「베르디체프 시에서」와 「개」를 중심으로

김민채*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초기 단편소설 「베르디체프 시에서」와 후기 단편소설 「개」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체제와 불화했던 바실리 그로스만의 ‘시의적절하지 않은’ 인간관을 살펴본다. 「베르디체프 시에서」의 등장인물인 바빌로바는 어머니이자 혁명가이며, 모성애와 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다. 「개」에 등장하는 과학자는 우주 개발에 필요한 기술 검증의 과정에서 성취감보다 도구적으로 소모되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인물이다. 이들은 소비에트 체제에서 끊임없이 이상화하고, 복제하고, 모방했던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또한 미래를 낙관하며 추상적인 이념을 옹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현실의 삶을 윤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대와 불화한다. 이들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그런 가운데 ‘선’을 실천하는 인간들이다. 이 ‘선’의 개념이 그로스만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로 보인다.

주제어 : 바실리 그로스만, 러시아 내전, 우주개발, 영웅, 선

I. 작가와 작품의 ‘삶과 운명’

바실리 그로스만(Василий Семёнович Гроссман, 1905-1964)의 장편소설 『삶과 운명(Жизнь и судьба)』은 흐루쇼프의 해빙 시대에도 수용할 수 없었던 작품이었다. 1946년, 영화 <위대한 삶(Большая жизнь)>(1편: 1939)의 2편이 “전후 나치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지도자에 대한 환기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되었으나 해빙기에 일정 부분 복권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¹⁾ 『삶과 운명』의 원고를 압수했던 것은 보다 가혹하고 전면적인 억압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정권 교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라, 스탈린의 죽음을 계기로 시대 전환기의 문턱에 섰던 소비에트 체제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은 소비에트 체제 내부의 권력 공백과 당 지도부의 분열을 야기했으며, 대중에게는 당혹감과 기대라는 상반된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스탈린이라는 한 시대의 죽음을 맞이하며 소비에트는 ‘스탈린식 통치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개혁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있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한 흐루쇼프는 1956년 비밀 연설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았다. 당 외부로 노출되기를 원치 않았던 이 연설은 오직 스탈린 개인숭배를 배격했을 뿐, 당과 소비에트 체제는 여전히 불가침의 영역에 있었다. 흐루쇼프 또한 그의 정적들과 마찬가지로, 스탈린 체제의 철저한 집행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균열과 체제 전환기에서, 그로스만은 당의 공식 담론이나 승리의 서사를 따르지 않고,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개별 인간의 존재를 문학의 중심에 놓고자 했다. 『삶과 운명』에는 스탈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며, 영웅들의 삶을 조명하는 대신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간 수많은 개인들의 삶을 복원하고 있다. 이는 스탈린

1) <위대한 삶>의 1편(1939)은 돈바스의 젊은 광부 발룬이 늙은 광부 코조도예프의 교육을 통해 노동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두드러지는 반면, 2편(1946)에서는 돈바스를 재건하는 광부들의 고단한 삶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상영금지 되었다. 1930-1940년대 영화들이 아버지 세대와 그들이 이끄는 소비에트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양상은 소비에트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아버지 스탈린에 대한 이미지”, “소비에트 가족 신화”, “유토피아적 낙관주의”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희원, 「러시아 영화의 가족 담론 변화 : 스탈린 시기에서 해빙기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38 (2014), 140-143쪽 참조.

의 소비에트 체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소비에트를 준비해야 했던 당의 방침과, 1934년 공식화되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허용한 선을 넘은 것이었다. 작가와 작품의 삶과 운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대와 불화했다.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간들을 주목했던 그로스만의 시선은 매 전환기마다 러시아 문학이 축적해온 인간 이해의 전통 위에 놓인 것이기도 하다. 가령, 전환기의 작가인 체홉(Антон Павлович Чехов, 1860-1904)과 고리키(Максим Горький, 1868-1936)는 동시대를 살았으나, 각자의 작품에서 완전히 다른 인간들을 보여준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체호프가 평범한 인간들의 범속한 삶을 통해 개별 인간의 슬픔과 기쁨, 모순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고리키의 작품에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의지를 가진 자로서 미래를 긍정하고 낙관하는 비범한 인간이 등장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로스만이 당면한 시대에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을 사유했고 그것이 왜 '시의적절하지 않은(невпопад)' 것이었는지 초기 단편소설 「베르디체프 시에서(В городе Бердичеве)」(1934)와 후기 단편소설 「개(Собака)」(1961)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²⁾³⁾ 특히 두 작품은 흠스봄의 구분에 따르면 각각 '파국의 시대'와 '황금의 시대'에 발표된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 구분을 활용해 그로스만의 창작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⁴⁾

-
- 2) 본고에서 분석하고 있는 「베르디체프 시에서」와 「개」는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다. 필자는 1989년 *Современник*에서 출판된 *Несколько печальных дней*에 수록된 내용들을 참고하였다. 이하 본 논문에서 소설의 인용은 본문에 (НП:쪽수)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 3) 보차로프는 「개」를 언급하면서 “인간의 우주 정복을 위한 서곡으로 여겨졌던 라이카, 벨카, 스트렐카의 비행에 찬사를 보내는 오체르크와 시가 만연했던 때에, 그로스만이 다시 ‘시의적절하지 않게(невпопад)’ 등장했다”고 말한다. ‘시의적절하지 않은’은 필자가 “невпопад”를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Бочаров А. Г. *Жизнь и судьба Василия Гроссмана*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90), С. 313.
 - 4) 흠스봄은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로 명명하여 세부적으로 세 개의 시대 구분을 제시한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파국의 시대’로, 대공황, 파시즘의 대두, 세계대전 등으로 표상되는 비극의 시대였다. ‘황금의 시대’는 1947년부터 1973년까지로, 전후 호황과 기술 혁신 및 초국가적인 무역 확대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이다. 1973년부터 1991년까지는 ‘산사태의 시대’로, 중동 전쟁과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침체기이자 소련 붕괴로 인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 구분에 따라 그로스만의 창작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II. ‘파국의 시대’와 영웅의 부재 : 「베르디체프 시에서」를 중심으로

그로스만의 초기작인 단편 「베르디체프⁵⁾ 시에서」(1934)는 ‘파국의 시대’에 속하는 러시아 내전과 소비에트-폴란드 전쟁 당시,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우크라이나의 베르디체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1919년이며, 이는 볼셰비키군과 폴란드군이 베르디체프에서 각축전을 벌이던 때이다.

주인공 바빌로바는 여성 인민위원의 직책을 가진 철저한 공산주의자이자 군인으로, 대중과 동지들에게 모범을 보일 의무를 가진 자이다. 작품은 폴란드가 키예프로 진군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군인이 필요한 시기에 그녀가 출산을 위해 40일간 휴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바빌로바는 부대 내 누구에게도 여성으로 여겨진 적이 없으며, 상관인 코지레프는 군인인 바빌로바가 임신한 것을 우스워하고, 동지들은 그녀의 임신에 대해 험담한다. 그녀도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스스로 낙태를 알아보고, 유산을 시도할 만큼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치부한다.

이러한 인식은 뱃속의 아이를 ‘그것(оно)’으로 지칭하는 서술에서 드러나는데, 작품 초반 “그것은 끈질기게 자라나서, 그녀가 움직이거나 말타는 것을 방해했고(А оно упорно росло, мешало двигаться, ездить верхом)”(НП:50), “바빌로바가 패배하여 누워있을 때, 그것은 발굽으로 의기양양하게 발길질하며, 그녀의 안에 살아 있었다(И вот Вавилова лежала побежденная, а оно победно брыкало копытами, жило в ней)”(НП:50). 이런 바빌로바의 임신 거처로 7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대인 마가자낙 부부의 집이 징발된다.

5)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기 전까지, 베르디체프는 유대인 수공업 장인, 상인 부르주아, 투기꾼들의 소굴, 장사와 사기의 상징적인 도시로 여겨졌고, 특히 유대인상인들의 속물성에 대한 악의적인 농담들이 있었다. Бит-Юнан Ю. Г. “Рецепция творчества В. С. Гроссмана в совет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е 30-х гг.”, *История журналистики и литературной критики* (М., 2010), С. 79 참조. 그러나 보차로프에 따르면 그로스만은 베르디체프의 많은 주민들이 곤궁한 삶을 살았음에도, 유대인 장인들 덕분에 도시가 온화하고 소박한 분위기였다고 회상하곤 했다. Бочаров А. Г. Указ. соч., С. 5-6 참조. 「베르디체프 시에서」에도 유대인 상인 마가자낙의 모습과 함께 시장의 활달한 풍경과 거래 장면이 묘사된다.

바빌로바는 가난하지만 삶의 냄새와 풍경으로 가득 찬 마가자닉 부부의 집에서 일곱 아이와 생활하며 평범한 가정을 경험하게 되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여성성을 인식하게 된다. 마가자닉의 아내인 베일라는 출산의 기쁨과 고통을 바빌로바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는 행복한 일이라고 말한다. 바빌로바는 이를 통해 임신 후 처음으로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된다.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던 서른여섯의 바빌로바는 이념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법칙, 관습, 기쁨과 슬픔을 지닌 복잡한 세계(сложного мира со своими законами, обычаями, радостями и печальми)”(НП:52)인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날 밤 ‘그것(оно)’이 여자아이일지, 남자아이일지 궁금해하며 출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후 태어난 남자아이에게 ‘알료샤’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이윽고 폴란드군의 공세가 시작되고 볼셰비키군은 퇴각을 결정한다. 바빌로바는 군인으로서 군과 함께 떠날지, 어머니로서 아이를 돌보며 남을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태어난 지 한 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가 어디 있냐는 베일라의 말에 베르디체프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이때, 혁명가가 아닌 어머니로서 삶을 선택하는 바빌로바의 의식적 변화는 이념이나 계급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정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소박한 삶의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 이때 바빌로바의 형상은 특정한 이념을 지향하며 형상화된 비범한 영웅의 서사와 거리가 있으며, 삶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에 가깝다.

그런데 작품의 말미에서 바빌로바는 다시 한번 의식적 변화를 겪는다. 바빌로바는 폴란드군에 대항하여 행진하는 어린 사관생도 학생들을 보며 1917년 붉은 광장을 떠올린다. 이때 그녀는 긴장된 상태로 연설을 듣고 있었으며, 극장 광장에서 브란스크역(현 키예프역)으로 행진할 때에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하는 사관생도들의 얼굴을 응시하며, 그녀는 2년 전에 경험했던 그 감정을 다시금 느꼈고(И глядя на лица поющих курсантов, она снова испытала то, что пережила два года назад)”(НП:61) 다음 순간, 바빌로바는 탄창을 갈아 끼우며 생도들의 행렬에 동참한다. 아이와 함께 볼셰비키군이 베르디체프를 수복하는 것을 기다리거나, 기회가 될 때 볼셰비키군을 찾아가려 했던 어머니 바빌로바가 단호하게 볼셰비키

군인으로 각성하는 이 순간은 일견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에서 자주 형상화되는 영웅의 모습과 닮아있다.

바빌로바의 행위에 대한 마가자닉의 평가가 그러한 측면을 보다 두드러지게 한다. 혁명가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다시 혁명가로 이어지는 바빌로바의 의식적 변화는 유대인 마가자닉의 내면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녀가 처음 집으로 왔을 때, 마가자닉은 임신한 볼셰비키 군인이자 러시아인 여성을 집에 들이는 것을 불편해하며 아내에게 조용히 “콜레라 걸려버리게, 차나 내줘(Дай ей чаю, чтобы ее холера задушила)”(НП:50)라 말한다. 그러나 작품의 마지막에서 권총을 장전한 채 생도들의 뒤를 따라가는 바빌로바를 지켜보며 그는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Вот такие люди были когда-то в Бунде. Это настоящие люди, Бэйла. А мы разве люди? Мы навоз.

예전에 저런 사람들이 분트에 있었지. 저게 진짜 인간이야, 베일라. 우리가 사람이겠어? 우린 그냥 거름이지.(НП:62)

마가자닉은 어머니에서 다시 군인으로 각성한 그녀를 ‘진짜 인간’으로 명명하며, 자신과 부인의 삶을 ‘거름(навоз)’으로 낮춘다. 첫날 유대인과 러시아인으로서는 느꼈던 적대적인 거리감은 새 생명의 탄생 앞에서 마가자닉이 마치 자신의 아내가 출산하는 듯 초조함을 느꼈던 때 점차 사라져 갔다. 그리고 역사적 소명 앞에 분명히 나서는 바빌로바의 모습에서 유대인 분트를 떠올리는 순간 그들 사이 민족적 거리감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동질감이 형성되며, 이 때 바빌로바의 영웅적인 면모가 부각된다.

그런데 작품은 바빌로바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마가자닉의 말로 숭고하게 끝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마가자닉과 베일라의 소박한 행동은 바빌로바의 비범한 면모와 다시 한번 대비된다.

Проснувшийся Алеша плакал и бил ножками, стараясь развернуть пеленки. И придя в себя, Бэйла сказала мужу:

- Слышишь, дите проснулось. Разведи лучше примус, надо нагреть молоко.

Отряд скрылся за поворотом улицы.

잠에서 깬 알료샤가 울면서 다리를 차며, 포대기를 풀려고 애썼다. 정신을 차린 베일라가 남편에게 말했다.

“들리죠? 애가 잤어요. 우유를 데워야 하니 곤로를 켜는 게 좋겠어요.”

부대는 길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НП:62)

길모퉁이 너머로 사라진 바빌로바의 모습은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떠나는 혁명가 어머니’라는 불완전한 삶을 보여준다.⁶⁾ 내전과 소비에트-폴란드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소명 의식을 가진 여성 영웅이, 주어진 과업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버려야만 하는 비정한 상황을 그리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마가자닉 부부의 소박한 행동은 혁명가인 바빌로바에게 쉬이 방점을 찍을 수 없도록 만든다.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초월하는 여성이 작품의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일곱 아이와 삶을 꾸려나가고 마침내 바빌로바의 아이까지 돌보게 되는 마가자닉과 베일라의 소박한 삶 또한 작품에서 가볍게 그려지지 않는다. 특히, 마가자닉이 자신과 아내를 빚댄 ‘거름’이 생명을 키우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불완전한 영웅의 모습은 러시아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작품들과도 구분된다. 러시아 혁명과 내전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급진적 기획의 시기였다. 이때 문학은 집단이 복제·모방할 수 있는 영웅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혁명의 이상과 미래 사회의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기능했다. 이바노프의 『빨치산』(1921), 『장갑열차14-69』(1922), 푸르마노프의 『차파예프』(1923), 파데예프의 『궤멸』(1927) 등은 이러한 경향성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이 시기 문학에는 아직 1934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공식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는 한 개인을 초월하여 “다른 인간에 의해 반복 가능한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 긍정적인 인물의 형상이 두드러진다. 이례적으로 볼셰비키군의 패배를 묘사했던 파데예프의 『궤멸』조차 개인의 절멸이 볼셰

6) 이와 관련하여, 보차로프는 바빌로바의 선택에 대해 “심지어 대조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작품들에서도 어린아이를 버려두고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어머니의 형상은 매우 찾기 힘들다”라고 평가하며, 러시아 내전이라는 파국적 사건과 시대 환경이 만들어내는 가혹한 인간성에 대해 지적한다. Бочаров А. Г. Указ. соч., С. 28. 비트-유난은 작품 내에서 “이데올로기적 진실(правда идеологии)”과 “보편적 인간의 진실(правда-общечеловеческая)”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바빌로바의 선택이 “이데올로기적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는 듯하나, 그것이 모성의 “희생(жертва)”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Бит-Юнан Ю. Г. Указ. соч., С. 83. 참조.

비키 부대 전체의 궤멸로 이어지지 않으며, 레빙슨 부대의 전투와 희생은 마지막까지 고양된 어조를 유지하며 새로운 의지와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으로 끝난다.⁷⁾

그로스만은 러시아 내전이라는 역사적 조건 하에 불세비키 혁명가와 어머니라는 두 삶이 충돌하는 과정을 충실히 그리면서,⁸⁾ 한 인간에 내재된 다층적인 면모와 인간 존재의 복잡성에 주목하게 한다. 이때 바빌로바의 비범함과 마가자닉 부부의 평범함은 단순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서로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단편 「베르디체프 시에서」는 1934년 『문학신문』에 게재되었고, 고리키는 이를 읽고 그로스만을 만나 작품 활동에 전념하라고 조언한다.⁹⁾ 그러나 이러한 고리키의 평가와 달리, 작품에 대한 자세한 비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트유난은 비평가들이 1930년대 전반기에 등단한 작가들 중 그로스만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다른 단편과 중편에 대해서는 상세히 분석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레즈네프의 「동지애의 감정(Чувство товарищества)」(1935), 헤흐트의 「바실리 그로스만의 “단편들”(“Рассказы” В. Гроссмана)」(1937), 그린베르크의 「꿈과 행복(Мечта и счастье)」(1937) 세 편의 비평에서만 언급된다.¹⁰⁾ 어머니이자 혁명가로서 불완전한 영웅의 모습,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 사이 등가성은 복제와 모방이 가능한 영웅이 필요했던 시대에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작품에 대한 침묵이 평론보다

7) Никонova Т. А. Мифология ‘Нового мира’ 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ервой трети XX века. (Воронеж, 2004) С. 222-223 참조.

8) 독테바는 군인의 삶과 어머니의 삶이 충돌하는 양상을 “인간적 가치와 혁명의 가치, 삶에 대한 헌신과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헌신을 화해시키려고 한 시도”로 보면서 그로스만이 창작 초기에는 소비에트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Дёгтева В. В. “Образ женщины-комиссара в рассказе В. Гроссмана «В городе Бердичеве»”,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омск, 2012) С. 143.

9) Лазарев Л. И. “Человек среди людей: О Василии Гроссмане”, Гроссман В. С. *Несколько печальных дней* (М.: Современник, 1989), С. 4 참조.

10) 레즈네프는 여성인 군인이 출산하는 것, 여성 군인이 모성애를 가지는 것,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역설적인 슈제트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에게 맡긴다. 헤흐트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그로스만의 단편들이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그린베르크는 마가자닉의 마지막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가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Бит-Юнан Ю. Г. Указ. соч., С. 82-83에서 재인용.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하다.

III ‘황금의 시대’와 영웅의 부재 : 「개」를 중심으로

호루쇼프 시대의 소비에트에서는 전후 복구와 더불어 우주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집중하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기반한 새로운 영웅서사를 구축하는 일이었다.¹¹⁾ 이 시기 그로스만은 이미 러시아 내전과 대조국전쟁, 러시아 영토 내 홀로코스트를 경험했고 점차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말 못 하는 동물들의 운명이 인류의 불완전한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¹²⁾ 「개」의 모티프가 된 것은 1960년 생명체를 우주선에 태우고 처음으로 무사히 귀환했던 벨카와 스트렐카의 비행이다. 작품에는 우주 개발이라는 소비에트의 위대한 과업 아래 도구화되는 동물이 등장하며, 후기 작품에서 그로스만이 특히 몰두했던 “우주적(вселенской)” 슬픔과 고통, 신념, 책임감의 모티프들이 두드러진다.¹³⁾

소설은 떠돌이 암캐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개’는 길에서 태어나 늘 비루하게 떠돈다. 그러나 흠냄새와 풀냄새를 만끽하며 자유롭게 장난치거나, 인간의 따뜻한 시선을 받거나,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가졌던 때에는 그저 “살아있다는 행복과 기쁨으로 살이 찌는 듯(Казалось, она толстела от счастья, от радости быть живой)”(НП:324) 했다.

한편, 개의 삶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추위와 배고픔은 물론, 땅속에 묻힌 전선에 감전되고, 먹을 수 있는 쓰레기와 먹을 수 없는 쓰레기를 구분해야 했으며, 자동차의 속도와 위험성을 익혀야만 했다.

11) 이 시기 ‘미개척지’를 향한 소련 정부의 열망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카자흐스탄 목초지 개간 운동을 통한 수확량은 그 결과값이 들쭉날쭉했음에도 제3세계 농업 사회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1957년 스푸트니크 발사 프로그램은 소련의 명성을 드높이는 사건이었다. 올랜도 파이지스(조준래 옮김), 『혁명의 러시아 1891~1991』 (어크로스, 2017), 378-382쪽 참조. 호루쇼프 시대의 새로운 개척 대상이자, “유토피아주의와 영웅주의, 테크놀로지와 미디어가 결합된” 우주 개발 신화에 대해서는 이지연, 「영토와 영광 : 러시아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9 (2015) 353-356쪽을 참조하라.

12) Лазарев Л. И. Указ. соч., С. 118 참조.

13) Бочаров А. Г. Указ. соч., С. 313 참조.

도시에서는 “생존을 위해 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가 필수적이었다(Но для её борьбы мало было технического опыта и знаний,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онимание сути жизни, нужна была жизненная мудрость).”(НП:325)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절 “그녀 안의 선행은 그 누구에게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но добро, жившее в ней, никому не было нужно)”(НП:325)는 점이다. 봄의 냄새, 따뜻한 난방 파이프 곁의 쪽잠, 사랑, 모성애, 횡단보도, 자동차의 위험 등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 축적된 지식, 경험, 지혜, 통찰은 개의 내면에 ‘선(добро)’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이 떠돌이 시절에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치가 없는 상태로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실험실에 잡혀간 개는 ‘페스트루시카’라는 이름을 얻고 우주선에 타기 적합한 실험체가 되기 위해 각종 실험과 훈련을 받게 된다. 그를 관리하는 사람은 과학자인 알렉세이 게오르기예비치이다. 이때 그로스만은 개와 과학자의 관계에서 독특한 ‘자유’의 개념을 보여준다.

Каким-то странным, непонятным образом этот, ставший хозяином ее жизни и судьбы, человек связывался у нее с ощущением весеннего зеленоватого тумана, с чувством воли.

Она смотрела на человека, обрекшего ее клетке и страданиям, и в сердце ее возникала надежда.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삶과 운명의 주인이 된 이 사람은, 봄날의 연둣빛 안개. 자유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철창과 고통 속에 가둔 사람을 바라봤고, 가슴 속에서 희망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НП:327)

주인을 향한 ‘воля’의 감각은 떠돌이 시절 페스트루시카가 보았던 ‘봄날의 연둣빛 안개’와 함께 분명히 ‘자유’의 감각으로 읽힌다. 이러한 인식에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이다.¹⁴⁾ 그로스

14) свобода와 воля 모두 ‘자유’로 번역될 수 있다. 본래 свобода는 사회적 틀 안에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허가와 금지’의 질서가 잡힌 사회의 시민적 권리에 가까우며, воля는 강한 갈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여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상태’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свобода가 воля에 담긴 의지적 자유를 흡수하는 것으로

만에게 ‘자유’란 육체적 자유를 초월하여, 어떠한 시대적 조건 하에 있는 삶도 죽음도, 자유도 복종도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의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⁵⁾

페스트루시카가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알렉세이 게오르기예비치는 유능한 과학자이며, 우주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다. 동시에 부하직원들에게는 냉혹하고 까다로운 상사였으며, 상사들에게는 따지기 좋아하고 대하기 어려운 부하직원이다. 그는 짜증이 많고, 의심도 많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고립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페스트루시카)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가 가져다준 악에는 선으로, 고통에는 사랑으로 응답했다(Она, подобно Христу, платила ему добром за зло, любовью за страдания, что он приносил ей).”(НП:328)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인간 세계와 대비되는 페스트루시카의 애정은 알렉세이 게오르기예비치를 변화시키는데, 상사들과 부하들, 가족들과 친구들까지도 그가 전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워졌으며, 어딘가 슬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수식과 칸트의 철학의 영역에서만 그려왔던 우주 공간을 개발하는 과업을 수행하며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전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도구로 소모되는 동물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그가 더더욱 우주비행을 성공시켜야 하는 동기가 되었고, 주어진 과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마침내 말 못 하는 동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우주로 쏘아 올려진다. 보조 연구원인 아프레시안이 광활한 우주에서 홀로 울부짖는 개의 모습을 알렉세이 게오르기예비치에게 전달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기계는

나타난다. свобода와 воля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길윤미, 「러시아 언어와 문화에서 свобода와 воля의 개념」, 『슬라브어연구』 17 (2012)를 참조하라. 자유에 대한 그로스만의 독특한 인식은 추후 보다 많은 작품들을 통해 보다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15) 적극적인 내면의 ‘자유’에 대한 그로스만의 인식은 장편소설 『삶과 운명』에서도 묘사된 바 있다. 작품에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 앞에서 “살아남는 대신 소년과 함께 가스실을 선택했던 소피야”, “유대인을 학살하는 가스실 건설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이콘니코프” 등과 같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윤영순, 「계승과 단절의 사이에서: 그로스만의 『삶과 운명』을 읽는 두 가지 방법,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0 (2015) 167-169쪽을 참조하라.

완벽하게 작동하여, 얼마간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과학자와 개는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취와 보상이 아니라 온전한 재회이다.

Алексей Георгиевич сам поехал к месту приземления космического контейнера. Он должен был первым увидеть Пеструшку. Его заместители и помощники на этот раз не могли заменить его.

Они встретились так, как хотел того Алексей Георгиевич. Она бросилась к нему, робко повиливая кончиком опущенного хвоста.

Он долго не мог увидеть глаз, вобравших в себя мироздание. Собака лизала его руки в знак своей покорности, в знак вечного отказа от жизни свободной странницы, в знак примирения со всем, что есть и будет.

Наконец, он увидел ее глаза – туманные, непроницаемые глаза убогого существа с помутившимся разумом и покорным любящим сердцем.

알렉세이 게오르기예비치는 컨테이너가 착륙한 지점으로 직접 향했다. 그가 가장 먼저 페스트루시카를 봐야만 했다. 이번에는 그의 후임자나 조수들이 그를 대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알렉세이 게오르기예비치가 바랐던 그 방식으로 만났다. 페스트루시카는 내린 꼬리 끝을 조심스레 살랑이며 그에게 뛰어 들었다.

그는 우주를 품은 눈을 한동안 볼 수 없었다. 개가 그의 손을 핥았다. 그것은 복종의 의미이자, 자유로운 방랑자의 삶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의미였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과의 화해의 의미였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눈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혼미한 정신과 지고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은 가없는 존재의 흐릿하고 어두운 눈이었다.(НП:331)

떠돌이 시절, 페스트루시카 내면의 ‘선’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았으나, 이제 과학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다. 늘 심전도와 같은 기계장치를 통해 개를 이해하려 했던 과학자가 눈을 들여다보는 마지막 장면은 웅변 없이 두 존재의 ‘선’을 드러낸다.¹⁶⁾

16) ‘선(добро)’에 대한 그로스만의 생각은 『삶과 운명』에서도 언급된다. 독일 포로수용소에 갇힌 이콘니코프는 볼셰비키인 모스토프스코이에게 “폭력이

이 마지막 문단의 중요성은 검열에서 드러난다. 「개」는 작가 사후인 1966년 3월 『문학 러시아(Литературная Россия)』에 처음 게재되는데, 이때 마지막 문단이 삭제된 채 공개된다. 보차로프는 해당 문단이 삭제됨으로써 작품 전체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개는 실험동물로 소모되어 고통받은 생명체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변했고, 과학자는 과업이 진행될수록 개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입체적 인물에서 실험의 성공에 찬착하고 있는 인간으로 단순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이 소비에트 과학 기술의 승리, 인류의 진보에 대한 찬사로 비쳐, 독자가 생명에 대한 책임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기술과 윤리의 긴장 관계도 사라졌음을 지적한다.¹⁷⁾

기술과 윤리의 문제는 그로스만의 후기 산문들에서 두드러지는데, 라자레프는 그로스만이 후기작 「아벨(Авель)」(1953)을 통해 기술 발전의 시대가 ‘도덕적 책임(нравствен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을 익명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핵 공격을 결정하고, 누군가는 명령을 내리고, 또 누군가 명령을 받아 발사 버튼을 누르자,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다. 그로스만은 이러한 ‘분업’의 결과, 모두가 범죄에 참여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감을 느낄 수 없는, 도덕적으로 무더진 상태임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다.¹⁸⁾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과 피가 있습니다. 나는 농민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봤지만, 집단농장화는 선의 이름으로 추진되었죠. 나는 선(добро)을 믿지 않아요. 나는 선함(доброта)을 믿습니다.”, “히틀러에게 물어 보세요. 그는 이 수용소도 선(добро)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 Гроссман В. С. За правое дело. Жизнь и судьба (М.: Эксмо, 2013) С. 698. 강조는 인용자의 것. 이때 ‘선(добро)’은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선함(доброта)’은 구체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베르디체프 시에서」 중 마가자너 부부가 알료샤에게 줄 우유를 데우기 위해 곤로를 켜는 행위, 「개」에서는 과학자의 손을 활는 행위, 개와 과학자가 눈을 맞추는 행위는 ‘선함’에 가깝다. ‘선’이 그로스만 인간관을 보여주는 핵심인 만큼 이 행위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텍스트를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7) Бочаров А. Г. Указ. соч., С. 313-314 참조.

18) Лазарев Л. И. Указ. соч., С. 11 참조. 그로스만의 이러한 예감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 소련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발사체 연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 군사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쿠바 혁명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쿠바안으로 핵탄두를 배치하려 했던 흐루쇼프가 실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올랜도 파이지스(조준래 옮김), 『혁명의 러시아 1891~1991』 (여크로스, 2017) 378-382쪽 참조

인간의 우주 정복을 위한 서곡으로 여겨졌던 라이카, 벨카, 스트렐카의 비행에 찬사를 보내는 오체르크와 시가 절대적이었던 때에, 그리고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신화화되었던¹⁹⁾ ‘황금의 시대’에,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게 된 ‘선한 인간’이 과연 필요했을까? 이 인간은 당의 결정에 따라 핵 전쟁의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그로스만은 다시 한번 작품에서 ‘시의적절하지 않은’²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V. ‘산사태의 시대’를 예감하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시기 체호프와 고리키는 각기 다른 관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두 작가가 그렸던 미래에서 그로스만이 목도한 것은 내전과 두 번의 세계대전, 체제 유지를 위한 비극의 신화화와 또 다른 영웅서사의 기획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그로스만의 비이념적이고 탈영웅적인 인간관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로스만의 초기 단편소설 「베르디체프 시에서」는 러시아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들이 그렸던 긍정적 인간의 전형이 아닌, 어머니로서도 불세비키 군인으로서도 불완전한 개인의 삶을 볼 수 있었다. 후기 단편소설 「개」에서는 기술적 진보와 주어진 과업의 성공을 찬양하는 대신,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을 깨닫는 과학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세기 말 끝내 무너지게 될 소비에트 체제의 한계를 예감한 듯, 그로스만은 동시대에서 복제·모방되었던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는다. 그로스만은 ‘위대한 과업’을 위해 살아야 했던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응시하고, 문명의 진보에 이용된 한 마리 개의 운명을 놓치지 않는다. 그로스만은 이념에 정도된 인간도, 공허한 삶을 사는 인간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다. 이때 인간의

19) 유리 가가린은 우주선을 조종하기보다 규격화된 우주선이라는 공간에 최적화된 몸을 가진 인간일 따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련 정부에 의해 우주 영토에 도달한 최초의 인간으로서, 평범한 인간에서 소련의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초인적인 훈련을 통해 우주에 도달하는 신화적 영웅의 상징으로 기획된다. 이지연, 앞의 논문, 2015, 353-356쪽 참조.

20) Бочаров А. Г. Указ. соч., С. 313.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선(함)'이며, 이는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로 보인다. 작품의 그러한 경향은 시대와 불화하는 것으로 「베르디체프 시에서」에 대한 비평가들의 상대적 무관심, 『삶과 운명』 원고의 압수, 「개」에 대한 검열과 삭제 등을 통해 드러났다.

그로스만의 초기작인 「베르디체프 시에서」(1934)와 후기작인 「개」(1961)에 대한 분석만으로 그로스만의 인간관을 총체적으로 논하기엔 불충분하다. 이에 대조국전쟁 이전 그로스만의 초기 산문의 경향성을 우선 살펴보고,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산문과 해빙기 작품에 나타난 보다 많은 인물 형상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군기자 시절의 보도기사와 오체르크, 전쟁 이후 홀로코스트 기록물 등 소설이 아닌 작가의 글쓰기를 참고하는 것 또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그로스만의 인간들이 가진 '선'과 '선함', '자유'와 '의지'의 정동(情動)을 보다 정교하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길윤미, 「러시아 언어와 문화에서 свобода와 воля의 개념」, 『슬라브어연구』 17, 2012.
2. 올랜도 파이지스(조준래 옮김), 『혁명의 러시아 1891~1991』, 어크로스, 2017.
3. 윤영순, 「계승과 단절의 사이에서: 그로스만의 『삶과 운명』을 읽는 두 가지 방법」,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0, 2015.
4. 이지연, 「영토와 영광 : 러시아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9, 2015.
5. 이희원, 「러시아 영화의 가족 담론 변화 : 스탈린 시기에서 해방기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38, 2014.
6. Биккулова И. А. *Феномен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еребряного века*, М.: Флинта, 2010.
7. Бит-Юнан Ю. Г. “Рецепция творчества В. С. Гроссмана в совет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е 30-х гг.”, *История журналистики и литературной критики*, М., 2010.
8. Бочаров А. Г. *Жизнь и судьба Василия Гроссмана*,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90.
9. Гроссман В. С. *За правое дело. Жизнь и судьба*, М.: Эксмо, 2013.
10. _____ *Несколько печальных дней*, М.: Современник, 1989.
11. Дёгтева В. В. “Образ женщины-комиссара в рассказе В. Гроссмана «В городе Бердичеве»”,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омск, 2012.
12. Никонова Т. А. *Мифология "Нового мира" 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ервой трети XX век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доктора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Воронеж: Воронеж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04.

Abstract

**The “Untimely” Humanism of Vasily Grossman:
Focusing on “In the Town of Berdichev” and “The Dog”**

Kim, Mincha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Vasily Grossman’s “untimely” views of humanity, focusing on his early short story “In the Town of Berdichev” and his later work “The Dog”. In “In the Town of Berdichev”, Vavilova is depicted as both a mother and a Bolshevik revolutionary, caught between motherhood and ideological duty. In “The Dog”, the scientist feels not so much the triumph of a great achievement, but rather a moral responsibility toward the dog that is sacrificed in the process. These characters are far from the idealized heroic figures replicated and disseminated within the Soviet system. Also, Grossman does not try to make real life look better just to support an idea, which makes his view of humanity feel out of step with the times. They are not oriented toward a utopian future but interact with real people in the present, embodying goodness through lived experience. This idea of “goodness” is at the heart of all Grossman’s writing.

Key words : Vasily Grossman, Russian Civil War, Soviet Space Program, Hero, Goodness

러시아어 담화어 **скажем** 연구

김 정 일*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어 담화표지 **скажем**에 대한 어휘 사전과, 담화표지 사전의 기술을 살펴보고, 사전들 간의 **скажем**의 기술 방식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에 주목한다. 어휘사전의 경우 상위 순번에 발화동사로서의 어휘적 의미가 배치되고, 하위 순번에는 어휘적 의미나 상적인 의미가 약화되는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이 배치되고 있다. 담화표지 사전들에서는 담화표지로서의 기능들이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사전에서 흥미롭게도 담화소사 **скажем**의 대표적인 기능을 크게 (1) 예시기능 (2) 가정적 상황 제시의 기능으로 분리해 기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만 제시되어 있거나 두 가지 모두 기술되어 있더라도 서로 배제적이거나 별개의 기능으로 기술되어 있다. 예시기능을 수행할 경우, **скажем**은 다른 담화소사인 **например**와 동일하고, 가정적 상황 제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допустим**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예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скажем**과 **например**와의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맥락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의 이 둘의 관계가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적 위계의 측면에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Prince의 추정된 친밀도의 위계의 틀을 적용해 본 결과 **скажем**은 하부영역 전체에서 사용가능하고, 화자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자의적인 개입이 일어나고 있다. **например**의 경우는 예시에 논리성이라는 요인이 깊게 작용하고 있어 추정된 친밀도의 틀의 일부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는 **скажем**의 태도설정형 담화표지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즉흥적 발화의 상황에서 자의적 예시를 선택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 사이의 길항관계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단언성을 약화시키고 보다 유연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상호배제적이었던 예시 기능과 가정적 상황 제시 기능이 인지적으로 서로 연관이 된다.

주제어 : 담화표지, 근거, 태도, 화자의 자의적 선택, 예시, 가정, 청자의 수용, 정보적 위계

1. 서론

скажем은 러시아어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발화동사인 сказать의 1인칭 복수형 형태이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이 형태가 발화행위를 지칭하는 어휘 의미는 물론, 완료상으로서 가까운 미래를 가리키는 상적 의미마저 상실한 채, 특정한 담화 내 기능으로 고정되어 담화표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특정한 어휘가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적 기능으로 고정되어 가는 문법화 현상은 러시아어에서 광범위하게 포착된다. 특히 러시아어처럼 화자와 청자 간의 거리조절이 매우 역동적으로 통사적, 어휘적, 담화적 수단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가 최근 들어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¹⁾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сказать라는 러시아어의 대표적인 발화동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러한 탈의미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담화표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Schiffrin(1987:49)이 지적하듯이 “담화의 정합성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분석의 일부로서, 화자와 청자가 어떻게 형태, 의미, 그리고 행위를 통합하여 말해진 내용 전체에서 의미를 구성해 내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러시아어에서는 ‘담화표지’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쟁과 용어적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담화표지(дискурсивные слова), 소사(частицы), 삽입어(вводные слова)는 실제로는 유사한 현상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비롯되는 구분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담화표지는 그 용어가 함의하듯 일차적

1) 이와 관련하여, Подлесская(2024:58)는 담화표지 скажем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так과 결합하여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는 скажем так을 비교하여, 이들이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활성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를 НКРЯ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개한다. 그녀의 조사에 따르면 скажем은 1920년경까지 백만 어절당 등장 횟수가 10회 미만이었으나, 1960년 40회 정도로 증가하고, 1980년 이후에 60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면 скажем так은 단독형 скажем에 비해 등장 빈도는 현저하게 낮으나, 1980년도 약 2회 정도에서 2000년도 경에는 4회 이상, 2020년도 경에는 6회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НКРЯ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어체 기반보다 담화표지의 등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어체 기반 자료에 편중되어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추세로 추정해 볼 때 단독형 скажем 혹은 скажем과 다른 부사와의 결합은 더욱 활발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은 해당 어휘범주가 담화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놓인다. 따라서 담화 표지는 화자가 청자나 발화에 대하는 태도, 발화와 발화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규정, 담화의 연결, 담화의 구조, 발화에 담긴 정보의 구조, 담화에 대한 태도를 화자의 의도와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고 적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 적용 범위는 문장 단위보다는 큰 규모의 발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Киселева и Пайар(ред.)(1998), Киселева и Пайар(ред.)(2003), Schiffrin(1987), Zucker & Zip(eds.)(1998), Fraser(1999), Schiffrin(1987:21-30) 등이 적절히 지적하듯 담화표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맥락과 소통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사는 보다 문법적, 어휘적 개념이며 주요 적용 영역 역시 담화보다는 문장이다. 러시아어의 품사 중 하나인 소사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문법 교과서에 관련 기술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Виноградов(1972:520-522)는 라틴어의 *particula*에서 유래한 소사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구나 문장 단위에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형성하며, 종종 양상 개념과 결합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이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I(1982:723-730)에서는 소사를 의미를 실질적으로 가지지 않는, 오직 기능만을 가지는 품사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비현실성이나, 평가적, 양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긍정이나 부정에 관여하며, 행위나 상태의 시간적 경과, 완결성, 미완결성, 결과성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소사가 표현하는 의미를 해당 어휘가 문장 내에서 실현하는 관계의 문제로 규정한 점이다. 이후에 이어진 연구들도 앞서 언급한 Виноградов 및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의 소사에 대한 기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삽입어는 문장 속에 등장하는 통사적 실현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둔 개념이다. 문장 속에 독립적으로 삽입되는 삽입어는 섭표나 대쉬, 괄호 등의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제거해도 문장의 구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독립적으로 문장 속에 존재한다는 형식적 특성이 모든 소사나 담화 표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II(1980:228-230)에서는 삽입어의 중요한 특징을 크게 4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 구체적인 사물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은 포함되지 않으며, 둘째, 다양한 품사의 단어들이

삽입어로 기능할 수 있으며, 셋째, 다른 모든 부류의 단어들과는 구별되며, 동시에 양상 소사와 유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 전달되는 내용을 화자의 관점에서 특징짓고, 전달 내용에 대해 화자가 지니는 태도를 표현하며, 넷째, 문장 내 위치는 자유롭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скажем*은 담화표지와, 소사, 그리고 삽입어로서의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담화표지로서의 *скажем*의 속성, 즉 발화에 대한 화자가 가지는 태도와 청자 및 발화에 대해 화자가 수행하는 거리 조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어휘 사전들에서의 기술

발화동사 *сказать* 의 1인칭 복수형인 *скажем*이 담화표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여러 어휘 사전에서 지적되어 왔다. *МАС* 사전에서는 발화동사로서의 *сказать*의 전형적인 의미 이외에도 삽입어로서 *скажем*이 “예를 들어(*например, к примеру*)”라는 의미를 별도로 가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²⁾

-
- 2) 본 논문에서는 Кузнецов(1998), *МАС*(1999), Ожегов и Шведова(2011) 등의 총 3종의 어휘 사전을 사용하였다. 사전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 학술 사전으로 충분히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2) 199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가 사전 기술에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3) 현대 러시아어의 다양한 용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이었다. *МАС* 사전은 러시아학술아카데미에서 발간된 매우 공신력이 높은 사전이며, Ожегов 사전은 1949년 발간된 후 지속적으로 사전 기술의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며, Шведова 등의 명망 있는 후세 연구자들에 의해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 Кузнецов 역시 현대 러시아어의 풍부한 용례들이 많이 포함된 공신력 있는 사전이라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어휘 사전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의미에서, 보다 추상화된 의미의 순으로 기술이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담화표지 사전은 1990년대 이후에 출판되었으나, 기술 수준이 담화표지들의 기능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보다는 Шимчук и Щур(1999)처럼 특이한 용례의 관용표현 모음집과 같이 예문 수합에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전 기술의 충실도가 높은 Моровкин(1997), Бурцева(1999),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фполь(2009) 등의 3종의 사전들을 선택하였다. 다만 러시아에서 담화표지에 대한

(1)

Разговор зашел об этом самом трагизме, — когда человек сознает, что, скажем, счастье любви есть высшее счастье, но он не способен отдалиться ему.

바로 그 비극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갔다 — 어떤 사람이, 예컨대, 사랑의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임을 인식하지만, 거기에 자신을 마냥 맡길 수 없는 바로 그때 말이야.

— 베레사예프, 「만세, 온 세상이여!」

이 예문에서 скажем을 바로 앞에 등장하는 비극성(трагизм)의 전형적인 예로써, “사랑의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임을 인식함에도 거기에 자신을 마냥 맡길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을 들고 있다. 이때 러시아어에서 예를 제시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например, к примеру와 그 논리적 기제는 유사하면서도 화자가 그 대신 скажем을 선택할 때 의도하는 담화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기술 방향이 될 것이다. МАС사전은 сказать 항목에 모두 7개의 의미 및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발화동사로서의 의미는 4가지로 제시되고³⁾, 다섯 번째는 1인칭 복수형 скажем이 например, к примеру의 의미를 가진 담화표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여섯 번째는 명령형 скажи, скажите의 형태가 놀라움, 분노, 불쾌감 등의 감정을 표시하는 감탄사의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점⁴⁾, 마지막 일곱 번째는 2인칭 단수형 скажешь이 상대방의 발화나 상대방에 대한 부동의, 혹은 경멸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МАС, 1999:Т. 4:101). МАС 사전은 원칙적으로는 어휘사전임에도 сказать 항목에 4개의 의미와, 3개의 기능을 순차 배열함으로써, сказать에서 매우 활발하게 문법화가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기술은 다른 러시아어 사전들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Ожегов

연구가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 사전들에 대한 기술 역시 이런 연구들이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 3) (1)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말로 표현하거나 알리는 것 (2) 이야기해주는 것. (3)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것. (4) 추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 4) Восклицание, служающее, пр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интонировании, для выражения удивления, возмущения, негодования и т. п. по поводу чего-л.

и Шведова 사전(2011:2671)에서는 сказать 의미 및 기능을 4가지로 단순화시켜, говорить의 의미를 가지는 전형적인 발화동사와, скажем의 형태로 가정을 나타내는 삽입어로 기능하는 경우, 명령형 скажи(те)의 형태로 놀라움을 나타내는 경우 скажешь, (скажет! сказал!) 등의 형태를 이용하여, 부정 혹은 불신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술함으로써 한 개의 의미와 3개의 기능을 순차 배치하고 있다. 한편, Кузнецов 사전(2000:1191)에서는 сказать에 대해 의미 기술에서는 МАС 사전과 상당히 유사하게 5가지의 기본 의미를 제시하되⁵⁾, МАС 사전과 Ожегов и Шведова 사전에서 독립적인 항목으로 기술되었던 기능들에 대해 관용어처럼 부가설명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Кузнецов 사전에서 скажем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추정(неуверенное допущение)을 나타내는 기제로 기술된다. 이들 사전에서 발췌한 아래의 예들에서 보듯 скажем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뒤에 나오는 진술에 대해 조심스러운 추정의 뉘앙스를 덧씌우게 된다. скажем이 없을 경우 이 문장들에서 화자의 확신이나 단정은 훨씬 강하게 드러난다.

(3)

Этот человек, скажем, и сам понимает, что надо делать.

이 사람은, 이를테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Кузнецов, 2000:1191)

(4)

Приезжай, скажем, завтра с утра.

이쪽으로 와, 이를테면, 내일 아침쯤에.

(Ожегов и Шведова, 2011:2671; Кузнецов, 2000:1191)

скажем의 기능만 살펴보자면 МАС사전의 “예시”라는 의미와 Ожегов 사전에서의 “가정”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МАС 사전에서는 어휘적 의미에 기반한 기능에, Ожегов 사전에서는 담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관점에 더 큰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예시”와 “조심스러운 가정”

5) Кузнецов 사전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нсв. говорить). (что). Выразить словесно мысли, мнения, сообщать (устно или письменно) (2) (нсв. говорить). что (о чём). Сообщить. (3) (нсв. говорить). (что). Устар. и разг. Рассказать. (4) Разг. (нсв. говорить). Велеть; приказывать. (5) 5. (обычно с отриц.). Предположить, подумать, заключить.

은 어떻게 인지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가가 본 논문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러시아어 국립코퍼스에 따르면 сказать 동사는 IPM(백만 어절당 등장수)이 2457.14로 러시아어의 전체 어휘 중 45번째로 자주 사용되고, 동사들 중에는 세 번째로 자주 사용된다.⁶⁾ 한편 сказать 동사의 보완료상 짝인 говорить 동사는 IPM 2144.85로 전체 단어중 49번째, 동사들 중에는 4번째로 자주 등장한다.⁷⁾ 이는 сказать 동사는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전형적인 발화동사로서 활발히 사용되면서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앞의 어휘사전들에서의 기술에서 보듯, 점차 의미와 기능이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2 담화표지 사전들에서의 기술

하지만 일반적인 어휘 사전 이외의 담화표지 전문사전들에서는 скажем은 сказать 항목 속에 의미 기술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이어서 그 기능이 기술된 것과는 달리 скажем의 독자적인 항목으로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기술이 이루어진다. 이들 사전에서는 скажем의 어휘적 의미 대신, 담화 기능에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Моровкин(1997:315)에서는 담화표지 скажем의 기본적인 용법을 “특정한 사람, 사물, 현상 등을 지칭할 때, 혹은 예시하거나 구체화하는 사람, 사물, 현상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때 예시로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일정한 자의성이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예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скажем은 그 쓰임상 например, к примеру, в частности, так등과 유사하다.

(4-1)

Давайте летом махнём куда-нибудь на север, скажем, в Новгород или Псков.

“여름에 북쪽 어딘가로 훌쩍 떠나보자, 가령 노브고로드나 프스코프 같은 곳 말이야.”

6) 동사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быть동사는 IPM이 12900.77로 전체 어휘 중에서는 7번째로 자주 사용되고, мочь동사는 IPM이 3041.26으로 동사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자주, 전체 단어 중에는 33번째로 자주 사용된다.

7)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URL.: <https://ruscorpora.ru/en/corpus/main/frequency-dictionary?pageSize=100&page=1&pos=>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5.03.2025).

(4-2)

Вы говорите, что хорошо знаете рус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а, скажем, “Печальный детектив” Астафьева вы читали?

“러시아 문학을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자면(가령) 아스타피예프의 『슬픈 형사』는 읽어 보셨는지요?”

(4-3)

Многие наши сотрудники, скажем, Мухин, Новиков и др.,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우리 직원들 중, 예를 들면(가령) 무힌, 노비코프 등은 이미 이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Моровкин, 1997:315)

이들 예문에서도 *скажем*은 선행사의 자리에 놓인 보다 포괄적인 어휘인 куда-нибудь,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сотрудник의 전형적인 예로 Новгород 혹은 Псков, “Печальный детектив”, Мухин, Новиков 등을 들고 있다.

Бурцева(2005:582)는 담화표지 *скажем*이 선행명사가 포괄하고 있는 예들 중 전형적인 것을 제시하는 예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Моровкин과는 달리, 화자가 *скажем*을 사용함으로써 후행발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표지한다고 주장한다.

(5)

Давай встретимся, скажем, ты и не хотел её видеть.

한번 만나자. 설령, 네가 그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다고 해도.

(Бурцева, 2005:582)

그에 따르면 앞의 예시 기능과는 달리, 이 예문에서는 *скажем*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뒤에 나오는 발언이 자신의 확신이나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진술의 명제내용이 청자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완화장치(hedge)로서 사용된다. 화자는 발언에 대한 자신의 책임성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기제로, 설령 청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써 *скажем*을 활용한다.

Моровкин이 МАС사전의 기술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Бурцева는 Кузнецов 및 Ожегов и Шведова 사전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어휘사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동일한 의미-상이한 기능(구체적 예시 기능과 조심스러운 의견 표명 기능)의 제시라는 기술 방식은 담화표지 사전들에서도 이어진다.

동일한 의미는 “предложим, будем считать возможным”로 기술되고 있는데⁸⁾ 동일한 기술이 담화표지 допустим에서도 발견된다(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 2009:341-342).

하지만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 사전에서는 Моровкин과 Бурцева를 통합하여, 어휘 의미로서 더 가까워 보이는 예시 기능과, 기능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추정 혹은 가정으로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 사전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술방식은 다른 어휘사전이나 담화표지 사전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써, скажем이 수행하는 담화기능의 복합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1)

Поэтому жители других районов, скажем Вокзального, где изъятия ещё не было, свозят к Гречешкому базару, как в безопасное убежище, свой ценные вещи.

“그래서 다른 지역들, 이를테면, 보크잘니 지역의 주민들은, 그곳에서는 아직 수탈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중품들을 그레체쉬 시장으로 옮기는데, 그곳이 마치 안전한 피난처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6-2)

Ты присматривайся, милый человек, чем каждая птица или, скажем, иная какая живность дышит.

너는 잘 지켜보렴, 사랑스러운 사람아, 새 한 마리 한 마리가, 또는, 가령, 다른 어떤 생물은 무엇으로 호흡을 하는지.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 2009:341-342)

(6-1)에서는 앞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선행 명사 другие районы의 한 예로, Вокзальный가 제시되고 있는 전형적인 예시의 경우라 할 수 있다. (6-2)

8) 같은 사전 내에서 допустим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Упо- т ребляется в функции вводного в значении «предположим, будем считать в озможным».

에서는 화자가 скажем 뒤에 등장하는 명제를 단언의 방식이 아닌 추정 혹은 가정의 가능성으로 전제하며 소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2009:342)은 скажем이 담화표지로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부사 혹은 부사구와 결합되는 변이형 3가지도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1) “진술의 진실성과 대화 상황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скажем прямо (просто, откровенно, честно, даже), (2) 진술의 진실성과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하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скажем к примеру, (3) 화자가 자신의 표현이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скажем так (так скажем)등이다. 이러한 부사, 혹은 부사구 결합방식을 저자들은 скажем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와 별개로 다루고 있다.⁹⁾

2.3 담화표지 скажем과 완충장치

Подлесская(2024:52-82)는 단독으로 쓰이는 скажем과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이 제시한 다양한 변이형들을 각각 скажем1과 скажем2로 명명하고 이들의 운율적 속성이나 통사적 특성, 등장 시기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분석을

9) 그들이 각각의 경우에 들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 Но если ему, скажем просто, хочется вывести на чистую воду прогрессивных критиков, то ему не стоит стараться: Волынский и Айхенвальд уже давно это делали.

하지만 그가,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하자면, 진보적인 비평가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싶어 한다면,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볼르인스키와 아이헨발트가 해냈다.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 2009: 342)

- (2) Конечно, если мне, скажем к примеру, быть возле тебя вроде как бы начальником штаба,- то уж я не дал бы тебе всякие глупости вытворять!

“물론, 만약 내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 네 옆에서 일종의 참모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 나는 너에게 온갖 바보 같은 짓을 절대 못 하게 했을 거야!”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 2009:190)

- (3) Здоровому, так скажем, каприз, потому его сиятельство может ведь свои резоны имет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를테면 변덕일 수 있겠지. 왜냐하면 각하께서는 자신의 이유를 가질 수도...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 2009:377)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담화표지 скажем1과, скажем2 유형은 발화동사 본래의 의미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발화 내용을 기술하는 기능, 그리고 완료상으로서 가지는 미래 시제 표현의 기능까지도 상실되는 일종의 화용화(pragmatization)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뒤, скажем1과 скажем2 발화자의 인식적 태도의 조절이나,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조절이라는 메타언어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이들은 발화에 대해 화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며 그에 대한 책임성을 완화하는 하나의 완충장치(hedge)로 작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청자의 잠재적 반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부정확성, 모호함, 혹은 불확실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Богданова-Белгарян(2012:153-157)도 скажем (단독으로 사용된 скажем 과 다양한 부사의 결합을 포함하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발화할 때 화자가 보여주는 “주저함”을 들고 있다. 사실 발화동사가 담화표지로 사용될 경우, 원래의 어휘 의미를 상실하고 담화표지로서 일종의 메타언어적 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은 러시아어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영어의 발화동사 say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¹⁰⁾ 영어의 대표적인 발화동사 say의 담화기능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가 скажем의 담화기능을 기술할 때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들과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높은 사용빈도수를 지니고 다양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발화동사가 일정한 정도의 문법화를 겪는 현상은 매우 편재적일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주저하고, 조심스러운 추정을 제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Хачатурян(2003: 84)은 скажем이 1인칭 복수형 형태라는 데서 그 연원을 찾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발화행위는 온전한 화자만의 영역이 아닌 청자와 공존하는 공간이 된다. 청자 역시 발화의 주체로 당연히 참여하게 되고 발화에 대한 책임 역시 화자가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화자는 지극히 청자를 의식하는 발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 Lee Chun-hee(2003)는 영어의 발화동사 say가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모두 5가지의 담화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그가 제시하는 5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2) 이전에 언급된 정보의 선택적 명시: 기존 정보에 대한 구체적 예시나 설명을 추가할 때 사용 (3) 가정된 상황 제시: 가상의 상황이나 조건을 설정하여 설명을 전개하는 기능 (4) 청자의 주의를 끄는 기능 (5) 자기 수정 혹은 주저함의 표시

Киселева и Пайар(ред.)(2003:8-16)는 Баранов, Плунгян и Рахилина (1993)나 Киселева и Пайар(ред.)(1998) 등 199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진 담화표지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담화표지들이 발화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크게 보증형 담화표지(ДС с гарантом)와, 태도 설정형 담화표지(ДС с установочной базой)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전자는 세상에 대한 진술을 기반으로, 특정한 사물이나 상태가 그에게 적합한지 여부에 맞추는 경우이다. 이때 담화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발화가 세상과 얼마나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하게 된다. 후자는 발화에 대한 일정한 관점을 견지하고, 그 관점들 사이의 상대적 다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가 된다. 전자가 발화와 세상과의 관계에 1차적 관심이 주어진다면 후자는 화자와 발화와의 관계에 1차적인 관심이 주어진다. 즉 발화가 세상을 향하는가 아니면, 다른 발화를 향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2분법적 구분은 양상논리학에서의 전통적인 *de re*, *de dicto*의 구분을 연상시키나 실제 발화의 맥락에서 이러한 이분법은 그리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이들을 하나의 긴 연속선상에 놓인 지향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보다 높은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¹¹⁾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скажем*은 발화의 적격성 여부를 세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보증형 담화표지라기 보다는, 화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발화에 투영하는 태도 설정형 담화표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Подлесская나 Хачатурян, Богданова-Белгарян 등이 제시하듯 조심스러운 추정과 가정을 제시하는 일종의 완화장치로 담화소사 *скажем*을 규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Моровкин, МАС 사전에서의 기술에 상당히 경도된 듯하며 Ожегов и Шведова, Бурцева, Кузнецов가 중요하게 보았던 예시기능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약점을 지닌다. 이로 인해 예시기능

11) Киселева и Пайар(2003:50-79)에 따르면 동일한 어근을 공유하는 담화표지들인 *видно*, *видимо*, *по-видимому* 중 *по-видимому*, *видимо*가 보다 보증형 담화표지적 성격을 가졌다면, *видно*는 보다 태도 설정형 담화표지의 성격을 가진다. 전자가 뒤에 나오는 명제 혹은 발화의 신빙성,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화자의 확신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뒤에 나오는 명제 혹은 발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보다 초점을 두기 때문이며 그 태도는 화자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중의 하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видимо*와 *по-видимому*는 화자가 그러한 시각적 판단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는 경향이 큰 반면에 *видно*는 화자의 시각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경향이 높다.

은 скажем의 중심적인 기능에서 벗어난, 부차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예시적 기능은 담화표지 скажем의 중심적 기능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나아가 예시 기능이 청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조심스러운 추정 및 가정의 제시기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4. скажем과 예시 기능 다시보기

앞의 여러 어휘사전들과, 담화표지 사전들에서 скажем이 예시의 의미를 가질 경우, 그것은 наприме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문 (4)에서 скажем에 선행하는 명사들의 전형적인 예들이 скажем에 후행하여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7)

Уважаемые мамы, только поймите правильно, тезисом о безусловном принятии своих деток навесило мне такой вопрос: а есть ли в вашем понимании нечто такое, что все-таки могло бы поколебать вашу материнскую любовь к достаточно взрослым детям, скажем (например), старше 16.

존경하는 어머니들, 정확히 이해해 주세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주장이 저에게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만일 어머니들이 이해하시기에, 그래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 큰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들의 모성애를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를테면, 16세 이상 자녀들에 대해? (НКРЯ)

(8)

Еще добавлю, что мне в 152 нравится. Там квартирует школа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Sunny+», мы уже второй год туда ходим,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учиться в этом же здании очень удобно. Кстати, об английском — скажем (например), в нашей 149 школе английский был так себе. Моя занималась в платной группе — а те детишки, что шли по обычной программе, еле-еле за пол года прошли то, что «наши» за две недели. В этой же, 152, английский (обычный, бесплатный) на порядок выше по уровню — достаточно сказать, что занимаются они по учебникам, которые в 149-й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 платной группе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занятий.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152번 학교가 마음에 들어요. 그곳에는 ‘Sunny+’라는 영어학원이 입주해 있어서, 우리는 벌써 2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 건물에서 공부하는 게 아주 편하죠. 참, 영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 이를테면, 우리 149번 학교에서는 영어가 별로였어요. 제 아이는 유료반에서 공부했는데, 일반반에 다니던 아이들은 반년이나 걸려야지, 우리 애들이 2주 만에 끝낸 걸 간신히 끝낼 정도였어요. 그에 비해 지금 다니는 152번 학교에서는 수준이 훨씬 높아요(보통반이고 무료인데도요) — 149번 학교에서는 유료 보충수업용으로 사용하던 교재를 152번에서는 그냥 정규 수업에서 쓰고 있을 정도니까요. (НКРЯ)

(9)

У меня в юности была история, когда совершила я «что-то эдакое» и выпутывалась сама, от родителей скрыла именно, боясь их разочаровать, хотя отношения у меня с ними..., скажем, многие бы могли позавидовать.

젊었을 때, 저는 '그런 짓'을 저질렀던 적이 있어요. 자 스스로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왔고, 부모님께는 그걸 숨겼었죠. 그분들을 실망시킬까 봐 무서웠거든요. 비록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를테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였지만요. (НКРЯ)

(7)의 문장에서는 *взрослый дети*의 전형적인 예로 *старше 16*이 선정된 경우이고, (8)의 문장에서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전형적인 예로 149번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 경우 *скажем*과 *например*의 교체 가능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9)의 경우는 *скажем*과 *например*와의 교체가 매우 어색하다.¹²⁾ 이는 앞서 예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скажем*이 *например*의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던 여러 사전들의 기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например*와 교체 가능한 *скажем*에 대한 Моровкин과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¹³⁾의 기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들 사전에서의 *например*에 대한 기술과 비교해 보자. Моровкин(1997:206, 315)에서는 *скажем*을 “무엇인가를 예를 들고 구체화하기 위해 선택이 이루어지되, 그 선택에는 자의

12) 예시의 기능을 하는 모든 *скажем*이 *например*로 교체했을 때 어색한 경우도 있음은 이미 Хачатурян(2003:91-83)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13) Буцева(2003:582)에서도 *например*와의 관련성 대신 “조심스러운 가정의 상징”이라는 기능만을 제시하고 있다.

성(произвольность)이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наприме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진술을 밝히거나 예를 들거나, 구체화시켜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Ос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 (2009:219, 341)는 скажем에 대해 “문장내에서 특정한 성분이 구체화될 때”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반면에 например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밝히거나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리적으로 부각하기 위함”이라는 목적과 함께 “문장 내에서 특정한 성분이 구체화될 때”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두 사전의 기술은 유사해 보이나 변별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Моровкин이 주목한 скажем에서 발견되는 “예를 선택할 때 작용하는 자의성”과 Остроумова и Фрамполь이 주목한 например의 사용시 부각되는 “논리성”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순전히 사용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скажем의 “자의적 선택”이 “논리성”을 포괄하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다. 예컨대 “제기되는 예시를 선택할 때 자의성”이 전제되거나, 화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자의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 скажем의 사용은 가능하나, “논리적 부각”이 명시화되지 않는다면 скажем 자리에 например을 대신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밝힌바 있는 скажем의 태도설정형 담화표지적 성격과 부합된다. 왜냐하면 문장 내의 скажем 이전의 발화와, скажем 이후의 발화 사이에 논리적 관계의 성립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유된 동의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논리적 관계의 성립은 해당 발화의 진리치나 해당 발화에 대한 청자의 신뢰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는 например가 보증형 담화표지적 성격이 좀더 강한 반면, 발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 및 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скажем의 경우 например보다 더 높은 사용역을 가지게 되며, 태도설정형 담화표지로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

(9)에서 скажем을 например로의 교체가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과 화자와의 관계와, 뒤에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관계 사이에는 논리적 필연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며, 화자 나름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앞의 따옴표는, 화자는 상당히 조심스럽고도, 주저하듯 그 관계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준다.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앞서의 발언으로부터, скажем 이후에 규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관계”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скажем이 예

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например**로 교체가 어려운 다음의 예를 보라.

(10)

Реальная аудитория, то, что я сказал, от подростков до глубоких старцев. А нацелены мы на активную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ядро которой, кстати, среди читателей «КП» постоян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Так вот, целевая аудитория, которую мы обслуживаем, — это активное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примерно от 30 до 50 ле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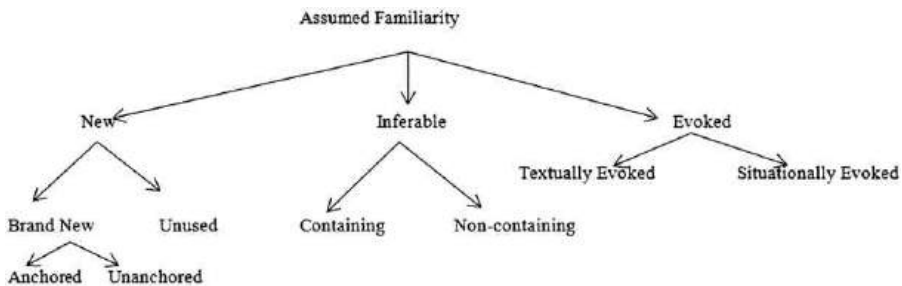
Она интересна рекламодателю, это во-вторых, а во-первых, с ней можно работать, потому что с аудиторией, скажем, до 30 лет серьезно работать бесполезно. До 25 лет молодежь газет не читает, хотя у каждого есть свой пример какого-то умного мальчика или студентки, которые читают.

실제 독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부터 상당한 고령자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상은 활동적인 인구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겟 독자층은 대체로 30세에서 50세 사이의 활동적인 국민들입니다.

이들은 광고주에게도 매력적인 층이며, 이는 부차적인 이유이고, 가장 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이들과는 실제로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말하자면 30세 이하의 사람들과는 말짱 헛수고이기 때문이죠.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신문이라고는 잘 읽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신문을 읽는 똑똑한 소년이나 여학생은 주변에 있겠지만요. (НКРЯ)

위의 예문에서 선행하는 발화는 신문 마케팅 담당자의 영업 노하우에 관한 내용이다. 30세에서 50세의 연령대 사람들이 주 타겟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скажем** 이후에 등장하는 발화에서는 30세 이하의 사람들과는 함께 일을 하기 힘들다는 푸념이 등장한다. **скажем** 이전과 이후의 발화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화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된 유관성이다. **например**가 이 맥락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например** 이후의 발화가 이전 발화의 전형적인 예로 등장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구성 성분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청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부사 **например**와 담화표지 **скажем**을 구분하는 주요변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위계의 문제로 귀결이 가능하다. 단순히 이들 두 어휘 뒤에 등장하는

예에 대한, 선행 맥락과의 명백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주어집성의 정도 이외에도, 해당 예에 대해 (화자가 추정하는) 청자의 접근 가능성의 정도,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화자의 선택의 자유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например과 скажем 사이에 작동하는 복합적 정보 체계는 우리에게 Prince(1981:223-255)¹⁴⁾가 제기하는 이른바 화용적 정보구조 체계의 척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가능하다. 아래 제시된 Prince(1981:237)의 추정된 친숙성의 위계도를 살펴보자.



<그림 1>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정보의 교환은 다양한 위계를 통해 세분화된다는 Prince의 틀을 통해 설명하자면, скажем은 Prince의 정보위계의 모든 세부영역들이 화자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심지어 청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화자에게 설득력 있는 것이라면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정보(brand-new)이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unused)라도 скажем을 활용해 전달이 가능하다. 이는 скажем이 보다 태도설정형 담화표지 지향적이며, 따라서 напри

14) Prince(1981:223-255)에서는 자신의 이전 논문 “On the Given/New Distinction” (1979)에서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 간의 위계를 설정하며, 공유지식(shared knowledge), 현저성(saliency) 등 일부 용어들의 정의에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추정된 친숙성(assumed familiarity)에 기반한 새로운 정보의 위계 체계를 주장한다. 그가 새롭게 제안한 정보위계는 New / Inferable / Evoked라는 3단계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New에 속하는 것은 Brand-new (anchored / unanchored), Inferable에 속하는 것은 Non-containing Inferable, Containing Inferable, Evoked에 속하는 것은 Textually Evoked / Situationally Evoked이다.

ep에 비해 훨씬 작용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например**의 경우 선행발화와 후행발화의 관계가 청자에게 환기되어 있거나(Evoked) 혹은 적어도 추론 가능한(Inferable, Containing Inferable)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왜냐하면 선행발화와 후행발화 사이의 정보적 위계에서 보다 환기되거나(Evoked) 혹은 적어도 추론가능해야, 청자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주장하였듯 **например**가 보다 높은 정도의 보증형 담화표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다.

다만 자의적으로 선택된 예시의 제시는 청자와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화자는 오히려 자신의 자의적 선택이 화자에게 거부되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고도 주저하는 태도로 청자를 대하게 된다. 청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 아닌,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자의적으로 선택된 예시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그러한 선택은 사전의 치밀한 사전준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보다는 발화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청자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는 선택의 유연성에 태도의 완화를 결합시키는 담화전략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하에 자의적 선택이 보여주는 예시 기능은 조심스러운 추정 및 가정과 인지적 연결고리를 찾게 된다.

결국 **скажем**의 예시기능과 추정 및 가정이라는 두 개의 기능은 독자적이고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 대해 취하는 태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결론을 대신하며

본 연구는 러시아어 담화표지 **скажем**에 대한 어휘 사전과, 담화표지 사전의 기술을 살펴보고, 사전들 간의 **скажем**의 기술 방식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사전들 간의 기술을 종합해 본 결과 담화소사 **скажем**의 대표적인 기능은 크게 (1) 예시기능, (2) 가정적 상황 제시의 기능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예시기능을 수행할 경우 **скажем**은 다른 담화소사인 **например**

ме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러 사전들에서 기술되어 있었고, 가정적 상황 제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допустим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예문을 종합해 본 결과, скажем의 예시 기능이 Prince의 정보위계의 층위에서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으며, 즉흥적 대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화자의 개입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скажем의 태도설정형 담화표지의 성격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скаже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예시적 기능과, 또 다른 기능인 조심스럽고도 주저하듯 가정적으로 상황을 제시하는 기능은 상호배타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скажем의 예시기능의 기저에는 화자의 자의적 선택이라는, например와 구분되는 변별적 자질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러한 자의적 선택에 대한 청자의 수용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화자는 태도의 유연화라는 완충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화자의 발언이 가지는 단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청자는 그러한 단언성의 약화를 통해, 화자의 자의적인 선택을 조심스럽게 제시되는 가정적 상황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정일, 「러시아어 수용표지 Ну에 대하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35, 2010.
2. Баранов А. Н., Плунгян В. А., Рахилина Е. В.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дискурсивным слова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Помовский и партнеры, 1993.
3. Баранов А. Н. и Кобозева И. М. “Модальные частицы в ответах на вопрос”, Арутюнова Н. Д. (ред.), *Прагматика и проблемы интенциональности*, М., 1988.
4. Богданова-Белгарян Н. В. “Конструкция (...) скажем (...) в повседневной русской речи (материал к словарю дискурсивных единиц)”, *Вестник Калмыцкого института гуманита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АН* 2, 2012.
5. Бурцева В. В. (сост.) *Словарь наречий и служебных сл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Рус. яз. Медиа, 2005.
6. Виноградов В. В. *Русский язык*, М.: Рус. яз., 1972.
7. Ефремова Т. Ф. *Н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Русский язык Медиа, 2001.
8. Киселева К. и Пайар. Д. (ред.) *Дискурсивные слов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пыт контекстно-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я*, М.: Метатекст, 1998.
9. _____ *Дискурсивные слов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нтекстное варьирование и семант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М.: Азбуковник, 2003.
10. Кузнецов С. А. *Большо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Пб.: Норинт, 1998.
11. Моровкин В. В. (ред.) *Словарь структивных сл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СРЯ)*, М.: 1997.
12. Ожегов С. И. и Шведова Н. Ю.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2011.
13. Остроумова О. А. и Фрамфоль О. Д. *Словарь вводных слов, сочетаний и предложений*, М., 2009.
14. Падучева Е. В. *Семан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емантика времени и вид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емантика нарратива*, М.: Языки рус. культуры,

1996.

15. _____ “Вводные глаголы Речевой и нарративный режим интерпретации”, *Вереница Литер. К 60-летию В. М. Живова*,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их культур, 2006.
16. Подлесская В. И. “«Так сказать» и «как сказать»: грамматика и просодия конструкций с прагматизированным глаголом речи”, *Acta Linguistica Petropolitana* 20(2), 2024.
17. _____ “Скажем так: дискурсивные маркеры, восходящие к глаголам реч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2, 2024.
18. Разлогова Е. Э. “Логико-когнитивные и стилис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семантики модальных слов”, Дис...канд. филолог. наук, М.: 2005.
19. Рахилина Е. В., Бычкова П. А. и Жукова С. Ю. “Речевые акты как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категория: Дискурсивные формулы”,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2, 2021.
20.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АС), Т. I — IV. 4-ое издание, Гл. ред. Евгеньева А. П., М.: Рус. яз., 1999.
21. Хачатурян Е. “Сетант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слова скажем общ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условная адекватность”, Киселева К. и Пайар. Д. (ред.) *Дискурсивные слов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пыт контекстно-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ю*, М.: Азбуковник, 2003.
22. Шведова Н. Ю. (ред.)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I, II*, М.: Наука, 1980.
23. Шимчук Э. и Щур М. *Словарь русских частиц*, Peter Lang, 1999.
24.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URL: <https://ruscorpor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5.01.2025-25.03.2025).
25. Fraser B.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1, 1999.
26. Lee Chun-hee. “The Use of the Discourse Marker say in Conversational English”, *SNU Working Papers i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 2003.
27. Prince Ellen F.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Cole P.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1981.
28. Schiffrin D.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Abstract**A Study on Russian Discourse Marker *Skazhem***

Kim, Jungi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Russian discourse marker *скажем* is described in both general lexical dictionaries and specialized discourse marker dictionaries, and draws attention to the notable differences in the ways these sources approach *скажем*. In lexical dictionaries, the primary entries typically present its lexical meaning as a verb of speech, while its function as a discourse marker—where the lexical or aspectual meaning is weakened—is placed in secondary entries. In contrast, discourse marker dictionaries focus extensively on describing its discourse-related functions.

Interestingly, most dictionaries categorize the principal functions of the discourse particle *скажем* into two major types: (1) exemplification, and (2) the presentation of hypothetical situations. In many cases, even when both functions are mentioned, they are treated as mutually exclusive or entirely separate. When functioning as a marker of exemplification, *скажем* is described as equivalent to the discourse particle *например* (“for example”); when presenting hypothetical situations, it is seen as performing a role similar to *допустим* (“let’s suppose”).

However, analysis of actual usage examples reveals that there are contexts in which *скажем* and *например* are not interchangeable. This suggest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informational hierarchy that exists between speaker and addressee. Applying Prince’s framework of assumed familiarity, it becomes evident that *скажем* is applicable across the entire lower domain of the hierarchy, involving more active and discretionary speaker involvement. In contrast, *например* is more

tightly associated with logical exemplification, and therefore operates within a more limited scope of the assumed familiarity scale.

This clearly highlights the attitudinal nature of *скажем* as a discourse marker. The issue lies in the tension between the speaker's intention to select and present an arbitrary example in spontaneous speech, and the simultaneous desire to maximize the addressee's acceptance of this choice. Within this tension, the speaker tends to weaken the assertiveness of their utterance and adopt a more flexible and cautious attitude. It is precisely at this point that the previously considered mutually exclusive functions - exemplification and the presentation of hypothetical situations - become cognitively interconnected.

Key words : Discourse Marker, Attitude, Speaker's Arbitrary Choice, Exemplification, Hypothetical Situation, Addressee's Acceptance, Informational Hierarchy.

『비이』 - 타락과 징벌의 프로토타입

전 민 규*

국문 초록

니콜라이 고골의 중편소설 「비이(Вий)」는 민속적 전승을 바탕으로 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고골 특유의 창작과 상상력이 결합된 작품이다. 본 논문은 이 작품을 ‘뒤집힌 성자전’으로 해석하며, 주인공 호마 브루트가 겪는 시련과 죽음의 의미를 분석한다. 호마는 신학교 학생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식욕과 성욕에 충실한 인물로 묘사되며, 이러한 육체적 욕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다. 특히 작품은 성경 속 ‘광야의 시련’과 ‘무덤 속의 사흘’을 패러디함으로써 기독교적 구원의 도식을 전복한다.

호마가 죽음에 이른 근본 원인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나태(acedia)’로, 이는 감각적 쾌락에 집착함으로써 영적 길을 포기하게 되는 죄다. 작품은 호마의 개인적 타락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영적 마비를 묘사하며, 악이 만연한 세계에서 인간이 구원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작품 말미에 등장하는 괴물 ‘비이’를 호마 자신의 죄악을 반영하는 거울상으로 해석하며, 호마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발생한 충격의 결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비이」를 고골의 후기 작품에 등장하는 나태와 자리(위계) 문제의 초기 형태로 파악하며, 고골 문학 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타락과 징벌의 주제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주제어 : 고골, 비이, 뒤집힌 성자전, 나태, 타락, 징벌

I. 서론

니콜라이 고골(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Гоголь, 1809~1852)의 「비이(Вий)」는 작품집 『미르고로드(Миргород)』 안에서 다소 유별난 특성을 지니는 작품이다.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다른 세 작품(「옛 기질의 지주들(Старосветские помещики)」, 「타라스 불바(Тарас Бульба)」, 「이반 이바노비치와 이반 니키포로비치가 싸운 이야기(Повесть о том, как поссорился Иван Иванович с Иваном Никифоровичем)」)과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이」는 유독 요괴와 같은 상상의 존재가 등장하고, 노인이 젊은이로 변신하는가 하면, 사악한 괴물에게 청년이 목숨을 빼앗긴다. 요컨대 「비이」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마귀가 등장하는 기담괴설에 가깝다.

이 때문인지 「비이」는 당대에 그다지 평가가 좋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첸콥스키는 「비이」를 두고 공포스러운 괴담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문학적 특징이 없다고 말하며, 민간 전설 테마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평했다. 세비료프는 전반부에 신학교의 일상을 묘사하는 부분은 훌륭하지만, 후반부의 환상적 요소는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¹⁾ 벨린스키는 우크라이나의 풍속과 신학교를 묘사한 부분이 훌륭하며, “놀라운 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환상적 양식이라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만큼은 다른 평론가들과 뜻을 같이 했다.²⁾ 이러한 평가는 20세기에도 명맥이 이어졌는데, 나보코프는 (유사) 전기문 『니콜라이 고골(Nikolai Gogol)』의 연표에서 「비이」를 두고 “소름은 돋지만 딱히 효과적이지는 않은 이야기(a gooseflesh story, not particularly effective)”³⁾로 평하고 있다.

고골이 직접 「비이」의 첫머리에 달아 놓은 주석을 보면 이 작품을 민담 기록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게 보인다. 고골은 주석에서 “이 중편은 전부 민간 전승이다(Вся эта повесть есть народное предание)”⁴⁾라고 말하고 있

1) 김문항, 「『비이』 연구: 현실과 환상세계의 유동(流動)」, 『세계문학비교연구』 52 (2015), 338-339쪽.

2) 그러나 벨린스키는 유령 묘사가 조금 취약할 뿐이지 호마가 경전을 외는 부분, 여인이 일어서는 부분, 비이가 출현하는 부분은 훌륭하다며 고골을 두둔하기도 한다. 벨린스키(심정보, 이병훈, 이향재 옮김), 『전형성, 파토스, 현실성 - 벨린스키 문학비평선』 (한길사, 2003), 114-115쪽.

3) Nabokov V. *Nikolai Gogol* (Penguin Classic, 2011), p. 120.

다. 심지어 고골은 이야기에서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не хотел ни в чем изменить)” “들은 바 그대로(как слышал)” 전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즉, 고골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손수 달아 놓은 주석을 통해 「비이」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해지는 요괴 설화이며, 고골 자신은 소설가가 아니라 민담 채집자로서 설화를 하나 소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도입부의 주석은 고골의 진술을 의심하게 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고골은 같은 주석에서 ‘비이(Вий)’를 그놈(гном, 땅의 정령)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우크라이나어 낱말로 소개한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어에는 그놈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 설화 중 그놈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발견된 바 없다.⁵⁾ 따라서 「비이」는 우크라이나 설화에서 영감을 받았을지언정 기본적으로는 고골의 창작물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비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호마 브루트가 겪은 참극은 모두 고골이 창조한 것이며, ‘전부 민간 전승’이라는 설명은 고골이 「비이」라는 작품의 가장 바깥 테두리에 세워 놓은 설정인 셈이다.

그렇다면 고골은 「비이」라는 기담괴설형 작품에서 무엇을 의도했는가? 이에 관한 대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국내 연구계로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현실과 환상을 유동에 초점을 두거나(김문황, 2015), 「비이」의 시공간 구조, 성자전 및 민속적 모티프에 집중한 연구(홍대화, 2015)가 있으며, 죄의 문제를 다룬 연구(조혜경, 2009; 이경완, 2014)도 있다. 이들 연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욕망’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 연구자는 주인공 호마 브루트가 욕망을 주체하기 어려워하는 인물이며, 작

4) Гоголь Н. В.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восьми томах*, II, (Правда, 1984), С. 147. 이 후로 고골 작품 인용 시에는 본문 내 인용 부분 바로 뒤에 권수 및 쪽수만 적기로 한다.

5) Fanger D. *The Creation of Nikolai Gogol* (Belknap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 100. ‘비이’의 실제 어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널리 알려진 설은 이 이름이 속눈썹 혹은 눈꺼풀을 의미하는 우크라이나어 ‘비야(вия)’, ‘비카(вийка)’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다. Peace R. *The Enigma of Gogol*, p. 65(김문황, 앞의 논문, 2015, 357쪽에서 재인용), Дмитриева Е. “Вий – Кто он?”, *Наука и жизнь* 8 (2002) URL.: <https://www.nkj.ru/archive/articles/461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07.2021). 그러나 스틸만은 우크라이나어에서 눈꺼풀을 의미하는 낱말은 ‘포비카(повік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눈꺼풀에서 비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Maguire R. *Exploring Gogol*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 361 참조.

품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파멸을 맞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호마 브루트의 욕망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식욕이다. 그런데 고골의 작품을 관통하는 죄이기도 하다. 고골의 세계에서 죄인은 식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옛 기질의 지주들」의 부부는 사망과 죄의 상징인 파리가 들끓는 집에 앉아 끊임없이 음식을 해치우는 인물들이다. 「초상화」의 차르트코프는 목돈을 손에 넣자 과자 가게에 들어가 사탕을 사 먹고 프랑스식 레스토랑을 체험한 후 샴페인 한 병을 통째로 비운다. 『죽은 혼』 1부의 소바케비치는 의외의 거래 수완을 뽐내며 악마적 인물 치치코프마저 가장 고전하게 하는데, 그의 식탁은 『죽은 혼』 1부에 등장한 어느 지주보다도 풍성하다.

호마 브루트의 욕망이 고골 세계를 관통하는 욕망이라면, 호마 브루트가 거쳐 간 운명 역시 고골 세계와 교집합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호마 브루트가 마녀를 만나게 된 일, 마녀에게 ‘간택’받아 위령 기도를 올리게 된 일, 마침내 비이와 눈을 마주쳐 죽게 된 일에서 고골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비이」를 뒤집힌 성자전으로 보고 호마 브루트의 이야기가 성자전 및 성경의 모티프인 ‘광야’와 ‘무덤 속의 사흘’을 어떤 방식으로 비틀고 있는지를 짚어본다. 「비이」 이야기의 근본적 죄라고 할 수 있는 ‘나태’가 호마의 차원에서, 세계의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고골의 이후 작품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호마가 맞이한 운명이 고골 작품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짚어볼 것이다.

II. 뒤집힌 성자전

II.1. 광야의 시련 : 악으로 향하는 관문

홍대화에 따르면, 식욕을 절제하는 일은 성자가 지닌 신성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성자전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꼽히고는 한다. 이 작품에서 성 안토니우스는 악마의 갖은 유혹을 금욕

적 생활로 이겨내는데, 이때 중요한 생활 규칙 중 하나가 바로 금식이다.⁶⁾ 한편, 술과 담배는 17세기 러시아 민속 문학에서 악마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담배는 곧 악마의 기호품이며, 술은 악마가 인간을 파멸로 빠뜨릴 때 즐겨 이용하는 무기이다.⁷⁾

그런데 호마 브루트의 신학교 생활은 오히려 갖가지 음식은 물론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하다. 「비이」 초반부에 따르면, 호마와 같은 3학년 '철학자'들의 눈에 띄는 것은 전부 먹어 치우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철학자'들은 호주머니에 오직 담배만 넣어 놓고 다니며, 술과 담배를 어찌나 즐기는지 멀리서도 이들이 풍기는 담배와 보드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지경이다. 호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에 관한 정보 네 가지(성격이 쾌활하다, 드러누워 담배 피우기를 좋아한다, 술을 마실 때면 트레파크를 춘다, 체벌을 자주 받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중 두 개가 술과 담배에 관한 것이다(II, C. 151).

사실 식욕 자체는 신학교 학생들이 공유하는 특성이어서, 이들은 유별나게 식욕이 왕성하다(необыкновенно прожорлив)(II, C. 149). 신학교 학생들의 생활은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 속 경건한 수도사의 삶보다는 17세기 러시아 풍자문학인 「칼라진 탄원서(Калязинская челобитная)」에서 묘사하는 수도원 모습과 더 닮았다. 이 작품에서 탄원서를 작성한 수도사는 수도원장의 방만한 운영을 탓하는데, 수도원장이 아니었다면 금육 기간에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각종 생선과 빵, 버터, 꿀 등으로 풍성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논거로 꼽고 있다. 한편, 칼라진 수도사들은 밤에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숙취가 심한 나머지 아침에 아예 일어나지 못하거나 자기 옷을 찾지 못해 예배에 늦기도 한다.⁸⁾ 가장 경건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식욕을 해소하려는 공간으로 변모한 칼라진 수도원의 모습은 「비이」의 브라츠키 수도원과 매우 흡사하다. 「칼라진 탄원서」가 기본적으로 풍자문학이라는 점에서 칼라진 수도원은 결코 긍정적인 공간이 아닐 것이며, 따라

6) 홍대화, 「고골의 「비이」에 나타난 폐쇄적 원형구도와 육체에 대한 심판」, 『노어노문학』 27(3) (2015), 154쪽.

7) Wigzell F. "The Russian Folk Devil and His Literary Reflections," *Russian Literature and Its Demons* (Oxford: Berghahn Books, 2000), pp. 67-70. 홍대화, 앞의 논문, 2015, 161쪽에서 재인용.

8) 작자 미상(조주관 옮김), 『17세기 러시아 풍자문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26-35쪽.

서 브라츠키 수도원의 모습도 긍정적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공간에서 생활하던 호마 브루트는 4학년 할라바와 2학년 티베리와 함께 방학을 맞아 수도원을 떠난다. 호마는 일행과 함께 인적 없는 길을 저녁 내내 걷게 되는데, 이는 광야를 횡단하는 고행을 연상케 한다. 광야는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공간으로 시험과 구원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구약에서는 유대 민족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을 찾아 횡단하는 공간이다. 시험과 구원이라는 이미지는 신약에서 더욱 강화되는데,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광야에서 악마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낸 바 있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 전통에서 광야는 시련과 연결되는 동시에 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비이」에서 광야의 이미지는 거꾸로 뒤집혀 있다. 구약의 유대 민족은 40년을 헤매며 이교 신앙의 관성을 떨쳐내야 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악마의 유혹을 거부해야 했다. 그러나 「비이」의 광야에서 호마와 할라바는 담배를 입에서 놓지 않는다. 광야의 끝에서 세 사람이 다다른 곳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사악한 마녀의 공간이다. 마녀의 집에서 특히 욕구를 발산하는 인물은 바로 호마이다. 비록 할라바는 물고기 한 마리를 슬쩍하기는 하지만, 홍대화의 지적대로 이는 신학교에서부터 다져진 습관에 가깝다. 반면 호마는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할라바가 훔친 물고기를 다시 훔친다. 마녀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음식을 요구하는 사람 역시 호마이다.

호마는 밤새 마녀와 한바탕 사건을 겪고 마침내는 마녀를 나무토막으로 내리쳐 살해한다. 호마의 마녀 살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마녀를 살해한 후 호마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는 다소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호마의 행동은 사악한 존재를 직접 처단한 것이므로 호마가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호마가 마녀와 겪은 비행을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라면, 호마의 마녀 살해는 가학적 성애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⁹⁾ 이 시각에서는

9) 해당 장면을 성관계 암시로 보는 시각에서는 마녀가 호마에게 얻어맞을 때 보이는 반응이 고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주목한다. 호마가 마녀를 폭행할수록 마녀는 점점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사망하기 직전 마녀가 외친 “아,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다(Ох, не могу больше!)”(II, с. 157) 역시 성관계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김문황, 앞의 논문, 2015, 348-349쪽.

호마는 광야에서 사악한 존재에게 홀려 관계까지 맺은 것이므로 씻기 어려운 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그러나 호마의 마녀 살해가 어떤 의미이건 간에, 호마가 직후에 보이는 행동거지가 호마의 현 상태에 관해 훨씬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자신의 식욕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호마는 키예프로 돌아와서 다시금 허기를 느낀다. 그는 지붕 틈새까지 뒤져 가며 음식을 찾고, 어느 젊은 과부에게 추파를 던져 과부의 오두막에서 배불리 식사를 즐긴다. 이 대목 역시 호마와 과부의 성관계를 암시한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마녀와 호마의 비행 역시 성관계에 대한 은유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호마는 마녀와 관계하는 바람에 위기를 겪었는데도 바로 다음날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셈이다(II, c. 158). 음식으로 배를 채운 후 호마는 “평소 습관처럼(по обыкновению своему)”(II, c. 158).의 자에 드러누워 담배를 피운다.

즉, 호마는 신학교 학생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철저히 육체적 욕망을 따르는 인물이며, 광야에서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마가 광야에서 겪은 시련은 기독교 전통과는 반대로 오히려 악의 세계로 한 발짝 내딛는 결과를 낳는다.

II.2. 예배당의 위령 기도 : 사흘 후의 사망

호마가 기이한 사건을 겪은 후, 어느 카자크 백부장이 호마를 찾으려 죽은 자기 딸의 유언이라며 사흘 밤 동안 위령 기도를 올려 달라고 부탁한다. 호마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수도원장의 강권으로 결국 카자크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한다. 백부장의 집에 도착한 호마는 백부장의 딸이 바로 자신이 만난 마녀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크게 놀란다.

호마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예배당으로 향한다. 그런데 호마가 사흘 밤을 지내야 할 예배당은 경건하거나 신성한 느낌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음침하고 불길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는 [...] 아낌없이 촛불을 켜올리기 시작했고, 곧 예배당 전체는 빛으로 넘실거렸다. 그러나 머리 위의 어둠은 짙어졌고, 침울한 성상화는 여기저기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고풍스럽게 조각된 액자 때문에 훨씬 더 침울하게 보였다.(II, C. 174)

교회 공간에 빛을 밝힐수록 오히려 더욱 어두워지고 불결해진다는 점에서 호마가 들어간 예배당은 「칼라진 탄원서」 속 수도원의 모습과 흡사하다.

수도원장은 [...] 향과 양초를 마구 태워 버렸습니다. [...] 수도원장은 석탄 위로 향을 뿌리고, 교회에 그 냄새가 퍼지도록 했습니다. 성상들은 먼지투성이고, 향로는 검댕으로 뒤덮였습니다. 우리는 눈이 맵고 목이 아팠습니다.¹⁰⁾

「칼라진 탄원서」 속 수도원장이 태웠다는 향과 양초는 예배에서 반드시 태워야 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수도원장이 향과 양초를 밝히면 밝힐수록 교회는 점점 검게 물들어 간다. 호마가 들어간 예배당 역시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액자의 금박이 빛을 발할수록 점점 칙올한 분위기가 스며들어 온다.

그런데 어두운 예배당 안에서 마치 스포트라이트라도 받는 듯 유난히 환하게 묘사되는 대상이 하나 있다. 바로 백부장의 딸, 즉 마녀이다. 마녀는 분명 죽은 사람인데도 끔찍할 정도로 ‘눈부신’ 이미지로 묘사된다. 호마는 성육에 충실한 인물답게 죽은 마녀의 외모에 자꾸만 이끌려 마녀의 얼굴을 자꾸만 훑쳐보려고 한다. 호마의 관음적 시선은 두 번째 밤에도 계속되었으며, 호마는 세 번째 밤에도 결국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가 결국 비이에게 포착되어 목숨을 잃고 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배당이라는 공간이다. 예배당은 기본적으로는 성소이지만, 「비이」에 등장하는 예배당은 오히려 무덤에 가깝다. 조명을 아무리 밝혀도 칙올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 마녀의 시체가 관 속에 넣어 있기 때문이다. 무덤과도 같은 공간에서 사흘 밤을 지내는 호마와 마녀의 모습은 예수의 무덤을 기괴하게 뒤틀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십자가형이 끝난 뒤 예수는 무덤에 묻히고는 사흘 뒤 부활한다. 호마는 사흘 밤을 무덤에(사실상) 감금되었다가 사망한다. 한편,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에게 성흔을 보여주고, 신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마침내 하늘에 오른다. 호마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결국 비이를 눈으로 확인하고자 말고, 그는 영혼의 모습으로 육체를 떠난다.

예수가 사흘 뒤 부활한 이야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뒤틀어 놓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특성으로 비칠 수도 있다. 사실 고골의 종교관, 특히 「비이」

10) 작자 미상(조주관 옮김), 앞의 책, 2011, 29쪽.

에서 드러나는 종교관 역시 그다지 “기독교적으로 건강한 관점이 아니”¹¹⁾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일단 호마의 사망 이후 교회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폐쇄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염세주의적인 종말론이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¹²⁾ 『비이』의 세계에서는 신이 약속한 구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악이 창궐하는 상태가 그저 지속될 뿐이다. 『비이』에서 드러나는 신의 뜻이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점¹³⁾ 역시 지적된다. 구약의 신은 징벌하는 존재였다면 신약의 신은 사랑과 구원을 중시하는 존재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죄인을 처벌하기보다는 큰 죄를 지은 인간마저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신의 힘을 중시한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양파 한 뿌리’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다. 가장 인색한 인간조차도 ‘단 한 번의 적선’만 있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에 비해 『비이』의 징벌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사실이다. 식욕이 왕성하고 성욕에 이끌린 것은 분명 죄이겠으나, 호마 브루트가 이토록 잔인하게 죽어야 할 근거는 있는가? 또 호마의 육체적 욕구는 신학교의 여러 학생이 공유하는 특성인데 하필 호마 브루트가 이러한 운명을 맞아야 하는지도 작품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팽어 역시 비이의 등장 자체는 워낙 강렬해서 모종의 필연성을 느끼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설명과 초자연적 설명이 각각 자의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둘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기에 호마가 죽어서까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한다.¹⁴⁾

11) 홍대화, 앞의 논문, 2015, 171쪽.

12) 이경완, 「고골의 「비이」에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성서적 고찰」,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6 (2014), 65쪽.

13) 홍대화, 앞의 논문, 2015, 171-172쪽.

14) Fanger D, op. cit., p. 101-102. 다만, 고골은 저자 주를 통해 「비이」를 민담을 채록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결점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민담과 같은 설화는 근대 이후의 문학 작품에 비해 우연을 기반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비이」는 그 자체로 일종의 설화로 기획된 만큼 어느 정도는 우연성에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고골이 실제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이」를 설화라고 선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설정으로 「비이」가 지닌 서사적 결점은 장르적 특성으로 해석될 여지를 생성한다.

III. 「비이」 속 죄와 징벌

III.1. 호마의 죽음과 나태

호마가 굳이 비극적 죽음을 맞아야 하는 필연성은 다소 미흡할지언정, 호마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징벌을 받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호마는 마녀와 한바탕 사건을 겪은 후에도 키예프로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식욕과 성욕이라는 육체적 욕구에 젖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사흘 간의 위령 기도 중에도 반복된다. 호마는 관음적 시선을 버리지 못하고는 밤새 마귀에게 시달렸다가도 낮이 되면 본래의 생활 습관으로 회귀하고 만다.

첫째 밤을 보낸 후 호마는 우선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진다.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한 후 그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보드카 한 잔을 들이켜는 일이다. 그리고는 커다란 새끼 돼지 요리를 먹어 치우고는 다시 느긋하게 드러누워 담배를 피운다. 그는 지난밤에 있던 일을 어느 새 꿈속에서 벌어질 법한 일로 여기면서 “해괴한 일”이라며 기억 저편으로 밀어 놓으려고 한다. 그리고는 어느 젊은 여인의 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재질을 묻다가 얻어맞기도 한다(II, C. 176). 두 번째 밤을 지낸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호마는 머리가 새하얗게 썬 정도로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음에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보드카부터 찾는다. 수령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하자 호마는 도주를 감행하지만 어이없게도 목마름을 참지 못해 시냇가에서 실컷 물을 먹다가 붙잡힌다. 호마는 그 와중에도 물맛을 평가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II, C. 181).

호마의 육체적 욕구는 예배당 안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예배당은 아무리 빛을 밝혀도 음울한 분위기를 쫓을 수 없는 공간이며, 그곳에는 사악한 마녀가 관 위에 누워 있다. 악과 매우 가까이 있는 이 공간에서 호마는 끊임없이 담배를 떠올린다.

담배를 좀 피워야겠다. 아아, 좋은 담배! 멋진 담배! 좋은 담배!(II, C. 175)

그는 주머니에서 담뱃대를 꺼내서는 코로 담배를 가져가다가 그 전에 조심스럽게 관 쪽을 쳐다보았다.(II, C. 177)

호마가 담배를 떠올리거나 꺼내드려는 순간 마녀는 어김없이 깨어나 호마를 찾아다닌다. 악의 공간에서 담배를 즐기려는 행동은 곧 마녀를 깨우는 행위나 다름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세기 민속 문학에서부터 담배는 곧 악마의 기호품으로 여겨져 왔다. 호마는 악마의 공간에서 악마의 기호품을 꺼내고 있다. 실제 교회에서 신을 찬미하며 향과 초를 피운다면, 호마는 악마가 잠든 무덤에서 악마를 흔들어 깨우는 ‘악의 향’을 피워 올린 셈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 호마는 여러 사건을 겪고도 육체적 욕구를 버릴 기색이 없다. 호마의 습성은 결국 죽음을 부르고야 만다. 세 번째 밤에 비이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자 호마의 내면에서는 비이를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 들려온다. 그러나 호마는 관음적 시선을 던지던 버릇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비이의 모습을 보고 만다. 결국 호마의 죽음은 육체적 욕구에 충실하던 습관을 그대로 좇다가 벌어진 일인 것이다. 호마는 마녀를 두 번이나 만나고서도 여전히 술과 담배를 즐기며 식욕과 성욕을 해결하기에 급급했고, 관음적 시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호마는 마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백부장에게 끌려와 마녀와 사흘씩이나 같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했으며, 도망치는 데에도 실패하고 끝내는 목숨을 잃고 만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호마의 행동 양식이 기독교의 칠중죄 중 하나인 나태(acedia)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퍼트니의 말에 따르면, 나태는 단순히 근면하지 않거나 노동을 멀리하는 모습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4세기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에 따르면, 나태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두려운 죄이다. 그가 말하는 나태란 ‘영적 게으름(spiritual sloth)’으로, 기본적으로는 삶이 지닌 단조로움과 주변 환경에 지치고 나약해지거나, 여러 유혹을 견디다 끝내 지쳐서 빠지게 되는 죄이다. 그런데 나태의 죄는 감각적 쾌락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일견 자가당착적으로 보이는 정의는 7세기 수도사 요한 클리마쿠스의 글로써 보충된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나태란 가장 무거운 죄이며, 영혼이 마비된 상태이자 마음이 나약해진 상태이다. 퍼트니는 고골이 초기 기독교 수사들이 나태의 위험성을 지적한 글을 면밀히 읽었으며, 1840년대 고골의 편지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퍼트니의 정리에 따르면, 고골이 말하는 나태란 사람이 덧없고 일시적인 지상의 쾌락에 천착하게 하여 신을

통해 다다를 구원의 길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죄이다.¹⁵⁾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호마가 징벌을 받는 근본적 원인은 식욕이나 성욕 보다는 나태에 가깝다. 홍대화의 지적대로, 호마에게 (성욕과도 연결되는) 식욕이 강력한 원동력인 것은 맞으나¹⁶⁾ 호마에게는 작품 내내 본인의 육체적 욕구를 극복하고 개심할 계기는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호마는 끝내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신학교 학생임에도 '영적으로 게으른' 인물이었고, 감각적 쾌락에 끊임없이 탐닉했다. 호마는 이미 영혼이 마비되어 신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탐구하는 일에는 이미 소홀한 상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끝내 알맞은 “목소리”(II, C. 166)를 얻을 수 없었고 타락한 신학생으로 전락하여 악의 공간에서 마귀들에게 휩싸여 죽어야 했던 것이다.

III.2. 세상의 나태

앞서 언급했듯, 「비이」에서 호마 브루트의 죽음은 필연성이 다소 떨어진 다. 호마 브루트의 행동은 브라츠키 수도원에서 매우 흔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도원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도원장마저도 식욕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인다. 호마 브루트를 불러달라는 백부장의 요청을 수도원장이 승낙한 것은 백부장이 곡물과 달걀을 듬뿍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백부장에게 생선과 철갑상어 알도 보내 달라고 부탁한다(II, C. 159).

주목할 점은, 고골은 호마의 운명이 지니는 필연성을 다소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에 악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부장의 땅에 있는 창고에는 카자크 한 명이 술잔을 치켜 든 채 “몽땅 마셔주마(Все выпью)”라고 외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근처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포도주는 카자크의 즐거움이라네(Вино – козачья потех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II, C. 163). 실제로 「비이」의 카자크들은 용맹함이나 호방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술에 취해 방탕하게 노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강건하던 동료 카자크가 마녀에게 시달려 쇠약해졌는데도 그의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할 뿐이다.¹⁷⁾

15) Putney C. R. “Nikolai Gogol’s “Old-World Landowners”: A Parable of Acedia”,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47 (1) (2003). pp. 2-4.

16) 홍대화, 앞의 논문, 2015, 157-158쪽.

이런 맥락에서 작품 말미에 묘사되는 예배당의 광경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에 관한 상징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녀가 불러낸 마귀들은 호마를 유린하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미쳐 수탉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만다. 신의 공간이어야 할 예배당이 마녀에 의해 사악한 무덤으로 변모한 뒤 마귀들의 전시장으로 다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악한 공간을 지역 주민들은 그저 폐쇄하는 정도로 만족한다. 종교적 의식을 통해 공간을 정화해 보려는 노력은 차치하고 예배당을 불태워 악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행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그저 그 공간을 금지하고 방치하는 편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예배당은 여전히 사악한 공간으로서 백부장의 영지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 작품 말미까지 마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는다. 어쩌면 예배당은 이제 마녀의 전용 공간이 되어 밤마다 마귀들이 다시 눈을 뜨는 소굴로 변모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악의 존재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악은 언제나 사람들의 맹점 너머에서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영적 인식의 마비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나태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나태의 편재성이 고골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는 점이다. 고골의 창작은 영혼이 마비되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인간을 탐구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홀레스타코프의 허장성세에 속아 우왕좌왕하는 「검찰관」 속 관료들과 치치코프의 말에 동조하며 죽은 농노를 팔아넘기는 『죽은 혼』의 지주들 역시 영혼이 마비된 존재들로서 작품 속에 등장한다.

물론 「비이」에서 묘사되는 나태와 이후 고골 작품에서 나타나는 나태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페테르부르크 텍스트 이후의 고골이 그리는 나태는 훨씬 사회학적이다. 이는 고골이 나태의 근본 원인을 탐구한 결과일 것이다. 석영중에 따르면, 고골은 부정신학을 집대성한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의 위계론에 영향을 받았다. 디오니시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위

17) 같은 맥락에서 이경완은 셋째 날에 호마가 술에 취해 혼자 춤을 추는 장면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호마의 춤은 실제로 흥취에 젖어 추는 춤이 아니라 공허한 자기 만족을 위한 기계적 행동에 불과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영지 주민들 역시 각자의 식욕에만 충실할 뿐 기본적으로 타인에게는 무관심하기에 호마의 춤에 응하지 않는다. 이경완, 앞의 논문, 2014, 57-58쪽.

계란 하늘이 내려준 거룩한 질서인데 인간이 신의 은총을 받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등급 체계이다. 인간은 정해진 위계 안에서 자신에게 걸맞은 방식으로 신을 모방함으로써 신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신의 뜻을 잘 따른다고 해서 정해진 위계를 벗어나 한 단계 위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평신도가 전부 성직자가 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신의 뜻을 따른다 한들 천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디오니시우스의 위계론은 고골의 문학 세계를 만나 ‘자리(место)’라는 문제의식을 낳는데, 이 ‘자리’ 문제는 ‘관등(чин)’, ‘신분(звание)’, ‘지위(должность)’ 등의 용어와도 연관이 있다.¹⁸⁾

예를 들어, 페테르부르크 연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관등 문제는 언뜻 사회 고발적 측면으로만 조명하기 쉬우나, 근본적으로는 위계론에 기반한 ‘자리’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페테르부르크 연작에서 자신의 사회적 ‘자리’인 관등을 무시하는 자는 징벌을 받게 된다. 명목참사관으로서 스페인 왕을 참칭한 포프리신은 광기에 빠져 정신병원에 갇히며, 무관 관등인 소령이라는 남의 ‘자리’를 탐낸 코발료프는 자기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수모를 겪는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비록 남의 자리를 탐하지는 않았으나, 상관의 지시로 자기에게 맞지 않는 다른 직무(직업적 자리)를 맡게 되자 고장 난 기계인형처럼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친구들과의 서신 교환선』에서도 드러난다. 고골은 B. H. B.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농지 경영에 관해 이런저런 충고를 적고 있는데, 고골의 조언은 결국 ‘농지에서 각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를 잘 수행하는 것’이 농지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고골이 “기본적으로는 농민에게 글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경전을 읽기 위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VII, C. 294)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기본적으로 농민은 글을 읽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존재이지만, 농민 역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기에 농민으로서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 즉 ‘신의 백성의 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면 대원칙으로서 허용된다고 고골은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비이」에서 드러나는 나태는 보다 직관적이고 육체적이다. 호마 브루트가 짓는 나태의 죄는 육체적인 쾌락을 당장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18) 고골(석영중 옮김), 『친구와의 서신 교환선』 (나남출판사, 2007), 132-135쪽.

다. 「비이」에서는 후기 고골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사회학적 고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호마 브루트의 나태는 비록 브라츠키 수도원과 백부장의 영지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속성이기는 하지만, 이는 각 개인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성정 문제에 가깝다. 후기 고골 텍스트를 관통하는 ‘자리’ 문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인간 관계 및 사회 체계에 관한 고민이 「비이」에서는 아직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고골은 「비이」 시절에 이미 나태에 관한 문제 의식을 어느 정도 지녔으며, 아직은 그러한 죄가 만연한 근본 원인에 대한 자기만의 이론을 정립하지는 못한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이」에서 구원의 실마리는 『친구들과의 서신 교환선』에서 보이는 구체적 행동 지침은 나타나지 않는다.

III.3. 비이, 거울로서의 징벌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비이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언뜻 마녀의 하수 인처럼 보일 수 있는 비이의 정체를 두고 연구자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은 바 있다. 드리센와 예르마코프는 비이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발견한다. 란코르는 ‘Вий’라는 철자가 ‘Василий’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골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문황은 이 작품에서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마녀의 아버지인 백부장이 바로 비이일 가능성을 제기한다.¹⁹⁾ 그런데 매콤파이어는 이에 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비이가 다른 마귀들과는 달리 ‘사람(человек)’으로 부르고 있다. 다른 마귀들은 꼬리와 날개를 달고 있는 반면, 비이는 인간의 모습을 과장한 형상을 하고 있다. 심지어 비이 정도의 모습은 고골의 세계에서는 평범한 인간을 묘사할 때 쓰는 과장법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비이의 외모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눈꺼풀은 호마가 무덤에서 마녀의 시체를 두고 관음적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특징이다.²⁰⁾ 매콤파이어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자면, 호마 브루트는 결국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죽은 셈이 된다. 자신의 성욕에 이끌려 시체에게까지 관음적 시선을 거두지 못하던 호마 브루트는 마침내 본인의 시선에 포착당

19) 김문황, 앞의 논문, 2015, 357쪽.

20) Maguire R. op. cit., p. 187.

하여 숨을 거둔 것이다.

그런데 호마는 숨을 거두면서 마치 딱딱한 조각상이 넘어지는 듯이 쓰러진다. 온몸이 뻣뻣이 굳은 채로 그대로 목숨을 잃는 것이다. 호마의 영혼이 떠나면서 육체가 바들바들 떨리는 모습은 경직이 너무나 심해서 생기는 반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가깝다. 그런데 경직, 혹은 석화(окаменение)는 고골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만은 고골 작품에서 석화는 대단히 강렬한 충격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인물은 이해하지 못할 요소를 마주하거나 일상적인 삶의 궤적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충격을 경험한다. 석화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대목은 바로 「검찰관」의 마지막 장면이다. 만에 따르면, 고골은 이 장면을 해설하면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경악하게 하는 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²¹⁾

매과이어와 만의 주장은 호마 브루트의 죽음을 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호마 브루트가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죽은 것은 대단히 강렬한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때 호마가 마주한 충격이란 단순히 비이가 무시무시하게 생겨서가 아니며, 마귀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서도 아니다. 비이의 시선을 통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저지른 죄악을 정면으로 마주한 호마는 일상적 삶의 궤도, 즉 나태의 궤적을 더 이상 좇을 수 없게 된다. 호마의 죄악은 호마를 강타했으며, 호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뻣뻣하게 굳어 사망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정식은 이후 고골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또 다른 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검찰관」의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이 석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진짜 검찰관이 시에 찾아와 두려움과 경악에 휩싸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검찰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홀레스타코프의 허세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 본인들을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며, 나아가 자신들 스스로의 비속함을 마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코」에서 코발료프가 5등관이 된 코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역시 단순히 자기 신체 기관이 자기보다 높은 관료가 되어 돌아다니는 모습이 기이해서가 아니다. 5등관이 된

21) Fusso S. and Meyer P. *Essays on Gogol: Logos and the Russian Word*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2), p. 81.

코를 통해 ‘소령을 참칭하고 다니는 문관’으로서 더 높은 관등을 탐내던 자기 속내를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이다.

물론 석화에 관해서도 「비이」는 후기 작품과 다소 결을 달리 하는 것이 사실이다. 후기 작품에서 석화는 인물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계기를 마련할 뿐, 그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는다. 「외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석화가 어느 정도 회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발상이 드러난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토로와 일갈을 들은 젊은 관료와 유력인사가 그에 해당하는 예이다. 그러나 「비이」의 석화는 호마가 회심할 여지를 주지 않은 채 호마를 곧바로 죽음으로 단죄한다.²²⁾

IV. 결론

「비이」의 결말부에서 할라바는 마녀는 “키예프에서 시장에 앉아 있는 할머니는 죄다 마녀”(II, C. 185)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할라바의 발언은 ‘나태의 편재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듯하다. 호마는 사악한 마녀를 만나 죽음이라는 징벌을 맞았는데, 키예프에 있는 노년 여성 중 누구라도 호마가 만난 대상과 같은 존재일 수 있는 것이다.²³⁾ 그러나 할라바와 티베리(특히 티베리는 이제 호마처럼 3학년이 되었다)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 키예프 시장의 노년 여성들에게서 음식을 흥정할 것이다. 두 사람은 먹을거리를 사서 배를 채울 생각에만 신경 쓸 뿐, 자신에게 음식을 판 노파가 어떤 존재일지에 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백

22) 이 지점에서 호마 내면의 목소리가 문젯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 비이가 호마 본인의 거울상이고, 비이를 쳐다봄으로써 호마가 본인의 죄악을 깨달은 것이라면, 비이를 쳐다보라고 하지 말라던 목소리는 오히려 호마의 타락을 지속시키려는 악마의 속삭임은 아닌가? 호마 브루트를 둘러싸고 두 악의 진영(죄를 보게 하여 호마를 죽이려는 진영과 죄를 감추어 호마를 나태하게 살게 하려는 진영)이 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두 진영은 한 패이며, 호마는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내몰린 것일까?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는 호마가 삶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가능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이를 보는 일은 호마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호마가 회심하여 구원으로 향한 일말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

23) 물론 이 대목은 고골의 세계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인 ‘여성에 대한 공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장 영지의 사람들이 예배당이 불결해졌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는데도 건물을 그저 폐쇄하고 눈길을 돌려버린 것처럼 말이다.

「비이」는 성자전과 성경의 모티프를 뒤집어서 호마 브루트의 죄를 드러내는 한편, 그 죄가 호마 개인의 사례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호마의 나태는 식욕과 성욕이라는 또 다른 죄를 일으키는 근원적 죄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이를 바라보고 죽음이라는 징벌을 받는다. 할라바와 티베리, 수도원장 등 브라츠키 수도원 사람들과 백부장 영지의 사람들은 비록 호마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폐쇄된 예배당에 마귀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듯이, 사람들이 호마와 같은 나태의 죄를 저지르고 사는 한 호마가 맞이한 운명은 다른 이들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비이」는 우크라이나의 기담괴설이라는 설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시대의 『디칸카 근교 야화(Вечера на хуторе близ Диканьки)』의 「무서운 복수(Страшная месть)」, 「성 요한제 전야(Вечер накануне Ивана Купала)」, 「오월의 밤, 물에 빠져 죽은 여인(Майская ночь, или Утопленница)」 등의 작품과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 이들 작품에도 고골의 이후 작품에서 나타날 타락과 징벌의 프로토타입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일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글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기에 현시점에서는 미래의 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고골(석영중 옮김), 『친구와의 서신 교환선』, 나남출판사, 2007.
2. 고골(조준래 옮김), 『오월의 밤』, 생각의나무, 2007.
3. 나보코프(김문황 옮김), 『니콜라이 고골』, 충북대학교출판부, 2021.
4. 벨린스키(심성보, 이병훈, 이항재 옮김), 『전형성, 파토스, 현실성-벨린스키 문학비평선』, 한길사, 2003.
5. 작자 미상(조주관 옮김), 『17세기 러시아 풍자문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6. 김문황, 『『비이』 연구: 현실과 환상세계의 유동(流動)』, 『세계문학비교연구』 52, 2015.
7. 석영중, 「고골의 신학과 수사학 - 『친구와의 서신 교환선』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3, 2003.
8. 이경완, 「고골의 「비이」에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성서적 고찰」,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6, 2014.
9. 조혜경, 「고골의 「비이Вий」에 나타난 욕망과 죄의 문제 연구」, 『노어노문학』 21(1), 2009.
10. 홍대화, 「고골의 「비이」에 나타난 폐쇄적 원형구도와 육체에 대한 심판」, 『노어노문학』 27(3), 2015.
11. Гоголь Н. В.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восьми томах*, Правда, 1984.
12. Дмитриева Е. “Вий – Кто он?”, *Наука и жизнь* 8, 2002. URL: <https://www.nkj.ru/archive/articles/461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07.2021).
13. Fanger D. *The Creation of Nikolai Gogol*, Belknap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14. Fusso S. and Meyer P. *Essays on Gogol: Logos and the Russian Word*,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2.
15. Maguire R. *Exploring Gogol*,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16. Nabokov V. *Nikolai Gogol*, Penguin Classic, 2011.
17. Putney C. R. “Nikolai Gogol’s “Old-World Landowners”: A Parable of Acedia”,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47(1), 2003.

Abstract**“Viy” – A Prototype of Fall and Punishment**

Jeon, Minkyu

(Russian State University for the Humanities)

Nikolai Gogol’s novella “Viy” appears to be based on Ukrainian folklore, yet it is, in essence, a product of Gogol’s imaginative storytelling. This paper interprets “Viy” as an “inverted hagiography,” analyzing the trials and ultimate death of the protagonist, Khoma Brut. Despite his position as a seminary student, Khoma is portrayed as a character driven by gluttony and lust – carnal desires that ultimately lead to his downfall. The story subverts biblical motifs such as the “trial in the wilderness” and the “three days in the tomb,” turning them into a grotesque parody of Christian redemption.

The root of Khoma’s demise is not merely desire, but acedia or spiritual sloth which manifests as an obsession with physical pleasures and a neglect of spiritual growth. Beyond Khoma’s individual fall, the narrative exposes a world afflicted with spiritual apathy and moral decay. The monster Viy, who ultimately causes Khoma’s death, is interpreted as a mirror image of Khoma himself, symbolizing his confrontation with his own sins. His death represents the psychological shock of facing his inner corruption.

This study argues that “Viy” reflects an early form of the themes of degeneration and punishment that appear more fully developed in Gogol’s later works. It provides insight into Gogol’s moral universe, where sin is not only personal but deeply embedded in society, and spiritual blindness invites inevitable judgment.

Key words : Gogol, Viy, Inverted Hagiography, Acedia, Fall, Punishment

사회주의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비판:

『죽음의 집의 기록』을 중심으로*

정 재 환**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고찰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 생활 동안 인간 본성을 통찰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를 철폐하고 민족주의적이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수용했다.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유형 생활을 기록한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작가의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의 공간적 배경인 감옥은 사회주의의 특성이 내재해 있는 곳이다. 도스토옙스키는 후기 소설에서 사회주의의 특성을 집단주의, 개성 무시, 사유제 부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설에서 감옥은 그러한 특성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기록의 주인공인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고란치코프는 죄수들과 간수들의 행위를 근거로 이상적인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없고, 만일 실현될지라도 사회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죄수들은 옷이나 헤어스타일로 외적인 개성을 표출하며 허세와 자만으로 내적인 개성 또한 표출한다. 죄수들에게는 사적 노동, 개인 물품의 소지가 허용되지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주조된 자유’이다. 감옥에서 간수는 ‘신’의 위치에 있으며 죄수들은 민중 출신의 죄수와 귀족 출신의 죄수로 나뉘어 지낸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고란치코프가 감옥에서 발견하는 부조리함은 곧 사회주의의 단점을 나타낸다.

주제어 : 도스토옙스키, 『죽음의 집의 기록』, 감옥, 사회주의, 개성, 자유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정재환, 「도스토옙스키 후기 사상의 출발점으로서 『죽음의 집의 기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 졸업, junkant@snu.ac.kr

I. 서론

표도르 도스토옙스키(Ф. М. Достоевский)는 페트라썬스키(М. В. Петрашевский) 서클의 일원으로서 반국가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인해 시베리아로 유형(流刑)을 가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의 감옥을 “학교”¹⁾에 비유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상했다. 시베리아 유형은 그에게 있어서 지적·영적 전환을 이룬 사건인 것이고, 『죽음의 집의 기록(Записки из мертвого дома)』(1862)은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작품이다.²⁾

프랭크(J. Frank)가 말한 도스토옙스키의 “지적·영적 전환”, 혹은 바체슬라프 이바노프(Вяч. Ив. Иванов)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탄생”³⁾은 곧 진보적 사회주의자였던 청년 도스토옙스키가 슬라브주의자 도스토옙스키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유형 생활을 기록한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작가의 그러한 전환과 재탄생의 계기와 그 순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을 『죽음의 집의 기록』이 아니라 『지하 생활자의 수기(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1864)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소설이 체르니썬스키(Н. Г. Чернышевский)의 『무엇을 할 것인가?(Что делать?)』(1863)의 사상적 대항마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체르니썬스키는 자신의 작품에서 ‘공리적 이기주의’를 제시한다.⁴⁾ 도스토옙스키는 『지하 생활자의 수기』에서 주인공인 지하 생활자를 통해 ‘ $2 \times 2 = 4$ ’이지만 ‘ $2 \times 2 = 5$ ’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욕망과 개성을 보여준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체르니썬스키의 이론과 사회주의 제도가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앞서 지적했듯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서 시베리아 유형이 갖는 의미가 명확하고 『죽음의 집의 기록』이 그 체험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1) Достоевский Ф.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0 томах, Т. 21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1972), С. 12. 이후로 Наука에서 출간된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인용할 경우, 본문이나 각주의 괄호 속에 권수와 쪽수만을 병기한다.

2) Frank J. and Miller R. *Lectures on Dostoevsk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p. 45.

3) Иванов Вяч.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4 томах*, Т. 4 (Брюссель, 1987), С. 421-423.

4) ‘공리적 이기주의’란 ‘공리’라는 집단의 이익과 ‘이기(利己)’라는 개인의 이익을 합치시키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⁵⁾, 『죽음의 집의 기록』은 『지하 생활자의 수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유형 이전의 사상을 긍정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셰스토프(Л. И. Шестов)는 『죽음의 집의 기록』이 도스토옙스키의 이전 작품들과 동일하게 ‘프랑스 이상주의’를 긍정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주장한다.⁶⁾ 여기서 셰스토프가 언급하고 있는 ‘프랑스 이상주의’는 벨린스키(В. Г. Белинский)가 수용한 ‘공상적 사회주의’, 나아가 ‘무신론적 사회주의’를 가리키고 있다. 즉, 셰스토프의 주장은 『죽음의 집의 기록』을 집필한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자라는 것이다. 바질렙스카야(А. К. Базилевская)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는 ‘환경론’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셰스토프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다.⁷⁾ 로젠실드(G. Rosenshield) 또한 『죽음의 집의 기록』이 절대 권력의 남용을 폭로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러시아 전제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⁸⁾ 올라(K. Oeler)에 따르면 『죽음의 집의 기록』의 주인공 고란치코프는 작품 속에서 농노제, 빈곤, 형벌의 폭력성을 폭로하며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⁹⁾ 세르만(И. Серман) 역시 도스토옙스키가 범죄자들 대부분을 부당한 사회 체계의 희생자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 사회주의에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⁰⁾

이들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당대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죽음의 집의 기록』의 공간적 배경인 감옥은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소설에서 작가가 설명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을 모두 갖춘 ‘사회주의적인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조리함은 곧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5) 『죽음의 집의 기록』의 주인공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고란치코프와 실제 작가 도스토옙스키를 동일시하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죽음의 집의 기록』은 도스토옙스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작품에서 작가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6) Шестов Л. *Достоевский и Ницше (Философия Трагедии)* (СПб., 1903), С. 214.

7) Базилевская А. “Учиться, что есть человек и жизнь”, *Дергачевские чтения*, Т. 1, (Екатеринбург, 2011), С. 225.

8) Rosenshield G. “Dostoevsky’s Notes from the House of the Dead: The Problem of Pain,”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58 (1) (2014), p. 35.

9) Oeler K. “The Dead Wives in the Dead House: Narrative Inconsistency and Genre Confusion in Dostoevskii’s Autobiographical Prison Novel,” *Slavic Review* 61 (3) (2002), pp. 521-522.

10) Серман И. “Тема Народности в Записках из Мертвого Дома,” *Dostoevsky Studies* 3 (1982), p. 139.

고 할 수 있다. 게리크는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이 급변한 이유가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¹¹⁾,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목도한 모순과 부조리함이 그의 사상을 변화시킨 이유인 것이다.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는 연구가 있지만, 연구의 양과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¹²⁾

본 논문은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사회주의의 부조리함과 모순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조명하여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형 생활 중에 사회주의의 한계를 깨달았음과 『지하 생활자의 수기』 이전 작품부터 사회주의를 비판했음을 명료히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죽음의 집의 기록』에 관한 연구는 이것이 회고록인가 소설인가를 논하는 장르의 문제, 작품의 주인공인 고란치코프가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의 분신인지를 논하는 화자의 문제 등 작품의 특정한 요소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논의는 분명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고란치코프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위치하면서 유형지의 군상을 관찰하고 있다. 즉, 우리는 고란치코프뿐만 아니라 죄수와 간수들의 행위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들의 행위를 사회주의의 특성과 결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1840년대 사회주의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를 부정하게 된 원인을 규명할 것이다.

II. 본론

II.1. 인간학적 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

필자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죽음의 집의 기록』이 ‘신학적’인 작품인가 ‘인간학’¹³⁾적인 작품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투르게네프(И. С. Тургенев)

11) Геррик Х. *Литературное мастерство Достоевского в развитии*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Пушкинского Дома, 2016) С. 25.

12)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Ivanits L. *Dostoevsky and the Russian Peop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33-34; Frank J. and Miller R. op. cit., p. 47.

13) 여기서 인간학이란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인간에 관한 탐구를 의미한다.

와 게르첸(А. И. Герцен)은 『죽음의 집의 기록』에 묘사되는 목욕탕과 죄수들의 목욕 장면을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과 비교했다.¹⁴⁾ 톨스토이(Л. Н. Толстой)는 『죽음의 집의 기록』을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얻은 종교 예술”이라고 평가했고,¹⁵⁾ 블라디미르체프(В. П. Владимирцев)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것은 유형수의 연대기가 아니라 기독교적 원칙에 따른 고백적이고 서사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¹⁶⁾ 석영중은 감옥과 지옥을 동일시하며 고란치코프의 출옥과 죽음을 그리스도의 구세사와 연관지으며¹⁷⁾ 『죽음의 집의 기록』을 “신학적 소설이며 위대한 소설들을 위한 서문”이라고 평가한다.¹⁸⁾ 정리하자면 고란치코프는 감옥이라는 지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였고, 고란치코프가 형기를 채우고 출옥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새롭게 부활했다는 것이다.

감옥 이미지와 고란치코프의 출옥은 위의 연구들처럼 작품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가는 감옥을 지옥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신학적인 공간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목욕탕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우리가 지옥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¹⁹⁾ (4:98)

목욕탕에 입장하는 것을 지옥에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고란치코프가 평소에 지내던 감옥은 지옥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또한 고란치코프는 감옥과 감옥 밖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신을 연구하는 ‘신학’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인간학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14) Frank J. Dostoevsky: *The Stir of Liberation 1860-186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 225.

15) Ibid.

16) Владимирцев В.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и Русская Этнолог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диссертация] (Новгоро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998), С. 247.

17) 석영중, 『도스토옙스키 깊이 읽기: 종교와 과학의 관점에서』 (열린책들, 2021), 47-78쪽.

18) 석영중, 「도스토옙스키와 이콘: 『죽음의 집의 기록』에 나타난 바라봄의 문제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8 (2022), 56쪽.

19) «Когда мы растворили дверь в самую баню, я думал, что мы вошли в ад.» 원문의 번역은 국내에 출간된 이덕형의 번역본을 참고했으며 필요에 따라 필자가 수정하였다. 도스토옙스키(이덕형 옮김), 『죽음의 집의 기록』 (열린책들, 2021).

‘혹시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담장 틈새로 신의 세계를 바라본 적이 있다.²⁰⁾ (4:9)

고란치코프는 감옥 밖을 “신의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감옥 안이 ‘신의 세계가 아닌 세계’라는 말과 다름없다. ‘신의 세계가 아닌 세계’는 1840년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세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²¹⁾ 즉, 이 작품을 ‘종교적인 부활’로 해석하기보다는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계기는 ‘인간에 대한 고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을 신학적인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른 근거는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책인 성경을 탐독함으로써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작품 본문에 따르면 다소 한계가 있는 주장이다. 안나 슈어(A. Schur)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러시아 사상가들과 관료들은 서구의 형벌 이론에 주목했다. 물리적 처벌을 완화하고 그 대신 수감 제도를 강화하여 처벌 제도의 독단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복음주의를 가미하여 죄수들의 교화를 추구한 것이다. 그들은 독방에 있는 죄수들에게 성경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죄수가 스스로 잘못을 자각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적, 인종, 계급을 불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죄수들은 경건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한 척할 뿐이었다.²³⁾ 이는 도스토옙스키에게

20) «Случалось, посмотришь сквозь щели забора на свет божий: не увидишь ли хоть что-нибудь?»

21) 1840년대는 종교와 과학, 신과 인간이 대립하고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떠날 당시에는 포이어바흐(L. A. Feuerbach)와 슈티르너(Max Stirner)와 같은 인물로 대표되는 헤겔 좌파의 사상이 러시아에 유입되고 있었다. 이 사상은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사회주의의 성격을 띠었고 러시아에서는 벨린스키가 이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Frank J. Dostoevsky: *A Writer in His Tim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 119-130.

22) Геринг Х. Указ. соч., С. 29.

23) Schur A. *Wages of Evil: Dostoevsky and Punishment*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2), pp. 83-97. 찰스 디킨스(C. Dickens) 또한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 이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비판한다. Dickens C. *David Copperfield* (Richmond, England: Alma Classics, 2019), pp. 825-836.

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성경 외의 책, 저널, 신문을 구해서 읽을 수 있었고 의사의 배려로 글도 쓸 수 있었다. 성경만을 읽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으로 인해 도스토옙스키가 교화되었다는 주장 또한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성경의 유명무실함을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감옥과 강제 노동 제도는 범죄자를 교정하지 못한다. [...] 그러나 단호히 확신컨대, 그 유명한 독방 제도도 단지 거짓되고 기만적이며 표면적인 목적만을 달성할 뿐이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생명의 즙을 짜내고 영혼을 소진케 하여 나약하게 만들고 겁을 준 다음, 결국 반쯤 미치광이가 되어 도덕적으로 쇠약해진 미라가 된 모습을 교정과 참회의 본보기로 보여준다.²⁴⁾ (4:15)

『죽음의 집의 기록』은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죄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 등을 진정한 참회나 회개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비약이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인간의 운명 속에서 그(도스토옙스키-필자 주)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아마도 그는 신학자보다 인간학자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²⁵⁾이라는 베르자예프(Н. А. Бердяев)의 말과 키르포틴(В. Я. Кирпотин)의 주장처럼 “『죽음의 집의 기록』은 인간 본성에 대한 실험”이며 작가에게 있어서 죄수들의 심리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자료인 것이다.²⁶⁾

II.2. 사회주의의 공간으로서 감옥에 대한 비판

24) «Конечно, остроги и система насильных работ не исправляют преступника; [...] Но я твердо уверен, что знаменитая келейная система достигает только ложной, обманчивой, наружной цели. Она высасывает жизненный сок из человека, энервирует его душу, ослабляет ее, пугает ее и потом нравственно иссохшую мумию, полусумасшедшего представляет как образец исправления и раскаяния». 독방에 수감된 죄수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읽기였다는 안나 슈어의 연구를 감안했을 때, 인용문에서 언급된 ‘독방 제도’에 성경의 유명무실함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5) Бердяев Н. *Мирозерцание Достоевского* (Прага: The YMCA Press, 1923), С. 21.

26) Кирпотин В.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 2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78), С. 303, 322.

설명했다시피 고란치코프는 감옥을 ‘인간의 세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곳은 사회주의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소이다. 박종소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는 긍정적 주인공을 통해 사회주의의 특징을 무신론, 사유재산제도의 부정, 개성의 무시, 집단주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⁷⁾ 연구자가 언급하고 있는 네 가지 항목은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감옥에서 간수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다.

소령이 취한 채로 뛰어 들어왔다. “누가 여기에 있나! 어떻게 여기에 있나! 나는 황제고 나는 신이다!”²⁸⁾ (4:90)

소령은 감옥 안에서 자신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그렇기에 자신이 곧 황제이자 신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세계인 감옥에서 우리가 알던 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신(人神)이 대체한다. 즉, 감옥은 사회주의 특성 중 하나인 무신론의 공간이다.

감옥에서는 사유재산 또한 금지되어 있다. 죄수들은 오로지 강제노동만을 할 수 있으며, 사적인 노동과 개인이 물품을 소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간수들은 암암리에 죄수들의 개인 노동과 물품 소지를 허가해 주지만 기습적으로 죄수들의 숙소를 검사하여 물품을 압수해 간다. 감옥은 원래부터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 곳이긴 하지만, 금지된 물품인 “돈은 주조된 자유”²⁹⁾라는 점에서 사유재산의 금지는 곧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개성의 무시와 집단주의는 감옥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것이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해 주지 않고 모두 똑같은 죄수 중 하나로 취급한다. 또한 감옥은 집단주의도 팽배한 공간이다. 고란치코프가 고통스러워했던 것들 중 하나는 “강제적인 공동생활”³⁰⁾이었을뿐더러, 수감자들은 의사, 간수, 민중 출신의 죄수, 귀족 출신의 죄수 집단으로 나누어져 형을 살고 있다.

27) 박종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와 혁명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후기 장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4 (2017), 32쪽.

28) «Вбежал майор; пьяный. «Кто здесь! Как здесь! Я царь, я и бог!»»

29) «Деньги есть чеканенная свобода» (4:17)

30) «вынужденное общее сожительство» (4:22)

이렇듯 『죽음의 집의 기록』 속 감옥은 도스토옙스키 후기 소설에 나타나 는 사회주의가 실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부조리함과 모순은 곧 사회주의가 갖는 한계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것을 폭로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고란치코프는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인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고란치코프의 출옥, 즉 고란치코프가 사회주의의 공간을 빠져나가면서 “그렇다, 신과 함께! 자유, 새로운 삶,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³¹⁾라고 외치는 것은 자신의 사상에서 사회주의를 철폐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를 철폐했지만, 사회주의 중에서도 ‘무신론적’ 사회주의를 철폐했다. 유형 이후의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사회주의(русский социализм)’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회 체제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럽의 사회주의는 신과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인류를 지배하려는 사상으로 간주했다. 즉, 유럽의 사회주의는 종교적 본질을 상실한 무신론적 사회주의인 것이다.³²⁾ 사회주의의 주요 특성인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와 대립되는 특성인데, 집단주의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개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공동체주의적인 특성이 나타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개인이 억압되는 전체주의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식 사회주의를 전체주의적인 사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죽음의 집의 기록』에는 세스토프가 말한 ‘프랑스 이상주의’의 성격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설령 그 성격이 잔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집의 기록』은 ‘프랑스 이상주의’에 작별을 고하고 후기 사상인 ‘러시아 사회주의’의 출발점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II.2.1. 개성과 인간의 본성

감옥은 인간을 교화하기 위한 장소인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육체를 지배하여 정신을 개조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정신은 물질에 기반한다는 유물론의 입장과

31) «Да, с богом! Свобода, новая жизнь, воскресенье из мертвых... Экая славная минута!» (4:232)

32) Горелов А.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русская идея и русский социализм”, *Знание. Понимание. Умение* (2017), С. 58.

유사하고, 신의 세계를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로 재편하려고 했던 당대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의 사상과도 흡사하다. 고란치코프도 이와 유사한 사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다. 고란치코프는 사회주의와 유사한 감옥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는 “감옥에 온 평민은 알맞은 사회에, 어쩌면 훨씬 더 발달한 사회에 온 것”³³⁾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고란치코프는 “법률에 따라 평민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귀족은 종종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게 된다.”³⁴⁾라고 말하면서 감옥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고란치코프는 “평민은 더 좋은 사회에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감옥은 평민에게도 좋은 사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감옥은 교화가 목적인 곳이다. 그렇다면 간수들과 같은 감옥의 관리자들에게 죄수는 한 명의 인간이기 이전에 교화되기 위한 존재, 교화되어야 하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란 주체성이 우선시되는 것이자 자아와 자유가 강조되는 존재다. 감옥에서 죄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존중과 권리보다 교화 대상이라는 목적이 앞선 존재로 변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의 동일한 목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죄수들은 쉽게 교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조그마한 참회의 징후나, 자신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일말의 생각조차”³⁵⁾ 갖지 않는다.

만약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이 같아진다면, 인간 모두는 서로 다를 것이 없다. 감옥에서 죄수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죄수들은 모두 죄수라는 신분 아래 같은 대우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죄수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여 다른 죄수들과 다른 ‘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곧 사회주의의 특성 중 하나인 ‘개성의 무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우선 죄수들은 외모에서 개성을 표출한다. 그들은 자신이 입을 옷의 원

33) «Простоллюдин, идущий в каторгу, приходит в свое общество, даже, может быть, еще в более развитое.» (4:55)

34) «Человек образованный, подвергающийся по законам одинаковому наказанию с простоллюдином, теряет часто несравненно больше его.» (4:55)

35) «ни малейшего признака раскаяния, ни малейшей тягостной думы о своем преступлении» (4:15)

단을 달리해서 제작하거나 옷의 좌측과 우측의 색깔을 달리 배합하여 제작한다. 헤어스타일을 달리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죄수들은 복장에 따라 부류가 구별되고 있었다. [...] 머리 역시 제각기 다양하게 깎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로로 머리의 절반이 깎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로로 깎여 있었다.³⁶⁾ (4:12)

죄수들은 내면의 개성도 유지하려고 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대개 허세와 체면이 제일 중요시되고 있었다.” 허세와 체면은 곧 여러 죄수 사이에서 나만의 개성을 드러냄과 다름없다. 개성과 관련하여 죄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아무것에도 놀라지 않는 능력이 최상의 미덕”이라는 점이다. 만약 어떤 죄수가 다른 죄수의 허세와 자만을 보고 놀란다면, 놀라게 된 죄수는 허세와 자만을 부린 죄수의 특별함, 다시 말해 개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허세와 자만을 보고 놀라는 죄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개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 평범한 죄수 중 하나로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은 남의 허세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에만 집중하여 개성을 보존하고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개성의 표출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개성의 무시는 불가능하다.

앞서 죄수들의 개성을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죄수들의 자유와 관련된 장면을 살펴보겠다. 고란치코프는 유형 생활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중 하나로 강제 노동을 뽑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이 노동의 어려움과 고됨은 고생과 끝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 밑에서 행해야 하는 의무와 강제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³⁷⁾ (4:20)

강제 노동의 문제점은 노동 강도가 아니라 죄수들이 노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에 있다. 고란치코프는 “사회에서도 농부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특히 여름이면 심지어 밤에도 일

36) «Различались все разряды по платью. [...] Голова тоже брилась по-разному: у одних половина головы была выбрита вдоль черепа, у других поперек.» (4:12)

37) «[...] довольно долго спустя я догадался, что тяжесть и каторжность этой работы не столько в трудности и непрерывности ее, сколько в том, что она — принужденная, обязательная, из-под палки.»

을 한다. 농부는 본인을 위해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무익하고 강제적인 노동에 시달리는 죄수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다”³⁸⁾라고 말한다. 즉, 모든 행동은 자유의지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소멸되며, 그 결과 권태와 허무가 찾아온다. 그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모든 지성과 기대를 바칠 수 있는 특별한 자기만의 일이 없다면, 인간은 감옥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 이곳에서는 태만함으로 인해 이전에는 개념조차 없었던 범죄적인 특성이 마음속에 서 자라날지도 모른다.³⁹⁾ (4:16)

고란치코프는 자유롭지 못한 죄수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개성과 자유가 무시되는 사회는 인간의 악함과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개성과 자유가 존중될 때 죄수들은 교화되고 도덕적으로 부활한다. “죄수들은 자기들을 신뢰해 줄 때 대단히 유쾌해진다. 이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⁴⁰⁾ 죄수들을 신뢰한다는 것은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바꾸어 말하면 죄수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의 개성으로서 죄수들을 대해 주고, 죄수들의 자유와 선택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대우는 오래전 신의 형상을 상실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⁴¹⁾ 고란치코프는 개성과 자유의 무시는 사회를 악화시키고, 개성과 자유의 존중은 사회를 건강하게

38) «Мужик на воле работает, пожалуй, и несравненно больше, иногда даже и по ночам, особенно летом; но он работает на себя, работает с разумною целью, и ему несравненно легче, чем каторжному на вынужденной и совершенно для него бесполезной работе.» (4:20)

39) «Без своего особого, собственного занятия, которому бы он предан был всем умом, всем расчетом своим, человек в остроге не мог бы жить. [...] От одной праздности здесь развились бы в нем такие преступные свойства, о которых он прежде не имел и понятия.»

40) «самим арестантам гораздо приятнее, когда к ним имеют доверие. Этим их можно даже привлечь к себе.» (4:49)

41) «да человеческое обращение может очеловечить даже такого, на котором давно уже потускнел образ божий.» (4:91)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II.2.2. 사유제의 부정과 자유의지

감옥에서 죄수들의 사적인 노동과 사유재산은 금지되어 있다. 상술했다시피 인간에게 ‘자신만의 것’이 없다면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상승한다. 간수들 또한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죄수들의 사적인 노동과 사유재산을 허용해 주고 있다. 이러한 죄수들의 행위에서부터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은 지속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사적인 노동은 간수가 막사의 문을 잠그고 나서부터 시작되는데 고란치코프에 따르면 이때의 막사는 특이한 모습으로 변한다.

막사가 잠기면 우리의 막사는 갑자기 어떤 특이한 모습을 띠었다. 진짜 집, 가정과 같은 모습 말이다. [...] 모든 사람들은 즉시 자기 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서 거의 모두가 어떤 일에 착수했다.⁴²⁾ (4:48)

죄수들이 각자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막사는 “진짜 집, 가정과 같은 모습”을 띤다. 죄수들에게 자유와 개성이 주어져 있을 때만 ‘죽어있는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집’이 되는 것이다.⁴³⁾ 즉, 작품에서 가리키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유와 개성이 무시된 ‘정신적 죽음’을 의미하고, 그러한 곳을 ‘죽음의 집’으로 표현한 것은 사회주의의 세계를 ‘죽음의 세계’라고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죄수들이 사적인 노동에 열의를 보이는 것은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들 중 대부분에게 그 무언가란 “주조된 자유”인 돈이다. 감옥에서 돈이란 자유를 상징하며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다.

42) «Когда заперли нашу казарму, она вдруг приняла какой-то особенный вид — вид настоящего жилища, домашнего очага. [...] все тотчас же спокойно разместились, каждый на своем месте, и почти каждый принялся за какое-нибудь рукоделье.»

43) 실제로 작품의 제목을 직역하자면 ‘죽어있는 집’이나 ‘죽은 집’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어감과 일역본의 제목인 ‘死の家’의 영향으로 ‘죽음의 집’으로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어나 작품의 의미상으로는 ‘죽어있는 집’과 ‘죽은 집’이 더 적절할 것이다.

‘죄수’라는 단어는 [자유-필자 주]의지가 없는 인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돈을 쓰면서 죄수는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한다. [...] 즉 동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신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잠시라도 자신(自信)하고 싶은 것이다. [...] 본인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음을, 즉 돈이 없는 자들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⁴⁴⁾ (4:66)

테오필로프(М. П. Теофилов)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돈이 갖는 역할을 “인간의 사회적 죽음을 결정짓게 하는 요소”, “자유의 등가물”이라고 설명한다.⁴⁵⁾ 즉,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임을 고란치코프와 도스토옙스키는 죄수들을 통해 깨닫고 있다.

고란치코프는 일시적인 자유의 문제점 또한 발견한다. 죄수들의 사유재산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돈을 꼭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돈도 모두 금지되어 있었다. 가끔 밤중에 갑작스레 수색을 벌여 금지된 모든 것을 압수하기도 하는데, 돈은 아무리 숨기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검사관에게 발각되기도 한다. 그들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서 곧바로 술을 마셔 버리는 이유의 일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⁴⁶⁾ (4:17)

죄수들에게 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든 상관없이 일단 돈을 사용하려고 한다. 결국 그들은 가장 접하기 쉬운 술이나 노름과 같은 쾌락에 돈을 소비하고, 돈을 모두 소비하면 원래 돈이

44) «Весь смысл слова «арестант» означает человека без воли; а, тратя деньги, он поступает уже по своей воле. [...] то есть представиться пред товарищами и уверить даже себя хоть на время, что у него воли и власти несравненно больше, [...] доказать ему, что он всё это может, что всё это в «наших руках», то есть уверить себя в том, о чем бедняку и помыслить невозможно.»

45) Теофилов М. “Записки из Мёртвого Дома Ф. М. Достоевского. Поэтика и Проблематика”, [диссертация] (Шуме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2022), С. 172.

46) «Несмотря на то, и работа и деньги запрещались. Нередко по ночам делались внезапные обыски, отбиралось всё запрещенное, и — как ни прятались деньги, а все-таки иногда попадались сыщикам. Вот отчасти почему они и не береглись, а вскорости пропивались; вот почему заводилось в остроге и вино.»

없었을 때보다 더 큰 허무에 휩싸인다. 이 허무가 찾아온 원인은 돈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 즉 자유가 불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이는 무신론과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I.2.3. 무신론과 인간의 비합리성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인물 중에서 무신론을 대표하는 인물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1880)의 이반 카라마조프일 것이다. 이반은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다. 이반에 따르면 인간의 선행은 영혼의 불멸에서 나온다. 영혼의 불멸이 없다면 선행은 존재하지 않고 살인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가능하다.⁴⁷⁾ 이 논리는 위에서 언급한 죄수들이 돈을 쾌락에 소비하는 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돈과 자유의 불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돈과 자유를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지 못한 채 술이나 노름과 같은 극단적인 쾌락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반은 교회, 즉 신의 권위가 인간의 극단적 행동을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가 없고 인간인 간수가 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감옥에서는 인간의 극단적 행동을 막을 수 없다. 죄수가 죄를 지으면 감옥의 신인 간수들이 벌을 내리고, 그 벌을 받은 죄수는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죄수들은 극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죽음의 집의 기록』에는 이반의 생각이 실현됐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존재한다. 유형수가 된 A가 죄의식 없이 악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보이는 장면과 페트로프가 태형과 같은 처벌을 받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죄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투옥이었을 것이다. 작품 내내 죄수들이 표출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를 증명한다. 달리 말하면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은 이미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가장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귀족 출신의 죄수 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형수라고 한다니, 진짜 유형수가 되겠다. 만일 유형수라면,

47) Kibalnik S. ““If there’s no immortality of the soul, ... everything is lawful”: On the Philosophical Basis of Ivan Karamazov’s Idea,” *Dostoevsky beyond Dostoevsky*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6), pp. 166-167.

비열한 짓을 해도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는
가.”⁴⁸⁾ (4:63)

A에게 있어서 자신이 유형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과 같다. 이반의 표현을 빌리자면 A는 유형수가 됨으로써 영혼의 불멸이 없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A는 이반의 예상처럼 극단적 선택을 해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보인다. 우리는 이반의 사상을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A 개인의 특수성이 아니라 죄수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죄수들은 감옥 내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대개 태형을 받게 된다. 태형을 받은 죄수는 “이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신은 거의 정화되었고 빛을 갠다고 여긴다.”⁴⁹⁾ 그들은 이미 유형이라는 가장 큰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태형은 더 이상 벌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태형을 받은 순간 그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은 무분별한 범죄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인물로 페트로프라는 죄수가 있다.

그는 가끔 술을 들여오다 적발되어 태형을 받곤 했다. [...] 그러나 그가 태형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자기도 동의하고 있다는 말로, 즉 자기도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로 들렸다. [...] 그는 내 야단을 듣고만 있었다. 아마도 자기의 그런 행동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마음의 위로라도 되게끔 속마음을 터놓고 비난하라고 내버려 두자는 심산인 것 같았다.⁵⁰⁾ (4:86)

페트로프는 자신이 취할 행동이 범죄 행위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

48) ««Каторжник, так уж каторжник и есть; коли каторжник, стало быть, уж можно подличать, и не стыдно»»

49) «уже потерпел от него наказание, а чрез это почти считает себя очищенным, сквитавшимся.» (4:15)

50) «Его иногда и секли, когда он попадался с вином. [...] Но он и под розги ложился как будто с соб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сия, то есть как будто сознавал, что за дело; [...] Брань же мою он сносил, вероятно рассудив, что ведь нельзя же без этого, чтоб не изругать его за такой поступок, так уж пусть, дескать, душу отведет, потешится, поругает;» (4:15)

럼에도 그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계획을 진행한다. 그에게 있어서 반성과 후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옥에서 영혼의 불멸은 없어지며 벌을 받은 죄인은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그 결과 감옥에는 무수한 스메르쟈코프가 잠재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반 카라마조프가 말했던 것처럼 감옥 밖에서는 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가 인간의 극단적인 악행을 방지한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통제하는 간수들이 신으로 통용된다. 즉, 간수들이 죄수들의 극단적 악행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신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인간’이다. 감옥을 벗어나면 간수들은 보통의 인간으로 돌아간다. 간수들이 신의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려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속적인 목적에 있다. 이것이 이반이 대책으로 제시한 교회의 역할을 간수가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교활한 상병은 때때로 이 장소에까지 손을 뻗쳐서는 술을 찾아낸다. 그때 한 가지 최후의 수단이 남게 된다. 밀수업자는 조용히, 호송병 몰래 자기의 수중에 숨겨져 있던 은화를 슬쩍 상병의 손에 쥐어 준다.⁵¹⁾ (4:37)

죄수들이 간수에게 뇌물을 바치면 간수들은 죄를 눈감아주기도 한다. 뇌물과 같은 불법적인 일은 태형이라는 물리적 폭력 앞에서 더욱 빈번해진다.

형벌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사전에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 중 남아 있는 것이라도 형리에게 뇌물을 바친다. [...] 그것[세계 때리는 것-필자 주]은 전적으로 형리의 권력에 있기 때문이다.⁵²⁾ (4:157)

감옥의 논리에 따르자면,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가하는 태형은 물리적인 처벌을 통해 죄수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수단

51) «Но иногда пролаз ефрейгор добирается и до этих мест и нащупывает вино. Тогда остается одно последнее средство: контрабандист молча и скрытно от конвойного сует в руки ефрейгора затаенную в руке монетку.»

52) «Гражданский подсудимый, которому выходит по суду наказани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хоть чем-нибудь, хоть из последнего, да подарит палача. [...] это вполне в его власти.»

이다. 육체를 지배하여 정신을 개조하려는 태형의 성격은 달리 말하면 정신은 물질에 기반한다는 유물론의 입장과 유사하고, 신의 세계를 과학과 이성의 세계로 재편하려고 했던 당대의 급진적 무신론적 사회주의자들의 사상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란치코프는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에게 타인에 대한 태형 권한이 주어진다
는 것은 사회악 중 하나이자, 사회에 내재하는 모든 씨앗과 모든
시민의식을 위한 시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사회 붕
괴를 초래하는 필연적이고 억누를 수 없는 완전한 기반이 된다.⁵³⁾
(4:154-155)

바탈로바(Т. П. Баталова)는 고란치코프가 고통과 분노를 느낀 처벌 체계를 합법화한 주체는 당대 러시아 정부이기 때문에 고란치코프의 비판을 당대 러시아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⁵⁴⁾ 로젠실드도 작품 속 태형에 관한 언급을 태형을 승인한 사회에 대한 비난으로 보고 있다.⁵⁵⁾ 이것은 타당한 주장인 한편, 우리는 태형 제도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형 제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있다. 설령 태형이 효과적인 교화 수단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더라도, 태형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다면 태형을 받은 사람은 교화될 수 없다. 태형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말은 곧 인간에게 다른 인간을 교화할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형리에게 뇌물을 바치는 죄인이나 죄인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형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본성인 비합리성과 악한 욕망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를 교화할 수 없다. 즉, 태형 제도의 부당함은 그 제도 자체와 그것을 승인한 사회에 있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오류는 태형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점이다.

53) «Одним словом, право телесного наказания, данное одному над другим, есть одна из язв общества, есть одно из самых сильных средств для уничтожения в нем всякого зародыша, всякой попытки гражданственности и полное основание к неперемennomу и неотразимому его разложению.»

54) Баталова Т. “Проблема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 *Записках из Мертвого Дома* Достоевского”,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этики*, Т. 19 (2021), С. 223.

55) Rosenshield G. “Dostoevsky’s *Notes from the House of the Dead*: The Problem of Pain,”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58 (1) (2014), p. 35.

II.2.4. 분열된 집단과 민중의 무의식

사회주의의 특성 중 하나인 집단주의는 반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극단적일 경우에는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감옥에서는 민중 출신 죄수 집단과 귀족 출신 죄수 집단의 갈등이 있다. 감옥은 통합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과 귀족이 ‘죄수’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민중과 귀족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남아 있다. 민중 출신 죄수들은 귀족 출신 죄수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며 자신들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완전한 통합은 고란치코프가 출옥할 때까지도 달성되지 못한다.

민중 출신의 죄수들은 귀족 출신의 죄수들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귀족들이 자신에게 친절한 행동을 베풀면 오히려 그 귀족을 무시한다. 반면에 그들은 자신을 하대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귀족들을 비난하지만, 그와 동시에 존경한다.

[...] 어쨌든 나는 그들 앞에서 나의 귀족 신분을 준수하고 존중해야만 했다. 즉, 무위도식하며 고집을 피우고, 그들을 경멸하며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아야 했다. 그들은 이런 행동들을 귀족의 행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그것들로 나를 비난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존경했을 것이다.⁵⁶⁾ (4:76)

또한 감옥에서는 더 이상 귀족을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민중 출신의 죄수는 귀족 출신의 죄수를 섬기거나 도와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수실로프와 페트로프가 있다.

수실로프는 고란치코프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인물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스스로 나를 찾아서 보좌했다.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 한마디로, 자기의 운명을 나의 운명과 완전히 연결하고 내 모든 일을 도맡았

56) «[...] я все-таки должен был соблюдать и уважать перед ними даже дворян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мое, то есть нежиться, ломаться, брезгать ими, фыркать на каждом шагу, белоручничать. Так именно они понимали, что такое дворянин. Они, разумеется, ругали бы меня за это, но все-таки уважали бы про себя.»

다.⁵⁷⁾ (4:58)

수실로프는 고란치코프에게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한 보수를 받지만, 그 보수가 결코 큰 보수도 아닐뿐더러 수실로프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목적 또한 보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페트로프 또한 마찬가지로 고란치코프를 도와준다.

페트로프는 나의 온몸을 비누로 씻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 이제 다리를 닦겠습니다”하고 덧붙였다.⁵⁸⁾ (4:99)

드와이어(A. Dwyer)는 페트로프가 다리를 가리킬 때 지소형을 사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장면에서 고란치코프가 아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자는 알레이를 가르칠 때의 고란치코프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고란치코프가 민중들에게서 소외되어 있음을 주장한다.⁵⁹⁾ 여기서 소외는 고란치코프와 민중이 같은 지위에 있지 않고 항상 ‘아버지와 아이’ 혹은 ‘아이와 아버지’라는 다른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고란치코프가 민중 출신 죄수들에게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따돌림과 같은 고의적 소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우러질 수 없는 소외라고 생각한다. 죄수들이 고란치코프에게 행하고 있는 소외는 개인의 감정 등을 이유로 저지르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고란치코프의 소외는 죄수들과 고란치코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어우러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원인은 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민중 출신 죄수들의 무의식에 형성되어 있다.

고란치코프 또한 민중 출신의 죄수들이 귀족들을 거부하는 현상을 “의식적인 편견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⁶⁰⁾으로 해

57) «Он как-то сам нашел меня и зо прикомандировался ко мне; даже не помню, когда и как это случилось. [...] одним словом, совершенно связал свою судьбу с моею и взял все мои дела на себя.»

58) «Петров вытер меня всего мылом. «А теперь я вам ножки вымою», — прибавил он в заключение.»

59) Dwyer A. “Dostoevsky’s Prison House of Nation(s): Genre Violence in *Notes from the House of the Dead*,” *The Russian Review* 71 (2) (2012), p. 222.

60) «Это делается даже не по сознательному предубеждению, а так, совершенно искренно, бессознательно.» (4:26)

석한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는 페트로프가 고란치코프를 동료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장면이다.

“아, 신이시여! 당신들 중에서도 돈을 내고 먹는 사람이 있지만,
[항의하러 - 필자 주] 나가더군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했소... 동료이니 말이오.” “예... 그런데 당신들이 어째서 우리의
동료라는 겁니까?” 그가 당황해하며 물었다.⁶¹⁾ (4:207)

고란치코프의 온몸을 씻겨주었던 페트로프마저 고란치코프를 동료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동료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페트로프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고란치코프를 도와주는 것 또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무의식이 원인임을 나타내주는 방증이다.

죄수들은 자신이 살던 기존의 사회를 금방 잊고 지금 있는 감옥을 원래부터 자신이 살던 곳인 것처럼 여기고 어떠한 규칙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순응한다. 민중들은 감옥 밖에서 살다가 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올타리 안쪽에서는 그 세계를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상상”⁶²⁾했으며 “내부 규정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감옥의 관행에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따르고 있었다.”⁶³⁾ 감옥에서 모두가 죄수라는 새로운 ‘집단’에 속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자신들만의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중성(народность)’⁶⁴⁾을 보여준다. 고란치코프는 러시아 민중의 ‘민중성’이 사회주의와 같은 혁명을 통해 러시아의 통합을 시도하려

61) «— Ах, боже мой! Да ведь и из ваших есть, что свое едят, а вышли же. Ну, и нам надо было... из товарищества. — Да... да какой же вы нам товарищ? — спросил он с недоумением.»

62) «по сю сторону ограды о том мире представляли себе как о какой-то несбыточной сказке.» (4:9)

63) «против внутренних уставов и принятых обычаев острога никто не смел восставать; все подчинялись.» (4:12)

64) 스캔런(J. P. Scanlan)은 필자가 지칭하는 ‘민중성’을 ‘형제애’나 ‘우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민중 출신 죄수들은 자신들의 형제애나 우애를 자신들끼리만 베풀고 귀족들에게는 베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민중들의 무의식에 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의 「성탄절」 장(章)에서는 민중성의 긍정적인 특성이 조명되고 민중성은 도스토옙스키의 대지주의 사상에 큰 역할을 맡게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민중성의 부정적인 점을 조명한다. Scanlan J. P. “Socialism, utopia, and myth,” *Dostoevsky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 42-43.

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결론

『죽음의 집의 기록』의 주인공 고란치코프는 항상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인간 군상’을 관찰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또한 고란치코프는 감옥 밖을 ‘신의 세계’로 표현함으로써 감옥을 ‘인간의 세계’라고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결국, 기독교적으로 해석되는 장면을 포함한 작품의 모든 요소는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집의 기록』은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로 체포된 정치범 도스토옙스키와 고란치코프는 감옥에서 사회주의의 한계점을 깨닫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는 후기 작품에서 사회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무신론’, ‘개성의 무시’, ‘사유재산제도의 부정’, ‘집단주의’를 제시했다. 감옥은 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공간으로 기능하며 죄수들과 간수들의 행동을 통해 살펴볼 때 그것들은 명백한 한계와 모순을 지니고 있다.

죄수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한다. 옷을 제작할 때 원단이나 색상을 달리하고 머리카락을 특이한 모양으로 자르며 외적으로 개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허세를 부리며 자만을 드러내고, 다른 죄수들의 허세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적인 개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죄수들은 자신을 죄수로서가 아닌 인간으로 존중해 주는 간수를 좋아하며, 그러한 순간에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고란치코프는 죄수들을 통해 개성을 표출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개인의 노동이나 물품 소지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간수들은 죄수들의 사적 행동을 묵인한다.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죄수들은 더욱 야만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막사는 죄수들이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진정한 집이 된다. 노동으로 얻은 돈은 죄수들에게 주조된 자유와 같으며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유재산의 부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빼앗긴 인간에게는 허무와 폭력성만

이 남을 뿐이다.

감옥은 간수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신론적 공간이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반 카라마조프의 말처럼, 죄수들은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범죄를 저지른 죄수는 태형을 받는데, 태형을 통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간수와 형리는 뇌물을 받고 불법적인 일을 묵인해 주거나 태형의 강도를 조절하는데, 인간에게 타인을 처벌하는 권한이 주어지면 사회는 부패한다고 고란치코프는 강력하게 경고한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든 ‘죄수’가 되어 하나의 평등한 집단에 소속된다. 그러나 죄수 집단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민중 출신의 죄수와 귀족 출신의 죄수로 분리된다. 그들이 통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적·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결국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본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란치코프는 깨닫게 됨으로써 고란치코프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을 철폐한다.

참고문헌

1. 도스토옙스키(이덕형 옮김), 『죽음의 집의 기록』, 열린책들, 2021.
2. 박종소,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와 혁명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후기 장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4, 2017.
3. 석영중, 『도스토옙스키 깊이 읽기: 종교와 과학의 관점에서』, 열린책들, 2021.
4. 석영중, 「도스토옙스키와 이콘: 『죽음의 집의 기록』에 나타난 바라봄의 문제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8, 2022.
5. Базилевская А. “Учиться, что есть человек и жизнь”, *Дергачевские чтения*, Т. 1, Екатеринбург, 2011.
6. Баталова Т. “Проблема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 *Записках из Мертвого Дома* Достоевского”,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этики*, Т. 19, 2021.
7. Бердяев Н. *Мирозерцание Достоевского*, Прага: The YMCA Press, 1923.
8. Владимирцев В.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и Русская Этнолог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диссертация], Новгоро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998.
9. Геригк Х. *Литературное мастерство Достоевского в развитии*,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Пушкинского Дома, 2016.
10. Горелов А.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русская идея и русский социализм”, *Знание. Понимание. Умение*, 2017.
11. Достоевский, Ф.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0 томах*, Т. 4,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1972.
12. _____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0 томах*, Т. 21,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1980.
13. Иванов Вяч.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4 томах*, Т. 4, Брюссель, 1987.
14. Кирпотин В.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 2,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78.
15. Серман И. “Тема Народности в *Записках из Мертвого Дома*,” *Dostoevsky Studies* 3, 1982.

16. Теофилов М. “Записки из Мёртвого Дома Ф. М. Достоевского. Поэтика и Проблематика” [диссертация], Шуме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2022.
17. Шестов Л. *Достоевский и Ницше (Философия Трагедии)*, СПб., 1903.
18. Dickens, C. *David Copperfield*, Richmond, England: Alma Classics, 2019.
19. Dwyer A. “Dostoevsky’s Prison House of Nation(s): Genre Violence in *Notes from the House of the Dead*,” *The Russian Review* 71(2), 2012.
20. Frank J. *Dostoevsky: The Stir of Liberation 1860-186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21. _____ *Dostoevsky: A Writer in His Tim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22. _____ and Miller R. *Lectures on Dostoevsk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23. Ivanits L. *Dostoevsky and the Russian Peop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4. Kibalnik S. ““If there’s no immortality of the soul, ... everything is lawful”: On the Philosophical Basis of Ivan Karamazov’s Idea,” *Dostoevsky beyond Dostoevsky*,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6.
25. Oeler K. “The Dead Wives in the Dead House: Narrative Inconsistency and Genre Confusion in Dostoevskii’s Autobiographical Prison Novel,” *Slavic Review* 61(3), 2002.
26. Rosenshield G. “Dostoevsky’s Notes from the House of the Dead: The Problem of Pain,”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58(1), 2014.
27. Scanlan J. P. “Socialism, utopia, and myth,” *Dostoevsky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8. Schur A. *Wages of Evil: Dostoevsky and Punishment*,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2.

Abstract

**Dostoevsky's Critique of Socialism:
Focusing on *Notes from the House of the Dead***

Jung, Jae H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Fyodor Dostoevsky's critique of socialism in *Notes from the House of the Dead*. His time in a Siberian prison gave him deep insight into human nature, prompting a rejection of socialism in favor of a nationalist and Christian perspective. The novel, based on his exile, presents the prison as a space reflecting socialist traits such as collectivism, suppression of individuality, and denial of private property. Through the experiences of protagonist Aleksandr Petrovich Goryanchikov, Dostoevsky illustrates the failure and dangers of implementing a socialist society. Inmates express individuality through appearance and behavior, despite restrictions on labor and property. Money becomes a symbol of freedom, guards possess absolute authority, and class divisions persist. These contradictions underscore Dostoevsky's view of socialism's inherent flaws.

Key words : Dostoevsky, *Notes from the House of the Dead*, Prison, Socialism, Individuality, Freedom

일반-사실적 불완료상과 주화제의 예측적 의미 사슬에 관하여

정 지 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어 일반사실적 불완료상(General Factual meaning of the imperfective aspect, 이하 GF)이 단순한 상적 대립을 넘어서, 화용적·담화적 맥락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으로 GF는 ‘사실의 존재’를 진술하는 용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이에 더해 GF가 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정보의 흐름을 조직하고, 배경 지식의 공유를 통해 담화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보였다.

이를 위해 ‘예측적 의미 사슬’ 개념을 도입하고, 주화제(topic)와 GF 정보 간의 예측적 연결성, 정보의 분절과 한정성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GF는 평서문, 명령문, 부정문 등 다양한 문장에서 주화제-부화제의 조율 및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담화적 장치로 기능하며, 청자의 인지적 예측 능력을 자극하여 정보의 위상을 부드럽게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 체계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GF를 문법 범주를 넘어 담화 구성 요소로 재조명함으로써 상 이론과 화용론의 접점을 확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일반-사실적 불완료상, 주화제, 예측적 의미 사슬,
정보의 분절성, 정보의 한정성, 담화 구성

*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박사과정, jiyoon1936@gmail.com

I. 서론

러시아어 동사는 일반적으로 상(aspect)의 쌍으로 존재하지만, 이 쌍을 구성하는 두 동사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특히 완료상과 불완료상 간의 기능적 차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어 왔다. 슬라브어권 상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핵심 의미, 즉 행위의 지속(불완료상)과 종료(완료상)에 집중해왔다. 가장 오래된 설명 중 하나는 Miklosich가 제안한 대조적 구도인데, 그는 ‘Он читал’과 ‘Он прочитал’처럼 지속과 종료의 대비를 통해 상의 구분을 설명한다. 그러나 완료상이 항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문맥(예: Он засмеялся)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Vinogradov는 완료상이 단순히 결과의 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적인 경계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완료상은 행위의 시작 혹은 종료 지점, 또는 1회의 단일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Shakhmatov를 포함한 다른 학자들은 행위의 지속에 더 주목했으며, 불완료상은 선형적 지속(linear action)을, 완료상은 순간적 행위(punctual action)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Он стучал’과 ‘Он стукнул’의 대조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 역시 모든 동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제한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완료상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이해되는 반면, 불완료상의 의미는 보다 다양하며 문맥 의존적이다. 전통적으로 불완료상은 행위의 지속이나 반복이라는 특징으로 설명되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의미는 문맥에 따라 드러나는 2차적 해석일 뿐이다. 특히 불완료상은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명령형 등 다양한 문법 형태에서, 반복이나 지속이 아닌 단일 행위를 지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Вы читали Анну Каренину?’, ‘Кто покупал эти билеты?’, ‘Пожалуйста, уходите.’와 같은 문장은 반복성이 없음에도 불완료상을 사용하고 있다.

Forsyth(1970)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맥에서 불완료상의 기능은 행위의 종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지 그러한 행위의 유형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이는 불완료상의 본질적 의미가 ‘일반-사실적 의미(GF; General Factual meaning)’에 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Maslov 역시 GF의 개념을 통해 불완

료상의 다양한 용법을 설명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어 상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상 연구에서는 GF의 사용 조건을 개별 문장 수준의 구문적 조건이나 의미 범주 중심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러시아어 상 체계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화용론적 접근과 담화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Шатуновский(2004; 2009)는 발화 맥락에서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결정 역할을 중심으로 상의 사용을 설명하며, 상이 단순한 사건 표시를 넘어 담화 참여자 간 행위 조정의 도구로 기능함을 밝혔다. 즉, 상은 화자의 발화 의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청자가 특정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대 가능한 정보 흐름이나 담화 전개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장치로 작용한다. Dickey(2018)는 이러한 접근을 확장하여,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대립을 ‘시간적 한정성(temporal definiteness)’ 대 ‘시간적 비한정성(temporal indefiniteness)’이라는 인지언어학적 틀로 재구성하였다. 시간적 한정성은 사건의 경계가 명확하고 특정 시점에 완결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반면 시간적 비한정성은 사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특정 시점에 고정되지 않은, 열린 상태로 이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틀은 상의 사용이 단순한 사건 기술을 넘어, 화자와 청자 간의 시간 인식과 정보 조직 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Israeli(2001)는 구어 담화에서의 상 사용을 세밀히 분석하며, 화자가 전제하는 사실 구조나 참여자 간 관계 설정이 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는 상의 선택이 단순히 시간적 구조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발화자와 청자 간의 인지적, 상호작용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근 상 연구는 상을 단일 사건의 시간적 특성만이 아니라 담화적 맥락과 참여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 상 체계의 담화적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상이 사건 간 인과성과 예측 가능성을 조직하는 방식에 주목한 ‘예측적 의미 사슬’ 개념을 도입한다. 특히, GF는 주화제(topic)의 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청자가 예측 가능한 배경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화제와의 의미 사슬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GF는 청자의 인지적 예측 능력을 자극하여 담화 내 정보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화용

적 장치로 기능한다.

예측적 의미 사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1) 주화제와 GF 정보 간의 예측적 연결성, (2) 정보 단위의 분절 여부, (3) 정보의 한정성 여부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에 따라 GF가 주화제와 어떻게 예측적 의미 사슬을 형성하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예시들의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GF의 화용적 기능이 평서문, 부정문, 명령문 등 통사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본 논문에 제시된 예문들은 다음 네 가지 출처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1) 기존 선행 연구에서 재인용한 예문, 2) 국립 러시아어 코퍼스(НКРЯ)에서 발췌한 예문, 3) 저자가 구성한 예문(예문 (1)–(2)), 4) 영화 대본을 디테이션하여 수집한 예문(예문 (15))이다. 예문 (15)는 러시아 단편영화 <Чернильное море> (감독: Иван Соснин, 2021)에서 발췌하였으며, 자막 또는 공식 대본이 존재하지 않아, 필자가 영상 시청 후 직접 스크립트를 디테이션하여 작성하였다.

II. GF와 주화제의 예측적 연결성

러시아어 담화에서 상의 선택은 단순한 의미적 차이뿐 아니라, 담화 구조 속 정보의 배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중 GF는 주로 이미 알려진 정보 혹은 청자가 예측 가능한 정보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특히 담화 내 주화제(topic)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공유된 정보로 기능할 때, GF는 청자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나 행동을 배경정보로 제시하는 용법으로 작동한다.

(1)

— Что с ним?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 Он часто бывал в командировках.

그는 자주 출장을 가곤 했잖아.

여기서 (1)의 ‘бывал’은 완료상 ‘побывал’ 대신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가 자주 출장을 다녔다’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

는 화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사용은 담화의 흐름에서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배경적으로 제시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2)

— Ты раньше говорил, что он занимался музыкой.

너 예전에 그가 음악을 했다고 말했잖아.

— Да, он играл на гитаре.

응, 그는 기타를 쳤었지.

이 문맥에서 ‘играл’은 GF 불완료상으로, 화자의 말이 과거의 배경 정보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 상의 선택은 단순히 행위의 완료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보를 배경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GF는 다음과 같은 기능적 특성을 갖는다:

- 주화제를 중심으로 한 담화 흐름 속에서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인 배경정보를 표현한다.
- 청자의 인지적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담화 내 위상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 발화의 초점(focus)이 아닌, 비초점적 정보(non-focus information)를 표현할 때 적절하다.

Plungian(2001)은 이러한 점에서 GF 불완료상을 “예측 가능한 단일 사건의 명제화”로 규정하고, 이는 단순한 시제 또는 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구조상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이 분석은 러시아어에서 상이 단순한 시제 구분을 넘어서, 화용적 기능과 화제 구조의 조율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GF의 사용은 화자의 의도, 청자의 인식 상태, 정보의 담화 내 위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기능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GF는 단지 반복성이나 단일성 여부로 규정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배경 정보를 표현하는 화용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GF의 예측적 배경성은 Шатуновский(2004)에서도 드러난다. 그에 의하면, GF 의문문형에서는 확신을 나타내는 완료상과 다르게 한 발짝 더 나아가 좀 더 긴 «의미 사슬»이 드러난다. GF가 사용되면, 주어진 P(GF)는 Q라는 이야기의 다른 요소와 의미적 결합이 되어야 한다(그것은 드러날 수도 있고 함축될 수도 있다). 즉, 그 행위의 완료 여부, 행위의 주체자, 행위의 이유 등에 관한 질문은 결국 주어진 P를 통해 이어진 Q와 의미적 연결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GF 의문문은 ‘Я хочу узнать это не просто так (как с СВ), 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тому что..) (나는 단지 그렇게 СВ가 말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알고 싶은게 아니라, ~를 위해... 때문이다)’라는 의사 표현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들에 «선행하는» 혹은 «이어지는» 담화적 요소들이 나온다.

즉, P라는 GF구문은 선화제(혹은 부화제)로서 Q라는 주화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GF 의문문을 들은 청자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화제가 따로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3) Вы покупали и творог на рынке?! = ‘Тот, кто покупает творог, знает, сколько он стоит, где он продается и т. д., этому тот, к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купил творог, знает...; я хочу узнать, покупали ли вы/кто покупал творог на рынк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знать у вас/у него ... Сколько он стоит?’
시장에서 트보록을 사보신 적 있나요? = 트보록을 산 사람은, 그제 얼마인지, 어디서 파는 지 등등을 알 거야. 그러니깐 이 상황에서 트보록을 산 사람은 알거야...; 나는 당신(혹은 누군가)에게 그제 있는 지 알기 위해서 당신(또는 누군가)이 시장에서 트보록을 샀는 지 알고 싶어... 그제 얼마야?) [7, С. 375 재인용]

아래의 예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짧은 의미 연결을 보여준다.

(4) Вы заказали такси? (단순히 궁금해서 하는 질문)

Вы заказывали такси? = ‘я спрашиваю э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вы заказывали такси, сообщить вам Такси выехало. Выходите.’ [7, С. 375-376 재인용]

택시를 부르셨다구요? = ‘저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택시를 부른다

면, «택시는 떠났어요. 가세요.»라고 알려드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GF의 선화제 / 부화제 기능은 정보의 부속성/독립성과 관련되어 있다. 홍택규(2005)에 의하면 상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단위의 분절’의 변수가 본질적으로 작용한다. 완료상의 경우에는 완료상이 사용된 해당 발화가 선행 발화와 다른 독립적인 발화임을, 불완료상의 경우에는 불완료상이 사용된 발화가 선행 발화를 뒷받침하는 부가적인 정보임을 의미한다. [3, C. 28-29] 즉, 청자는 GF를 선행하는 주화제와 연관 짓거나, GF가 포함하는 정보는 이후에 이어질 내용과 연결되는 정보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화제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GF-정보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은, 주화제와 GF의 연결이 쉽게 하나의 정보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정보의 연관성에 관하여 이미 알려진 보편성에 호소한다는 사실은, GF와 이어지는 주화제가 청자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는 정보임을 신호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청자는 [GF-주화제] 정보를 보다 더 가볍게,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완료상 정보들 간의 결합은 이러한 일반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해당 정보들 간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개별적으로 공유하는 특수한 상황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발화 내에서 화용적으로 특수한 무게를 지닌다.

(5)

A: Тевосяна ты помочь попросил?

Б-1: Да, просил(НСВ),но он еще не согласился/он отказался.

Б-2: Да, попросил(СВ),но он еще не согласился/он отказался.

A: 너 Тевосян한테는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Б-1: 네, 요청했는데, 그가 아직 동의를 안했어요 / 그가 거절했어요.

Б-2: 네, 요청했지만, 그가 아직 동의를 안했어요 / 그가 거절했어요. [3, C. 34 재인용]

Б-1과 같은 답변에서 화자는 불완료상 ‘просил’(요청했다)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연결되는 하나의 정보로 표현하였다. ‘просил’을 통해 청자는 접속사 но 이하에 이어질 문장, 즉, ‘그가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다’ 즉, ‘요청

했는데, 동의를 안 했다’, 혹은 ‘요청했는데, 거절했다’ → 결국,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요청에 거절했다’)로 간주하는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상황은 일반적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청자는 요청이 거절된 상황을 자연스럽게 가볍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B-1의 답변과 같은 발화는 주로 특별히 누군가의 책임성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반면에, B-2의 경우, 요청을 분명히 했고, 해당 요청이 거절된 상황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대화 세계 내에서, 화자는 요청을 했고, 요청이 승인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해당 요청이 승인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다. 즉, 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은 ‘Тевосян이 요청을 수용해야 함이 마땅하나, 그가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책임이다. 이 상황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다’ 와 같은 개별적인 화용적 효과와 커뮤니케이션적 무게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이 맥락에서는 ‘요청’ 과 ‘요청의 수용-거절’ 은 하나로 묶이는 정보가 아니라, 주요한 두 개의 정보로 기능한다.

앞서 언급한 (3)과 (4)의 GF 의문문도, 청자로 하여금 주화제의 존재를 예측하게 하고, 해당 질문과 주화제의 의미 사슬이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화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들이므로 이들이 가리키는 상황은 큰 무게를 지니지 않는, 가벼운 질문이다. 청자는 화자가 질문하는 주된 의도가 청자의 행위 수행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질 주화제에 관하여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것이며, 주화제를 알게 되었을 때, GF 의문문과 어렵지 않게 더 나아가 당연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완료상 의문문은 해당 맥락 내에서 의문문이 지시하는 상황이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게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GF-주화제의 일반적/보편적/예측적 연결성은 부정문과 명령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먼저 부정문을 살펴보자.

(6)

— Вы получили ее письмо?

그녀의 편지를 받으셨어요?

— Нет, не получал/получил. [2, с.159 재인용]
아니요, 안 받았는데요.

위의 예시에서 ‘편지를 받지 않았다’ 라는 문장에 대하여 불안료상 ‘получал’을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등장한 Нет, 즉, 편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주화제이며, 뒤에 이어지는 부정문은 Нет 뒤에 이어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부가적인 정보임을 의미한다. 한편 완료상 ‘получил’을 사용할 경우에는, 편지를 받지 않은 상황이 일반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수한 무계를 지니는 상황임을 표현하게 된다. 화자는 편지를 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지만,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태가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라는 독립적이고 주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어서 명령문을 살펴보자. .

(7)
Проходите... Садитесь за стол...¹⁾
들어오세요... 식탁에 앉으세요...

(8)
Если я вам не понравлюсь, пройдите мимо.²⁾
만약 내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나가세요.

(9)
Сдавайтесь! [10, p. 565 재인용]
항복하십시오!

(10)
— У меня нет сил для разоружения Каппеля.
카펠의 무장을 해제시킬 힘이 내게는 없어.
— Тогда сдайтесь сами, а с Каппелем справимся мы.³⁾
그럼 너희는 항복해, 카펠은 우리가 해결할게.

1) Мацанов А. *Мастер и подмастерье* (Ковчег, 2015)

2) Токарева В. *Своя правда* (Новый Мир, 2002)

3) Алдан-Семенов А. И. *Красные и белые*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79)

명령문 (7)의 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초대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의도는 청자가 화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행위, 식탁에 앉는 행위의 수행에 있지 않다. 화자의 의도는 ‘내가 당신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얼른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세요’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주화제는 ‘화자의 초대’이고, 집에 들어와서 앉는 행위는 초대와 스크립트적으로, 예측적으로 연결되는 당연한 부가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한편, 명령문 (8)은 화자와 청자의 개별적인 대화 상황에 국한된다. ‘내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지나가는 것’은 보편 타당하게 연결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청자와 화자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개별적인 정보들이다.

한편, (9)의 불완료상 명령문은 국립 러시아어 말뭉치 코퍼스에서 검색해본 결과, 163개의 예시들이 등장한 반면, 완료상 ‘сдайтесь’가 포함된 예문은 12개에 불과했다. (9)는 일반적인 전쟁 상황에서 화자(이기고 있는 진영)가 보기에 청자(지고 있는 진영)가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자명하며, 따라서 ‘항복하라’라고 말하는 보편적인 명령문이다. 여기서 주화제는 항복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청자의 패배에 있다. GF 명령문은 ‘이미 너희는 졌다. 그러니 항복하라’라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연결성 속에서 등장한다. 한편, (10)에서는 ‘카펠을 해결할 힘이 없다’와 ‘너는 항복하라’는 일반적으로 서로 관련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의 개별적인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정보이다. 게다가, ‘너희는(сами)’ 항복하라는 의미는 통해 해당 상황이 ‘너희’에 국한되는 특정한 상황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부정 명령문을 살펴보자.

(11)

Будем вас ждать к четверем. Не опаздывайте. — Не сомневайтесь.⁴⁾
4시 즈음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늦지 마세요. — 걱정마세요.

(12)

Не опоздайте встать на путь война, иначе что-то в этой жизни

4) Зорин Л. *Глас народа (2007-2008)* (Знамя, 2008)

для вас окажется TOO LATE.⁵⁾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매우 늦어질 거예요.

(11)의 예시에서도 마찬가지로, ‘4시 즈음에서 기다리는 것’과 ‘늦지 마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미 사슬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늦지 마라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금지 명령에 해당한다. 한편, (12)의 경우 ‘(비유적으로) 인생의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마라’라는 명령문과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매우 늦어질 것’이라는 문장은 보편적으로 관련된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와의 소통 상황 속에서 설정한 개별적인 연결 관계이므로, 완료상 부정 명령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완료상 부정 명령문의 개별적인 경고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III. GF와 정보의 비한정성

예문 (11)와 (12)의 비교에서 드러났듯이, 해당 발화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한정적으로, 개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역시 주화제와 GF 구문의 개별적 독립성/보편적 연결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해당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예측할 수 없는 독립적인 새로운 정보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13-a)

Сегодня утром принимал лекарство и с трудом вышел из дома (сердце давало перебои.)⁶⁾

오늘 아침에는 약을 먹고 간신히 집을 나섰다(심장이 자꾸 이상 반응을 보였다.)

(13-b)

Я дописал дневник дома, принял лекарство и в 12 ч. лег спать.⁷⁾
집에서 일기를 마저 쓰고 약을 먹은 뒤, 1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5) Клейн А. *Путь воина и Путь артиста. Too Late!* (Пятое измерение, 2003)

6) Аросева О. А. *Прожившая дважды* (М., Астрель, 2012)

7) Козаков Н. Н.. *Дневник* (Электронное издание, 1962)

(14-a)

Скоро распределят нас в часть, – солдат что-то ещё говорил, но женщина не слушала его.⁸⁾

곧 우리를 부대로 배치할 거야, 병사는 뭔가 더 말하고 있었지만, 여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14-b)

Еще он сказал, но не про женщину, про что-то: она все равно окажется сильней, и человеку лучше в этом не убеждаться, все-таки надеяться.⁹⁾

그가 또 뭔가를 말하긴 했는데, 여자에 관한 건 아니었고 다른 무언가에 대한 거였다. 그녀가 결국 더 강하다는 건 분명하고, 사람은 그걸 굳이 확인하려 들지 말고 그냥 희망을 품고 있는 게 낫다.

(13-a)에서는 ‘принимал’이 사용된 약 복용 행위가 ‘간신히 집을 나섰다’는 주된 사건에 앞서는 배경적 행위로 제시된다. 이때 ‘심장이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추가 정보가 이를 뒷받침하며, ‘약을 먹고 외출했다’는 서술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과 흐름 속에 위치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의미 사슬 내에서 ‘принимал’은 GF를 나타내며, 주화제와 자연스럽게 부속적으로 연결된다.

반면 (13-b)에서는 ‘принял’이라는 완료상이 사용되었으며, 여기서의 ‘약 복용’은 ‘1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는 시간적 맥락 속에서, 의도적이고 시간적으로 특정된 행위로 나타난다. 즉, 이 예문에서는 정보가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며, 그 연결이 자동적으로 예측되는 보편적 흐름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적 배열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정보 간 연결이 부속적이지 않고 독립적 사건 단위로 처리되며, 완료상의 사용이 정당화된다.

비슷한 현상은 예문 (14-a)와 (14-b)에서도 확인된다. (14-a)에서는 병사가 ‘говорил’(GF)을 통해 무언가 계속 말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배경적 맥락이 제시된다. 이처럼 ‘말을 했다’는 정보는 주된 사건(듣지 않음)의 배경으로 기능하며,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GF가 사용된다.

8) Каюров Г. *Пока живые* (Менестрель, 2013).

9) Терехов А. *Каменный мост* (М.: АСТ-Астрель, 2010).

반면 (14-b)에서는 ‘сказал’(완료상)을 통해 ‘그가 말했다’는 행위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개별적인 사건으로 제시된다. 특히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명시적 언급은 해당 발화가 일반적 흐름 속의 일부분이 아니라, 화자의 해석을 수반하는 구체적이고 한정된 정보 단위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여기서는 정보 간 연결이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완료상이 선택된다.

이러한 분석은, 정보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GF 구문의 사용 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즉, 정보가 일반적이고 배경적인 경우에는 GF가 사용되며, 반대로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독립된 사건으로 처리되어 완료상이 선호된다.

Шатуновский(2004)는 “스크립트 유형의 종합화된 행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완료상은 한정적인 의미, 즉, 유일하고,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반면, 일반-사실적 불완료상은 여기서 주어진 이 1회적 행위가 종합화된 유형에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킨다고 언급하였다. 해당 상황에 참여하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주에 의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종합화, 유형화 되는 것이다. [7, C. 369-370]

이런 점에서 GF는 정보가 보다 덜 구체적으로, 비한정적으로 제시되는 맥락에서 더 활발히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언어의 두 모드는 “화자 모드”와 “사건 모드”로 나눌 수 있다. “화자 모드”는 화자의 주관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기준이 되므로 일인칭 현재가 그 기본이 된다. 반면, 사건 모드는 사건의 객관적 전개를 기본으로 하므로 3인칭(비인칭) 과거가 근간을 이루게 된다. 화자모드는 대화에서, 사건 모드는 이야기 기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두 언어모드 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GF가 화자모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화자모드에서는 대화의 여러가지 배경적 요소들이 최대로 작용해서 행위가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일상적 지식과 같은 추론에 의해 전제 및 예측되기 쉽고, 행위의 다른 행위와의 시간적 관계를 묘사하기보다는 그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보이는 것이 발화의 목표가 되어 행위의 수행에 관한 정보는 주화제를 보충하는 배경적인 정보(선화제/부화제)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예문 (15)는 일상 구어가 사용되는 대화체로서, GF의 빈번한 사용 양상을 보여준다.

(15)

—Его вроде бы и нет. Может быть и есть. Но это не точно.

—А звонить не пробовал?

—Да какой там... У меня и адреса-то его толком нет. Могу вот только... Письма писать, и то только в один конец.

—А я вот на поле чудес пишу-пишу из детства. Тоже ни разу так и не ответили. Ты не сдавайся.

—Сашок! Сань, мы в порту уже. Ну ты на почту пойдешь?

—А, да-да-да, сейчас.

—Давай быстрее, а то через час подгрузк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А, да-да-да, сейчас.

—Давай, двигай, двигай, двигай, двигай! Ну, Саня, ну быстрее!

—Ага, спасибо.

—Открытку-то!

—Да, точно, сейчас.

(на почте)

—Ну я же вам как говорила, ну всё верно, всё правильно, верно.

—Ну что вы?

—Мне, пожалуйста, можно одну открыточку отправить, пожалуйста?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я же тут целый час стою.

—Извините, у меня просто судно на отходе, я моряк.

—Здесь половина города моряки.

—Ну простите, я буквально одну открыточку, можно? А вам сколько?

—Ну давайте на все.¹⁰⁾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전화는 안 해봤어?

—네... 저한테는 확실한 주소도 없어요. 편지를 쓰죠, 그것도 한 곳으로만요.

10) Соснин И. (режиссёр), <Чернильное море> (краткометражка, 2021)

—나도 어렸을 때부터 기적을 바라며 편지를 써왔어. 한 번도 답장을 받아본 적은 없어. 포기하지 마!

—사샤, 벌써 항구에 도착했어. 그래서 너 우체국 가는 거야?

—네, 네, 네, 네, 바로 갈게요.

—서두르자, 한 시간 후면 하역이 끝나니까.

—아, 네, 네, 네, 네, 잠시만요.

—어서, 어서, 어서, 움직여, 움직여! 어서, 사냐, 서둘러!

—네, 고마워요.

—엽서야!

—아, 맞다. 금방 갈게요!

(우체국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다 맞아요,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엽서 한 장만 보내도 될까요?

—젊은이, 나 여기 한 시간 내내 서 있어.

—죄송합니다, 배가 곧 출발해서요. 전 선원이어서요

—이 마을의 절반이 선원이에요

—죄송하지만 말 그대로 엽서 한 장만 써도 될까요?

—몇 장이나 드릴까요?

—전부 다 주세요.

첫 문단에서는 선원인 주인공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께 한 곳으로만 편지를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선원이 ‘전화는 안 해봤어?’라는 부정 의문문에서 GF ‘пробовал’을 사용하였다. 이 문장은 앞서 ‘아버지가 실제로 살아 계신 건지 모르겠다’라는 상황과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가적 정보로서 전화는 걸어봤냐고 물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자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도록 기대된 상황이고, 따라서 전화를 걸었는 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장이 아니다. 또한, 얘기를 들은 선원이 나 또한 기적을 바라면서 아버지께 편지를 썼지만, 늘 답장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문을 발화한다. 여기서 GF ‘сдавайся’가 사용되었다. ‘비록 나도 답장은 받아보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편지를 보낸 나를 보고 용기를 얻고, 너도 포기하지마!’라는 하나의 정보로서 ‘포기하지마’라는 선행 문장에 부

속되는 내용으로서 명령문은 앞의 내용과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선원이 주인공 사냐에게 곧 하역 및 적선이 끝나니 얼른 서둘러서 우체국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움직여’라는 GF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빠르게 준비해서 우체국으로 가야 한다는 상황은 청자인 사냐에게도 너무나도 자명하고, 이미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명령문은 이러한 발화 상황에 부가적으로 연결되며, 움직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화자에게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명령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체국 장면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전부 다 주세요’의 문장에서도 각각 GF ‘говорила’와 ‘давайте’가 사용되었다. 전자의 경우, 이미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했었다는 사실을 청자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부화제로서 해당 문장이 발화되므로, 일반-사실적 불완료상 과거형이 사용되었다. 후자의 경우에도, 앞서 ‘엽서를 몇 장 드릴까요?’라고 청자가 물었고, 주인공인 화자가 ‘전부 다 달라’라는 명령형에서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제된 사실이고, 선행 질문과 자연스럽게 충분히 보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GF 명령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대화체로 구성된 예문 속에서 평서문, (부정)의문문, 명령문 등 다양한 문장 유형들에서 GF가 사용됨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는 발화되는 문장이 이미 화자와 청자가 언어 외적인 상황 혹은 선행 발화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배경적인 정보와 연결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대화 속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배경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도, 일반적인 지식이나 추론을 통해 전제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러시아어 GF 불완료상(General Factual meaning of the imperfective aspect)이 단순한 상적 의미를 넘어, 화용적, 담화적 맥락에서 가지는 기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GF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해석, 그리고 담화 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GF 불완료상은 전통적으로 ‘결과보다는 사실 자체를 지시하는’ 용

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청자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화용적 전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GF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을 법한 정보를 배경으로 제시하거나, 정황적 지식이나 기대 가능한 행동을 확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GF가 담화 구조 내에서 주화제-부화제 구성과 전환의 조율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GF는 단순한 시제·상적 표현을 넘어, 화제 전환의 부드러운 연결, 배경 정보의 제시 등 다양한 담화 구성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GF 불완료상을 문법-의미적 범주를 넘어 화용적 구성요소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기존의 상 이론과 담화 분석 사이의 접점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많은 양의 담화 예시들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GF의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기능을 더욱 풍부하게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이인영, 「러시아어 일반-사실적 불완료상에 대한 재고」, 『슬라브학보』 9, 1994.
2. 이인영, 『러시아어학 – 보다 현실적 접근을 찾아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3. 홍택규, 「러시아어 동사 상과 담화응집성」, 『슬라브학보』, 20(2), 2005.
4. Падучева Е. В. *Семан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1996.
5. Рассудова О. П. *Употребление видов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Изд.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68.
6. _____ *Употребление видов глагол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здание второе, исправленное и дополненное*, М.: Изд.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82.
7. Шатуновский И. Б. “Общефактический НСВ: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функции и референция”, *Сокровенные смыслы: слово. текст. культур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в честь Н. Д. Арутюновой*,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2004.
8. _____ *Проблемы русского вида*,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2009.
9. Dickey S. M. “Thoughts on the ‘Typology of Slavic aspect’”, *Russian Linguistics* 42(1), 2018.
10. _____ “Time out of tense: Russian aspect in the imperative”, *Journal of Linguistics* 56(3), 2020.
11. Forsyth J. *A Grammar of Aspect: Usage and Meaning in the Russian Verb*,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12. Israeli A. “The choice of aspect in verbs of communication: Pragmatic contract”,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9(1), 2001.
13. Plungian V. A. “The place of the evidential category in the system of verbal categories”, *Journal of Pragmatics* 33(3), 2001.
14.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URL: <https://ruscorpora.ru/>.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8.12.2023.)
15. Соснин И. (режиссёр). <Чернильное море> (краткометражка), Россия, 2021.

Abstract

**On the Predictive Semantic Chain of the
General-factual Imperfective Verb Aspect and the Topic**

Jung, Ji Yoon
(HSE University, Moscow)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agmatic and discourse-level functions of the General Factual meaning (GF) of the imperfective aspect in Russian, beyond its conventional role within aspectual oppositions. Traditionally, GF has been understood as expressing the mere existence of a fact, independent of its result. However,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GF also functions as a discourse-organizing device, structuring the flow of information based on the presupposition of the hearer's predictive capacity and the sharing of background knowledge, thereby contributing to discourse coherence. To this end, the concept of a "predictive meaning chain" is introduced, and various examples are analyzed in light of factors such as the predictive connection between the topic and GF information, segmentation of information units, and referential definiteness. The analysis reveals that GF plays a key role in coordinating and transitioning between topic and sub-topic across various sentence types—including declaratives, imperatives, and negations. It facilitates a smooth structuring of information by engaging the hearer's cognitive predic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pragmatic functions of aspect and reinterprets GF as a discourse-structuring device, thus bridging the gap between aspect theory and pragmatics.

Key words : General-factual Imperfective Aspect, Topic, Predictive Meaning Chain, Segmentation of Information, Definability of Information, Discourse Construction

**Частушка о смене кадров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А. М. Горького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домашнее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зеркало социокультурных
изменений ранней советской культуры***

Я. Д. Чечнёв**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1918년 막심 고리키가 번역된 세계 문학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한 소련 출판사 ‘프세미르나야 리테라투라(세계 문학)’의 직원들이 작성한 풍자적 차스투시카를 분석한다. 이 기관은 저명한 작가와 학자들을 한데 모아 전 시 공산주의와 초기 NEP의 어려운 시기에 협력적인 창작 환경을 유지했다. 1921년 후반에 제작된 차스투시카는 고리키 자신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의 퇴장을 유머러스하게 기록했으며, 편집 집단의 해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는 유머러스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이민, 제도적 쇠퇴, 혁명적 격변이 러시아 문화 지식인들에게 미친 정서적 피해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드러낸다. R. V. 루라, F. A. 브라운, A. 야. 레빈손과 같은 실존 인물에 대한 언급을 검토함으로써, 이 논문은 초기 소비에트 지식인들이 어떻게 혁명적 격변을 겪었는지 보여준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민속적이고 “국내적인” 문학 형식이 출판사의 내부 역학 관계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스투시카는 문학적 유물이자 초기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식인 공동체가 경험한 사회적, 문화적 붕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프세미르나야 리테라투라, 소비에트 문학 문화, 차스투시카,
지성계의 망명, 막심 고리키

* Исследование выполнено за счет гранта Российского научного фонда (проект № 24-78-10046 «Восточные литературы в издательских и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ах А.М. Горького 1920-х гг. (по рукописным источникам издательства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журнала “Восток” и “Секции исторических картин”)), <https://rscf.ru/project/24-78-10046/>) в ИМЛИ РАН.

**고리키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ya.d.chechnev@yandex.ru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 первое советско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еревод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роекта связаны творческие биографии известных писателей, поэтов, литераторов (Александра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Блока, Николая Степановича Гумилев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Замятина, Корнея Ивановича Чуковского, Федора Сологуба, Михаила Леонидовича Лозинского, Григория Леонидовича Лозинского, Виктора Максимовича Жирмунского, Нестора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Котляревского, Николая Осиповича Лернера, Акима Львовича Волинского, Андрея Яковлевича Левинсона, Федора Дмитриевича Батюшкова, Евгения Максимовича Браудо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и выдающихся российских ученых, академиков, членов-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Академии наук, профессоров,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ергея Федоровича Ольденбурга, Василия Михайловича Алексева, Игнатия Юлиановича Крачковского, Бориса Яковлевича Владимирцова, Николая Яковлевича Марра, Николая Иосифовича Конрада, Федора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Розенберга, Владимира Казимировича Шилейко, Евгения Эдуардовича Бертельса, Юлиана Константиновича Щуцкого и других).

Издательство организован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лексея Максимовича Горького (Максима Горького) в Петрограде (<рис. 1>).



<Рис. 1>. Максим Горький за письменным столом / фот. Я. В. Штейнберг. Петроград. Конец 1910-х гг. На лицевой части фотографии дарственная надпись Максима Горького, адресованная Василию Десницкому: «В. Д. Десницкому старому другу М. Горький».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осуществляла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 сентября 1918 г. по январь 1925 г. Последнее заседание датировано 13 января 1925 г.¹⁾ Почти шесть лет работы издательства приходятся на два важнейших для становления молод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РСФСР-СССР периода — хаотичный, жестокий «военный коммунизм» (1917–1922 гг.) и веселый, «буржуазный» ранний НЭП (1923–1925 гг.), «нэповскую оттепель», как метко обозначила это время Наталья Васильевна Корниенко²⁾. Всего за неполные шесть ле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орьковск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а было выпущено 227 книг, которые распределялись по трем сериям — «Основной», «Народной» и «Новости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выпускала два журнала: «Современный Запад» и «Восток». Структура издательства — Западный и Восточный отделы, которые в 1921 г. слились в единую Редакционную коллегию. В Отделе эстампов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и сохранилась фотография членов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датируемая 1925 г. (<рис. 2>)



- 1) Иванова Е. В., Чечнёв Я. Д. «Как и почему было закрыто издательство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з Архива А. М. Горького ИМЛИ РАН)», *Studia Litterarum* 7 (2) (2022), С. 385-386.
- 2) Корниенко Н. В. *«Нэповская оттепель»: становление института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критики* (М., 2010).

<Рис. 2>. Сотрудники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издательства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25 г. Сидят (первый ряд, слева направо): Вер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Сутутина (секретарь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и Корней Иванович Чуковский. Сидят (второй ряд, слева направо): Михаил Леонидович Лози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Тихонов (заведующий редакцией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Аким Львович Волынский, Игнатий Юлианович Крачковский, Сергей Федорович Ольденбург,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Замятин. Стоят (слева направо):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Смирнов, Василий Михайлович Алексеев, Николай Осипович Лернер, Борис Яковлевич Владимирцов.

Несмотря на тяжелейшее время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переходное время,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оказалась уникальным предприятием, не просто издательством, а настоящим дружественным рабочим коллективом. Нельзя не согласиться с емк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ой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я: «...вокруг издательства с фантастическим замыслом перевода литературы всех времен и народов **сплотился вес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ир города**. В сообществе литераторов, переводчиков, ученых, принадлежавших к одной культурной генерации, **сложился свой микроклимат, сохранивший многие черты уклада дореволюционных кружков и объединений**» (полужирным выделено нами. — Я. Ч.)³⁾.

Своеобразие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го облика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ложилось за счет яркой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и ее сотрудников, ведущих писателей и ученых своего времени. Синтез искусства и науки определил характер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ними: как таковой иерархии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признавалось старшинство, ценился опыт и заслуги перед культуро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ертикаль формально была: заведующий (Горький), заведующий редакцией (А. Н. Тихон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А. Л. Волынский), руководители отделов. Н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ими носили характер если не дружеский, то приятельский. Имело место и официаль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о оно

3) “Шуточная летопись издательства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за 1922 год: «Ежегодник» В. Зоргенфрея, инсценировки М. Рыжкиной и А. Оношковиц-Яцыны”, *Литературный архив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и публикаций* (СПб., 2018), С. 138.

касалось внешней жизни издательств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его отношений с вышестоящим начальством —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а (Госиздата) и Правления Госиздата в Москве, когда редакционная коллегия действовала как единый организм, отстаивая права на собственную автономию.

Большинство сотрудников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ринадлежало к одной культурной генерации,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издательство сохраняло особенности уклада дореволюционных кружков и объединений, яркой, но не единственной чертой которых была «своя», «домашняя», «шу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Благодаря творчеству сотрудников,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создавали свои тексты для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ов, появился целый «легендарium»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который еще нуждается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филологов-русистов и литературоведов. Назовем известны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раткая история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от основания до сего дня» Е. И. Замятина, шуточный «Ежегодник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драма в одном действии «Рука Всевышнего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асла» Ады Ивановны Оношковиц-Яцыны и Марии Никитичны Рыжкиной, инсценировка «Ольга Николаевна и Людмила Павловна», рукописные альбомы В. А. Сутугиной, Розы Васильевны Руры, Давида Самойловича Левина, лирика Рыжкиной, адресованная М. Л. Лозинскому, «Баллада о горlinkах» Осипа Эмильевича Мандельштама и Бенедикта Константиновича Лившица. Сюда же примыкает анонимная частушка — предмет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В шуточ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текстах сотрудников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игровой форме отразились реальные коллиз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издательства.

Выбранная нами для разбора частушка описывает хронологию смены сотрудников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и отражает скорость, с которой менялся как состав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издательства (главного органа, принимающего кадровые, гонорарные и издательские решения) в 1918–1921 гг.

Сам текст частушки датируется первым публикатором — Татьяной

Алексеевной Кукушкиной — концом 1921 г. по содержанию (упоминается отъезд многих членов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организатора издательства Горького за границу)⁴⁾. Приведем его полностью (полужирным выделены имена сотрудников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нумерация строк наша).

1. Ели мы фасоль с пшеном,
2. Пищу жирную,
3. Ну-тка, песенку споем
4. Про «Всемирную».
5. Скоро станет вся земля
6. Горой лысою,
7. **Роза** скрылась с корабля
8. Первой крысою.
9. Я сижу в углу один
10. И мяукаю,
11. **Браун** кинулся в Берлин
12. За наукою.
13. Нехороший снится сон
14. И сбывается,
15. За границей **Левинсон**
16. Хрипло лается.
17. Довелось вчера кутнуть —
18. Похлебали щей,
19. **Горький** вздумал отдохнуть
20. От товарищей.
21. Нет прекрасных горьких глаз,
22. Нет таланненького,
23. Улетел и сам Пегас

4) Кукушкина Т. А. “Из литературного быта Петрограда начала 1920-х годов (Альбомы В. А. Сутугиной и Р. В. Руры)”, *Ежегодник рукописного отдела Пушкинского дома за 1997 год* (СПб., 2002), С. 349.

24. С марки **Анненкова**.
25. В самоваре медный кран,
26. Чайник с носиком,
27. Удалился **Сильверсван**
28. С «**Евпетросиком**».
29. Мы в Астории сидим,
30. Пьем шампанское,
31. Принял подданство **Аким**
32. Итальянское.
33. Нет у Розы папирос
34. И для **Шкловского**,
35. Ах, остался только нос
36. У **Чуковского**.
37. Ходят по полю быки
38. Чернопегие,
39. Нос повесила с тоски
40. Вся коллегия.
41. Касса нас берет в тиски,
42. Где телятина,
43. Жду пожатия руки
44. От **Замятина**.
45. Мы готовимся к посту,
46. Даже стих не нов,
47. Остается на посту
48. Только **Тихонов**.
49. Ходит каждый кошкой злой,
50. Кошкой серою,
51. Мы утешены одной
52. **Тетей Верою**.
53. Что же. Будем отвечать
54. Всем имуществом,
55. Дружно славу пропоем

56. Остающимся⁵⁾.

Начинается частушка (строки 1–2) с иронического намека на голодн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жителей Петрограда. Пшено (крупы) и фасоль (бобы) —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продукты, которые получали по пайкам (нормирова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еды, несколько граммов в ден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Вряд ли эти культуры, именуемые автором «пищей жирною» могли заменить мясо или птицу, острый дефицит которых наблюдался в городе в период «военного коммунизма».

Усугублялась ситуация подавленным моральным состоянием жителей, доходившим до истерики. Люди не знали, как выживать, искали любую возможность, чтобы выжить. В этой связи характерно письмо литератора и журналиста А. А. Амфитеатрова А. М. Горькому, который просил купить у него оставшиеся рукописи, чтобы хоть как-то прокормить себя и семерых детей в страшную зиму 1919 г. Приведем длинную цитату, которая лучше многих мемуаров и исследований описывает тяжелый быт работника пера, российского интеллигента,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Простите, Алексей Максимович, что беспокою Вас этим письмом. <...>

Вы сейчас стоите во главе русской издатель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и являетесь распорядителем советск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а. Поэтому я и решаюсь обратиться к Вам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иобрести для эт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а некоторые мои сочинения. <...>

<...> Потому что нас, ведь, семь душ, а — что значит теперь прокормить семь человек, Вы сами хорошо понимаете. Никакая работа не была возможна. Лекции мне сорвала истерическая выходка какой-то полоумной. Газет нет и не будет. Частные издательства либо убиты чудовищными тарифами типографий и бумажного рынка, либо бездействуют выжидательно, либо, пользуясь безвыходным положением литераторов, с видом

5) Там же, С. 350-351.

благотелей берут за горло совершенно бессовестными условиями. Оставалось жить самоедством, в чем и упражнялись — буквально — до последней вещи в доме. **Все распродано и проедено.** От минувшего величия остался рояль... <...>

В последние три недели я получил работу во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е”, которою очень доволен, как материально, так и морально. У меня купили переводов и пр. на 6600 рублей, впереди предвидится также порядочно работы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заработка. Но, после **ужасающих девяти месяцев, полных конечного разорения и задолжания, все это будет ухать, как в бездонную яму, оставляя существование столь же нелепым и жалким, безнадежно физиологическим.** Работаешь не на себя, не на семью, не на любимых людей, не на любимое дело, а на мешочников с хлебом или мясом. Без них — **умирать от истощения,** с ними — влачить даже не жизнь, а мерзость запустения, в которой часто сам о себе **сомневаешься, в здравом ли ты еще уме или уже сбесился,** и вокруг тебя — тоже сплошной бред. Я выдержал в Питере **три тяжкие зимы,** каждая была мне трудна, по отвычке от климата и от людей. Но последняя, **третья, меня добила совершенно.** Больше не могу. Должен бежать и спасать семью» (полужирным везде выделено нами. — Я. Ч.)⁶⁾.

Цитата эта отлично комментирует 5 и 6 строки частушки, где совершенно неожиданно злободне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текста переходит к апокалиптическому предсказанию — «Скоро станет вся земля / Горой лысою». Лысая гора — элемент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связанный с колдовством и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ми силами. Согласно легендам, на «лысых горах» ведьмы и другие сказочные существа регулярно собирались и устраивали шабаши. В постреволюционном

6) “Горький и журнал «Современник». Переписка с А. В. Амфитеатовым”, Вступительная статья Н. И. Дикушиной, публикация и комментарии: Ф. М. Иоффе, А. Г. Поголосовой, Е. Г. Коляды, С. И. Доморац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ство. Т. 95. Горький и рус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начала XX века. Неизданная переписка* (М., 1988), С. 458-460.

российском контексте это означало превращение всей страны в фантаст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макабрического дьяволь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ведьм с неутешительным для жителей исходом.

Выход из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автору видится один — бегство или эмиграция, как возможный вариант спасения себя. В тексте частушки мы выделили имена сотрудников горьковск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покинули проект. Первой почувствовала опасность Роза — Роза Васильевна Рура (ок. 1860 — ?) — буфетчица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Петрограде. Она прославилась благодаря знакомству со многими поэтами и учеными Серебряного века, которым продавала сладости, мыло, папиросы, выполняла мелкие поручения и давала ссуды. Рура завела альбом, в который просила делать записи своих клиентов-литераторов. Многие посвящали ей шуточны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некоторые различные записи. В альбоме писали Александр Блок, Николай Гумилёв, Корней Чуковский, Георгий Иванов, Федор Сологуб, Николай Оцуп, Евгений Замятин, Зоргенфрей и другие⁷⁾.

Второй, кто покинул издательство, был Федо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раун (1862–1942; <рис. 3>) — филолог-германист (на что намекает упоминание Берлина в 11-й строке частушки).



<Рис. 3>. Федо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раун

7) Кукушкина Т. А. Указ. соч., С. 341-402.

Он принадлежал к числу ближайших учеников Александра Николаевича Веселовского (1838–1906), автора знаменит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этики», наряду с испанистом, медиевистом Дмитрием Константиновичем Петровым (1872–1925) и выдающимся романистом Владимиром Федоровичем Шишмаревым (1874–1957).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ют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кие работы Брауна для «Истории западной литературы XIX века 1800–1910» под редакцией еще од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Федора Дмитриевича Батюшкова (1857–1920). В первом томе ему принадлежит раздел «Немецкий романтизм», посвященный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оэтам Йенского кружка, во втором томе — глава «Немецкий романтизм: Гейдельбергский кружок. Берлинский кружок», в третьем — написанная совместно с В. М. Жирмунским глава «Немецкий романтизм и наука»⁸⁾.

Браун, ответственный во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е» за выпуск немецких авторов, уехал из России в марте 1920 г. в ученую командировку в Германию для знакомства с новейшей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ой. Но обратно в страну он так и не вернулся. «Страдавший болезнью горла профессор также прошел курс реабилитации в клинике Лейпцига. Врач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 советовали продолжать жить во влажном климате столицы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Попав из красно-бунтующего будоражающего Питера в спокойный Лейпциг, Ф.А. Браун вступил в переговоры с мест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о возможности его работы в Германии. Он сразу же получил приглашение прочесть в качестве приват-доцента курс лекций по германским древностям на Юге России 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не возвращаться в Петроград. Он отмечал в 1921 г. в собственном “Curriculum vitae”, отправленном Н.Я. Марру, что решил остаться в Герман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⁹⁾.

8) Жеребин А. И. “У истоков русской германистики: профессор Ф. А. Браун”, *Русская германистика: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германистов* 20 (2023), С. 376–377.

9) Непомнящий А. А. “«Быть в курсе Ваших крымских планов...»: из истории крымоведения по переписке Ф. А. Брауна и С. Ф. Платонова”, *Пространство и Время* 1–2(23–24) (2016), С. 181.

Следующий, кто покинул «Всемирную литературу», был еще один член редакционного коллегии — Андрей Яковлевич Левинсон (1887–1933), театральн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ритик, журналист и переводчик, приват-доцент французской филологии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трока 12).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он заведовал Французским отделом до февраля 1921 г. Не получив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ыезд, эмигрировал в Берлин в 1921 г. С 1922 г. обосновался в Париже, где стал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критиком, публиковался в эмигрантской и во французской печати¹⁰⁾, стоял на антибольшевистских позициях, часто критиковал тех, кто остался в России. Поэтому в частушке Левинсон сравнивается с охрипшим псом — «хрипло лается» (строка 13).

Эмиграция Левинсона поставила редакционную коллегию в трудное положение. Тихонов на заседании 1 марта 1921 г. отмечал: «...от Андрея Яковлевича мы получили чудовищное наследство. Все большие авторы были за ним — и Стендаль, и Флобер, и Бальзак — не было автора, которого он бы за собой не зачислил и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л» (Архив А.М. Горького ИМЛИ РАН. КГ-изд 4-4-2. Л. 2).

Наконец, большим ударом для основ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издательства стал отъезд за границу основателя и главного защитника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от нападков политических недоброжелателей — Горького (строка 19). Писатель покинул страну 16 октября 1921 г.: «Уехав для лечения в Германию (фактически высланный по настоянию Ленина), Горький не собирался оставаться там долго. Однако обострение туберкулеза и сердечная недостаточность требовали серьезного внимания. В санаториях Санкт-Блазиена, Бад-Саарова и Фрайбурга писатель подлечил сердце и легкие и уже летом 1922 г. хотел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Но его пребывание в Германии, а затем в Чехословакии затянулось. На родине разразилась громкая кампания дискредитации Горького, которому не могли простить защиты эсеров в

10) Полонский В. В.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связей конца XVIII-начала XX века* (М., 2019), С. 250–279.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к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летом 1922 г. Письма Горького Анатолию Франсу и А. Н. Рыкову с протестом против “публичн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к убийству людей, искренно служивших делу освобождения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 вызвали негативную реакцию совет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Л. Троцкого в центральных советских газетах появились статьи К. Радека и С. Зорина, в которых писателя называли мелкобуржуазным попутчиком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и упрекали в поддержке врагов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¹¹⁾.

В частушке оказалась нарушена хронология «исхода» сотрудников издательства из страны. Перед Горьким, в сентябре 1921 г., отправились в эмиграцию еще два сотрудника — Сильверсван и «Евпетросик» (строки 27 и 28), тогда как в тексте они стоят после заведующего издательством. Автор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тъезд скандинависта Бориса Павловича Сильверсвана (1883–1934), заведовавшего Немецким отделом после отъезда профессора Брауна, о котором мы писали выше, и заведующей секретариатом издательства Евдокией Петровной Струковой (1886–1937), ставшей впоследствии женой Сильверсвана¹²⁾. «Евпетросик» — уменьшительно-ласкательное прозвище, шуточная контаминация из имени и фамилии Струковой: «Ев» — Евдокия, «петросик» — Петровна.

Строки 21–24 — своеобразный рубеж самой частушки и истории «исхода» сотрудников из издательства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и апокалиптической советской земли: улетает Пегас с марки, нарисованной художником Юрием Павловичем Анненковым для горьковского проекта (<рис. 4>).

11) Спиридонова Л. М. *Горький — мыслитель, художник, человек* (М., 2022), С. 160.

12) Иванова Е. В., Жуховицкая Л. Г. “Письма Б. П. Сильверсвана М. Горьком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ива А.М. Горького ИМЛИ РАН)”,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Новгоро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6(45)(2022), С. 720–721.



<Рис. 4>. Марка издательства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боты Ю. П. Анненкова

Пегас, улетевший с марки — символ ушедшего вдохновения.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не только лишилась своего лидера (Горького), но и, вместе с ним, защиты небесных покровителей.

Далее в тексте частушки перечисляются те, кто остался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Виктора Шкловского (строка 34), для которого у Розы Руры нет папирос (намек на то, что Шкловский как и Роза покину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 Л. Волынский (строка 31), К. И. Чуковский (строка 36), Е. И. Замятин (строка 44), А. Н. Тихонов (строка 48) и «тетя Вера» — В. А. Сутугина, секретарь издательства (строка 52)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во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е».

Строки 31 и 32 могут смутить, в них говорится, что «Аким» принял итальянское подданство. Автор частушки намекает на присуждение А. Л. Волынскому звания поч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г. Милана (в 1908 г.) в знак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его книгу «Леонардо да Винчи» (СПб., 1900). Сын К. И. Чуковского, Николай, в 1920-е гг. молодой литератор, позднее отметил в своих воспоминаниях:

«Когда Аким Львович поселился в Доме искусств, мне по каким-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пришлось даже побывать у него в комнате. Посреди небольшой этой комнаты на отдельном столе лежала тяжелая мраморная доска метра полтора в длину, на

которой крупными буквами было высечено по-латыни, что город Милан объявляет Акима Волынского своим почет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за его книгу о Леонардо да Винчи. По крайней своей молодости я, конечно, не мог общаться с таким пожилым человеком, как Волынский, но я постоянно слышал забавные рассказы о нем моего отца, который встречался с ним на разных заседаниях. Отца смешило красноречие Волынского, отличавшееся многословием и неслыханной выпренностию. Отец утверждал, что у Акима Львовича жестикуляция обычно находится в прямом противоречии со смыслом его слов...»¹³).

Несмотря на внешнее веселье («Мы в Астории сидим, / Пьем шампанское», строки 29–30), сотрудники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морально подавлены — «Нос повесила с тоски / Вся коллегия» (строки 39–40) и утешает их только забота «тети Веры» (строки 51–52). К моменту отъезда Горького за границу у работников издательств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и все основания для тоски и грусти не только из-за распада человеческих связей. 1921 г. — рубежный для всей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август этого года — страшный месяц для интеллигенции. Напомним, что тогда трагически погиб Н. С. Гумилев¹⁴), скончался А. А. Блок¹⁵), уехал, опасаясь ареста после задержания старшего брата¹⁶), Г. Л. Лозинский¹⁷).

13) Чуковский Н. К. *Литератур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М., 1989), С. 58.

14) Лукницкий П. Н. *Труды и дни Н.С. Гумилева* (СПб., 2010), С. 724-736.

15) Савина А. Д., Чечнёв Я. Д. “Заседание памяти А.А. Блока во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е» 26 августа 1921 года. Приложение. Заседание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освященное памяти А.А. Блока”,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3(2023), С. 178–195.

16) Тименчик Р. Д. *Что вдруг: статьи 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рошлого века*, (Иерусалим; М., 2008), С. 66–68; Любимова М. Ю., М. Л. Лозинский и Е. И. Замятин. “Новые штрихи к биографиям”,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в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ах: сб. ст.*, Вып. 2. (СПб., 2021), С. 185–186; 198–199; Жуховицкая Л. Г. “Неизвестное письмо А. И. Браудо к М. Горькому об аресте М. Л. Лозинского в августе 1921 г.”,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 (2023), С. 75–82.

17) Толстой И. “Внутри расколотой семьи. Лозинские в письмах и домашних воспоминаниях”, *Connaissance: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льманах: книги, архивы, графика, театр*, № 3. Полутом 1. (Прага, 2022), С. 210–214.

Смерть Блока воспринималась современниками не только как личная утрата, уход любимого поэта, но и как завершение «целой духовной и исторической эпохи»¹⁸⁾: «с ним ушел целый период в жизн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писал Э. Ф. Голлербах в 1923 г.¹⁹⁾.

Известие о расстреле Гумилев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е в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газете «Петроградская правда» 1 сентября 1921 г.²⁰⁾, укрепило мысль о том, что кончилась крупная литературная эпоха, начиналась новая, в которой предстояло жить оставшимся «всемирным литераторам». За это они и поднимают тост в финале частушки — «Дружно славу пропоем / Остающимся» (строки 55–56).

18) Лавров А. В. “«Романтика поминовения». Андрей Белый о Блоке”, *Белый А. О Блоке*, Вступ. статья, сост., подгот. текста и комм. А. В. Лаврова (М., 1997), С. 14.

19) Голлербах Э. Ф. “Образ Блока. Воспоминания, впечатления, наброски”, *Возрождение*, Т. 2. (М, 1923), С. 295.

20) Лукницкий П. Н. Указ. соч., С. 736-737.

참고문헌

1. Голлербах Э. Ф. “Образ Блока. Воспоминания, впечатления, наброски”, *Возрождение*, Т. 2, М.: Время, 1923.
2. “Горький и журнал «Современник». Переписка с А. В. Амфитеатровым”, Вступительная статья Н. И. Дикушиной, публикация и комментарии: Ф. М. Иоффе, А. Г. Погосовой, Е. Г. Коляды, С. И. Доморац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ство. Горький и рус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начала XX века. Неизданная переписка*, Т. 95, М.: «Наука», 1988.
3. Жеребин А. И. “У истоков русской германистики: профессор Ф. А. Браун”, *Русская германистика: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германистов*, Т. 20, 2023.
4. Жуховицкая Л. Г. “Неизвестное письмо А. И. Браудо к М. Горькому об аресте М. Л. Лозинского в августе 1921 г.”,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 2023.
5. Иванова Е. В., Жуховицкая Л. Г. “Письма Б. П. Сильверсвана М. Горьком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ива А.М. Горького ИМЛИ РАН)”,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Новгоро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6 (45), 2022.
6. Иванова Е. В., Чечнёв Я. Д. “Как и почему было закрыто издательство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з Архива А. М. Горького ИМЛИ РАН)”, *Studia Litterarum*, 7 (2), 2022.
7. Корниенко Н. В. *«Нэповская оттепель»: становление института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критики*, М.: ИМЛИ РАН, 2010.
8. Кукушкина Т. А. “Из литературного быта Петрограда начала 1920-х годов (Альбомы В. А. Сутугиной и Р. В. Румы)”, *Ежегодник рукописного отдела Пушкинского дома за 1997 год*, СПб., 2002.
9. Лавров А. В. “«Романтика поминовения». Андрей Белый о Блоке”, *Белый А. О Блоке*, Вступ. статья, сост., подгот. текста и комм. А. В. Лаврова, М., 1997.

10. Лукницкий П. Н. *Труды и дни Н. С. Гумилева*, СПб.: Наука, 2010.
11. Любимова М. Ю., М. Л. Лозинский и Е. И. Замятин. “Новые штрихи к биографиям”,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в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ах: сб. ст.*, Вып. 2. СПб., 2021.
12. Непомнящий А. А. “«Быть в курсе Ваших крымских планов...»: из истории крымоведения по переписке Ф. А. Брауна и С. Ф. Платонова”, *Пространство и Время*, 1–2 (23–24), 2016.
13. Полонский В. В.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связей конца XVIII-начала XX века*, М.: ИМЛИ РАН, 2019.
14. Савина А. Д., Чечнёв Я. Д. “Заседание памяти А.А. Блока во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е» 26 августа 1921 года. Приложение. Заседание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освященное памяти А.А. Блока”,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3, 2023.
15. Спиридонова Л. М. *Горький — мыслитель, художник, человек*, М.: ИМЛИ РАН, 2022.
16. Тименчик Р. Д. *Что вдруг: статьи о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рошлого века*, Иерусалим: Гешарим; М.: Мосты культуры, 2008.
17. Толстой И. “Внутри расколотой семьи. Лозинские в письмах и домашних воспоминаниях”, *Connaisseur: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льманах: книги, архивы, графика, театр*, № 3. Полутом 1. Прага, 2022.
18. Чуковский Н. К. *Литератур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89.
19. “Шуточная летопись издательства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за 1922 год: «Ежегодник» В. Зоргенфрея, инсценировки М. Рыжкиной и А. Оношкович-Яцыны”, *Литературный архив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и публикаций*,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Росток», 2018.

Abstract

**A Chastushka on Staff Turnover at Maxim Gorky's
Publishing House *Vsemirnaya Literatura*:
“Domestic Creativity” as a Mirror of Socio-Cultural Change
in Early Soviet Culture**

Chechnev, Ya. D.

(Gorky Institute of World Literature)

This article analyzes a satirical chastushka created by an anonymous employee of the publishing house *Vsemirnaya literatura* (“World Literature”)—a cultural and educational project organized by Maxim Gorky in 1918. The publishing house brought together Petrograd’s artistic forces and supported the intelligentsia during the Civil War. Its goal was to introduce Soviet readers to masterpieces of world literature and contemporary literary trends.

Dated to late 1921, the chastushka humorously reflects changes in the publisher’s personnel, including the departure of key figures—Gorky among them—from Soviet Russia. Despite its playful form, the text conveys the emotional distress associated with the disintegration of the editorial team and the broader cultural crisis.

By reconstructing the biographies of the real individuals encoded in the text, the author reveals the connection between historical context and creative expression. The chastushka is treated as both a literary artifact and a valuable primary source for understanding the social and cultural disintegration experienced by the early Soviet intelligentsia.

Key words : *Vsemirnaya Literatura*, Soviet Literary Culture, Chastushka, Intellectual Emigration, M. Gorky

우정의 자질로서의 서정:

시선집 『유일한 날들』 서평

(저자: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파스테르나크, 역자: 이기웅·이아름, 부북스, 2025)

길 혜 민*

서정시의 특징은 “주체와 세계와의 동일시”에 있다고 이해하는 방식은 19세기 낭만주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정시를 쉽게 “세계의 자아화”의 장르라고 말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의 자아화”는 ‘자아’의 폭력으로 지목되며, 비판적으로 분해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표현된다. 알고 있듯이 서정시를 이해하는 모더니즘 이론에는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다. 근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모더니즘은 주체-객체의 동일성이라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주지주의로서의 모더니즘은 주체-객체의 거리를 요청하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낭만주의 이후의 서정시에 대한 모더니즘적 해석은 난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동일성을 벗어나야만 발생하는 ‘서정적 거리’도 서정의 반대편에서 서정시를 구축하는 용어가 되기 때문이다. 서정시란 낭만주의적 근대의 ‘개인’과 ‘자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론 간의 개입을 통해 아포리아라는 긴장을 발생시키더라도) 고색창연한 장르라 이해되고는 한다. 한국의 현대시에 있어서도 ‘반서정’이나 ‘비서정’이라는 논쟁이 등장했던 것도 서정시 이론이 발을 딛고 있었던 이와 같은 역사성에서 비롯하였던 것이다.

근대적 ‘개인’의 ‘자아’에 근거하는 ‘서정’은 비판적 대상이어야만 할까. 1930년대 한국시에 있어서 주요 의제는 한국어로 표현한 우리 민족의 정서(서정)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표현하는 ‘님’과의 이별과 그것이 남기는 슬픔, 한용운의 ‘님’이 표현하는 민족적인 애환 등은 ‘우리’라고 불릴 수 있는 세계관을 보편화하고 가시화하는 것에 가까웠다.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sickcliche@nate.com

이렇듯 서정성을 깃발로 들어 집단의 정체성으로 내놓는 것은 어떤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서정시의 능력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서정시는 동시대를 묶어주는 강력한 정서적 감염성이나 주술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서정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대라는 시간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근접한 것이다. 동시대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과 사건들을 모두 연결시키는 서정의 감염성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파스테르나크의 서정시를 모아서 엮고 옮긴 『유일한 날들』은 파스테르나크가 이 세계와 자신을 연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흔적들이라 할 수 있다. 1912년 시인이 되기로 결심한 때에 창작된 그의 작품 「2월」은 서정시의 시인으로서의 결심을 보여주는 장면들로 연결되어 있다.

2월. 잉크병을 꺼내 잡고 올 것!
2월에 관해 통곡하여 글을 쓸 것.
웅웅거리는 음울한 날씨가
검은 봄으로 타오르는 한.

경마차를 잡을 것. 6그리브나의 마차 샅으로,
습한 서풍을 뚫고, 마차 바퀴들의 소음을 뚫고,
그곳으로 빨리 가거라,
폭우가 잉크와 눈물보다도 훨씬 더 시끄러운 그곳으로.

거기서는 마치 까맣게 탄 배 같은
수천 마리의 갈까마귀가 나무에서
갑작스럽게 웅덩이로 내려와서는
깊은 안저에 매마른 서러움을 쏟아붓는다.

그 서러움 밑에는 눈 녹은 곳곳이 까맣게 보이고,
바람은 비명소리들로 마구 파헤쳐져 있다.
하여 더욱더 우연적이기에 더욱더 진실스럽게
시는 통곡하며 지어진다.

(시 「2월」의 전문)

2월이 되자 시적 화자는 잉크병을 꺼내어 이 계절에 관해 깊이 울며 글을 써야 한다는 다짐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겪어왔던 2월은 어떠한가. 다

가을 3월이 약속하는 봄에 대한 기대감에 기대는 것이 2월을 이루는 지배적인 정서가 아닐까. 그러나 파스테르나크의 화자가 마주하려는 2월은 “폭우가 잉크와 눈물보다도 훨씬 더 시끄러운 그곳”이라는 장소에 가깝다.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나무에 있는 곳은 대자연의 장면이거나 폐허의 장면일 것이다. 2월에 통곡하며 글을 써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그곳”은 까마귀가 웅덩이로 내려와 메마른 서러움의 울음을 쏟아붓는 곳이며, 그래서 바람은 비명소리들로 마구 파헤쳐져 있는 곳이다. 파스테르나크가 시인이 되고자 했던 시작점에 해당하는 ‘2월’은 폐허로 달려가 직접 그곳의 통곡 소리를 시인이 적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파스테르나크가 계획하고 그려내고자 했던 시적 현실은 폐허와 통곡의 겨울을 관통하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필자는 서정시에 대한 논의들을 제시하며, 시인에게 있어서 서정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대라는 시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따르자면, 2월에 대하여 통곡하여 글을 쓴다는 시적 화자의 입장도 서정시로서 동시대를 받아들이는 바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와 접촉할 줄 아는 언어를 접붙이는 것이나 그것 간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도 서정시가 가진 장르적 속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정시는 우정의 형태와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존재에 대하여 거리감을 확보한 채로 그것의 존재 방식에 언어를 통해 다가가려는 노력은 우정과 유사하다.

너는 호주머니를 뒤집어 꺼내 놓고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 찾아들, 뒤져들, 더듬어들 보세요.
나는 상관없다, 질은 안개가 무엇으로 축축한 것인지.
어떤 과거사도 마치 3월의 아침과 같다.

[...]
나는 상관없다, 아무런 출처도 없는 곳에서 흘러오는
누구의 소문을 나는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는지.
어떤 과거사도 아지랑이가 감싸고 있는
봄의 뜰과 같다.

나는 상관없다, 외투들을 재단하면서

내게 어떤 옷본을 정해줬는지.
어떤 과거사도 사람들은 그 속에 시인을 밀봉한 채
마치 꿈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많은 지류들 속으로 소용돌이치며 올라가며,
시인은 숙명적인 시대의 구멍으로부터
통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막다른 길로
마치 연기처럼 흘러갈 것이다.

그는 연기를 내뿜으며, 전병 모양으로 짓눌린
엄청난 수의 운명들로부터 간신히 빠져나올 것인데,
그러면 후손들은 마치 갈탄에 대해서처럼 말할 것이다.
시대가 바로 저런 사람을 타게 만든다고.

(「마리나 츠베타예바에게」 부분)

1연에서 화자는 ‘너’가 무결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도 무지 자신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짙은 안개로 인해 사실을 분별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화자에게 ‘사실’이라 불리는 것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화자는 “나는 상관없다”라는 어구를 반복하면서 ‘너’에 대하여 남들이 듣거나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 재단하고 정해진 옷(옷본), 시인을 밀봉하고 있는 과거사 따위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한다. 어떤 인간을 가둬두려는 음해의 지류들 속에서 시인은 숙명적으로 주어진 시대로부터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길로 흘러가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엄청난 수의 운명들로부터 간신히 빠져나올 것”임을 화자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너’의 움직임들을 보고 후손들은 마치 갈탄과 같다고 말하리라 예상한다. 물이 많이 함유된 석탄인 갈탄은 연기를 내뿜으며 간신히 불을 피워 올리고, “시대가 바로 저런 사람을 타게 만든다고” 하리라. 이와 같이 평가하게 되리라는 것은 화자가 청자로 전제한 ‘너’가 마리아 이바노브나 츠베타예바이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시를 전공한 필자로서는 러시아 현대문학에서 츠베타예바의 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안나 아흐마토바, 오시프 만델슈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마리나 츠베타예바 등의 네 사람이

동년배 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아흐마토바의 작품 「우리 넷」을 통해 알 수 있다.¹⁾ “나는 모든 것에서 물러났다. 세상 모든 복락으로부터”라는 시인으로서의 운명의 수용, “삶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은 손님이다”라는 삶에 대한 성찰은 동시대 시인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이들의 처지가 배어져 나오는 구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파스테르나크는 그의 자전적 에세이 「사람들과 상황」에서 츠베타예바만이 “성숙하고 완성된 시적 문체를 구사”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다.²⁾ 이처럼 동시대인으로서 서로의 상황을 연민하고, 그들의 작품 세계를 존경하면서 이들의 20세기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츠베타예바의 초기 시가 모든 상징주의자들이 도달하려고 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시와 같다는 찬사를 하기도 했다) 츠베타예바의 생애는 모스크바대학교 교수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이른바 고귀한 태생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녀는 러시아를 떠나 파리에서 곤궁한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었다. 그러한 그녀에게 파스테르나크는 시인으로서 “시대가 바로 저런 사람을 타게 만든다”고 비감에 둘러싼 탄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파스테르나크는 일상의 시인으로 시단에 나타났지만 결코 일상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녀의 삶을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우정과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위의 작품 「마리나 츠베타예바」이다.

파스테르나크는 자신과 동시대 시인들이 마주했던 죽음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쓴 적이 있다. “우리는 자살 전의 찢어질 듯한 심적 괴로움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솔직한 감상은 자살이 이뤄지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추적해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자살하는 과정은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며, 자신은 파산자이며 자신의 추억은 무가치하다는 판단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해 내면적인 존재의 연속성이 깨진 결과로 개인성이 죽으며, 종국에 자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마야콥스키, 마리나 츠베타예바, 파올로 야시빌리이다. 이들의 작품에 깔렸던 우수의 감정이 정신 질환이 될 정도로 이들이 당한 고통에 연민을 갖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서술한다.³⁾ 파스테르나크는

1) 마리아 이바노브나 츠베타예바(이종현 옮김), 『끝의 시』(인다, 2020), 281쪽.

2)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임혜영 옮김), 「사람들과 상황」, 『안전 통행증·사람들과 상황』(울유문화사, 2015), 193쪽.

3) 파스테르나크(임혜영 옮김), 앞의 책, 2015, 225~226쪽.

1941년 자살로 생애를 마감한 마리아 츠베타예바를 추모하는 시를 썼다.

아, 마리아, 벌써 오래전에,
내팽개쳐진 너의 유해를 엘라부가로부터
레퀴엠이 울리는 가운데 옮겨와야 할 때였건만,
참으로 그 일이 더는 쉽지 않네.

작년에 나는 너의 이장 의식을
곰곰이 생각했었다.
얼음 속에서 작은 증기선들이 겨울을 나는
적막한 강구에 쌓인 눈 너머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나는
네가 굶주린 자매들 사이에서 마치
수전노 백만장자 부인같이
죽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들도록 무엇을 해야 하나?
이에 관해서 어떻게든 통고를 해라.
너의 떠남의 침묵 속에는
말하지 않은 질책이 있다.

상실은 언제나 수수께끼 같다.
헛되이 답을 찾으면서,
나는 결말 없이 괴로워한다.
죽음에는 윤곽이 없으니.

[...]
신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로
너는 이 땅을 떠나 그에게로 천천히 가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의 나날들은 너에게
아직 결산도 다하지 않은 것 같다.

(「마리아 츠베타예바를 추모하며」 부분)

파스테르나크는 츠베타예바의 “형식의 서정적인 힘”⁴⁾에 매료되었으며,
그녀의 형식이 표현하는 것은 그녀의 비통한 체험과 그로 인해 응축된 강

건한 심장임을 읽어낸 독자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23년 이후로 서신을 왕래하며 시인으로서 깊은 우정을 쌓아나갔다. 그렇기에 파스테르나크에게 있어서 츠베타예바의 죽음은 깊은 파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녀는 파리에서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러시아로 돌아왔지만 남편과 딸이 체포되면서 궁핍한 삶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글을 쓰며 살아나갔던 츠베타예바의 의지를 알고 있기에 파스테르나크에게 있어서 그녀는 굶주린 자매들 사이에서 “수전노 백만장자 부인같이” 긍지를 가진 죽음으로 표현된다. 손이 곱아가는 굶주림 속에서 시적인 영감을 잃지 않으려 했던 츠베타예바에게 “나는 네가 마음에 들도록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시인의 외침은 그녀의 죽음이 남기는 질문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두 사람을 이어주던 문이 폐쇄되자, 이 상실은 수수께끼를 남겼고, 그녀의 떠남이 남긴 질책은 산 자의 몫이 된다. 「우리 넷」을 가능하게 했던 한 측인 츠베타예바의 죽음은 살아남은 자에게 결말 없는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는 존재 형식은 남은 사람들에게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게로 남은 그녀를 향한 파스테르나크의 서정시는 동시대를 묶어주는 강력한 정서적 감염에 기댔었던 우정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파스테르나크는 츠베타예바에게 “너는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오르페우스야, 그들이 너를 잡아먹을 거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1935년 파리에서 열린 대회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옹호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1930년대에 파스테르나크가 공식적인 창작 활동을 멈췄던 이유나 츠베타예바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도 모두 소비에트와 소비에트문학의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음에도 자신의 고통에 솔직하지 못하고, 소비에트문학에 손을 들었던 것이 파스테르나크였다. 이를 자신의 아프리카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넝쿨나무”라 비난하는 것이 츠베타예바이다.⁵⁾ 아마도 츠베타예바가 파스테르나크에게 남긴 죽음으로서의 질책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포함하는 것일 테다. 같은 세계의 고통을 공유하며,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시적 제재로서의 우정은 이들의 세계와의 불화를 통해 피어났으며, 서정을 통해 공유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서정 문학이라고 부르는 한 장르로서의 서정시는 개인 내면의 감

4) 파스테르나크(임혜영 옮김), 앞의 책, 2015, 238쪽.

5) 츠베타예바(이종현 옮김), 앞의 책, 2020, 297쪽.

정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음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스테르나크는 『닥터 지바고』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기까지(상을 거부하는 사건까지 포함하여) 서정의 견지에서 이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싸우는 과정을 겪어왔다. 초기작에 해당하는 「2월」이나 「비 온 후」에서 시인으로 잘 구현해 내고 싶었던 상징주의적 작품도 모두 서정적인 주체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가 말년에 썼던 「유명하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도 역시 츠베타예바를 위하여 쓴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얻고 싶었고 주장하고 싶었던 자유로서의 주관성의 견지를 보여준다. 이 세계를 둘러싼 주관성의 이름이 ‘서정’의 필수 요소이다. 또한 이는 우리가 세계의 한 조각으로서 느꼈던 (파스테르나크가 경험한) 연결과 단절의 감각이 우정의 중요한 자질인 정서적 감염과 분리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서정시만을 모아둔 『유일한 날들』은 노벨문학상에 선정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과정까지의 파스테르나크가 세계와 연결되고 단절되었던 우정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한 날들』을 번역한 역자 중의 한 사람인 이기웅의 설명에 따르면 “문법적 어휘적 오독이 없는 이해에 기반한 옮김”에 충실함을 기준으로 작업한 번역물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행과 열이 원본의 형식에 맞춰진 채로 배열되어 오독을 유발하지 않는 번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 시집은 소통의 관점에서는 유려하다고 생각된다. 의미가 중단되거나 유보되는 문장이 비교적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운문으로 태어난 작품이 아니라 본래 산문으로 쓴 것을 번역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문으로서 시가 보여줄 수 있는 복잡성, 즉 직관적이기를 포기하는 대신 얻을 수 있는 의미의 복잡성이 사라지는 인상이다. 이를테면, 「라일락」에 대한 역자의 설명은 “이 시도 상당히 함축적이다”인데, 사실 작품을 읽고 나면 무엇에서 함축의 미를 느낄 수 있었을지 번역을 읽는 독자로서는 애매하다.

벌써 저 어딘가에는 짐마차들과 여름,
벼락이 관목들을 열어젖히고,
폭우가 아름답게 새로 짠 창틀 흠들 안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온다.

위의 연에서 이미지들은 있는 그대로 전달된다. 폭우가 내려서 새로 지은 창을 지나가는 것이 여름의 소란한 풍경이라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이 안에서 어떤 의미 중지와 유보가 있을 수 있을까, 또는 여름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함축의 다른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작품을 오래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적어진다. 아주 가끔은 시에 있어서 정확하고 분명한 문장이 아쉬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마리나 이바노브나 츠베타예바(이종현 옮김), 『끝의 시』, 인다, 2020.
2.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임혜영 옮김), 『안전 통행증·사람들과 상황』, 을유문화사, 2015.
3.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파스테르나크(이기웅·이아름 옮김), 『유일한 날들』, 부북스, 2025.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규정

제정 2016. 11. 3. 규정 제206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 사회와 문화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한국과 해당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러시아·유라시아 지역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조사활동
2. 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리
3.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및 공개강연회의 개최
4.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집의 간행
5. 학술도서의 번역 및 출판
6. 국제적인 학술교류
7. 특수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비 보조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을 둔다.

-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소장을 보좌한다.
-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 ③ 박사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⑤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⑥ 보조연구원은 연구소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학술위원회

제8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학술 관련 기획 및 국내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 ② 학술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학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사항)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 구축
2. 출판, 저술 지원, 학술대회 개최
3. 교과목 관련 사항
4. 기타 연구소 학술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5장 편집위원회

제10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 정기 학술지의 기획,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본교 및 타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간사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연구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7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20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26일 개정 및 보완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규정

제정 2019.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의 학술지인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의 편집 및 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게재내용)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
2. 비평논문, 논단
3. 서평, 서평논문
4. 기타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학술지의 발행) 학술지의 간행은 연 2회로 한다. 발행일은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4조(투고)

1. 다른 출판부에 이미 발표된 글은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다. 단 외국논문의 경우 원게재지를 명기하고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의 세부 지침은 별도의 투고지침에 따르며 투고지침의 제·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저자의 표시)

1.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을 명시한다.
2.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별 공헌도에 따라 나열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1. 학술지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편집위원은 국내외 전문연구자 중에서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형식·분야·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한다.
2. 2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최종적인 게재여부를 편집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 학자 3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1. 각 심사위원들은 투고논문들에 대해 창의성, 완성도, 시의성, 투고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필자들에게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300자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4단계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게재 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정 후 게재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한 논문과 수정사항서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기본방향과 논지전개에 무리가 있어 근본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재심은 다음 호로 이월되며 투고자는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재투고된 수정 논문은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거나 본 학회지의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의 3인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 표를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판정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수정 후 게재
가	가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불가	재심
불가	불가	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수정	게재 불가

제10조(판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제11조(이의제기)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시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논문심사서, 이의제기문을 검토하고 재심할 수 있다.

제12조 판권 및 저작권 양도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에 발표되는 논문의 판권 및 디지털 정보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소유권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가 갖는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투고지침

제정 2019. 03

1.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투고지침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 규정 제4조에 근거한다.
2. 투고에 관한 일반사항
 - 1) <한글97> 이상의 버전 또는 <MS Word 2003>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3) 투고는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ires-journal.or.kr) 또는 편집위원회 전자우편(iresknu@gmail.com)으로 논문 파일을 첨부하여 보낸다.
 -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나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한다.
 - 5) 투고 논문은 아래의 형식을 갖추야 한다.
 - (1) 논문 제목
 - (2) 저자 이름
 - ① 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 주소는 논문 1쪽에 * 각주로 표기한다.
 - ②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주저자를 제일 앞에 명기한다.
 - (3) 국문 초록(300자 내외)과 주제어(5-6개 내외)
 - (4) 본문
 - (5) 참고문헌
 - (6) 영문초록(200단어 내외)과 주제어(Key word, 5-6개 내외)
 - (7) 서평은 각주를 포함하여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 (8) 학술지 발행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하며, 원고 마감일은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3. 원고작성 시 유의사항

1) 참고문헌: “MLA ” 양식을 따른다.(최근 8판)

(1) 참고문헌은 단행본→논문, 국내서→국외서(러시아→서구)순으로 배열하고,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2) 국내서와 중국·일본 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쌍꺼쇠(『』)로 표시하고, 논문과 편명의 경우는 홑꺼쇠(「」)로 표시한다.

러시아어 포함 서구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서명만 이탤릭 활자로 표시하고, 논문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로 표시한다. 석·박사 학위논문은 ‘논문’으로 간주다.

(3)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①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 발행연도.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열린책들, 2009.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②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예) 이강은, 「막심 고리키 초기 단편의 “당당한 인간 재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2013.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③ 인터넷(한글 논문일 경우 ‘Дата обращение’를 ‘검색일’로 변경)

예)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2) 인용

(1) 사료(자료)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원문을 병기할 수 있다.

(2) 긴 인용문은 본문 위 아래로 한 줄을 띄우고 구분이 되도록 제시한다. 인용문의 글자크기는 본문보다 한 포인트 줄이고, 왼쪽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로 한다.

- (3) 간단한 인용문을 문장 내에 인용할 경우 겹따옴표(“ ”) 로 처리한다.
겹따옴표(“ ”)로 묶여진 인용문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 (4)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로 처리한다.
- (5) 직접인용은 쪽수만 명기하고, 간접인용은 반드시 ‘참조’를 붙인다. 재
인용의 경우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6) 본문 내 용어의 강조는 홑따옴표(‘ ’)를 사용한다.

3) 각주

- (1) 각주의 번호는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로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 문헌 표기의 순서와 부호는 참고문헌 규정 (1), (2)와 동일한 규
정을 적용한다.
- (3) 각주는 다음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①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열린책들, 2009), 237쪽.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С. 328.

②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예) 이강은, 「막심 고리키 초기 단편의 “당당한 인간” 재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2013), 217쪽.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С. 323.

- ③ 각주를 달고자 하는 문장 뒤 [] 표시 안에 참고문헌 번호 및 쪽수
표시도 공히 허용한다.

예) [7, С. 26]

- ④ 인터넷(한글 논문일 경우 ‘дата обращения’를 ‘검색일’로 변경)

예)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4) 각주에서,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략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① 동양서

저자명, 앞의 논문(앞의 책), 발행연도, 쪽수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앞의 책, 2009, 237쪽.

② 서양서

Ibid, op, cit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 <그림 1>, <그림 2>... 순으로 제시한다.

5) 본문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은 다음과 같다.

(1) 편집 용지: 사용자 정의로 폭 168mm, 길이 240mm로 정의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 22mm, 아래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0mm, 왼쪽 26mm, 오른쪽 26mm, 제본 0mm으로 한다.

(2) 본문과 요약문: 한국어는 대표-휴먼명조(크기 10,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5%, 들여쓰기 10pt.

(3) 인용문: 한국어는 대표-휴먼명조(크기 9.5,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9.5, 장평 100%), 줄 간격 140%, 좌우여백 26pt, 들여쓰기 10pt.

(4) 참고문헌: 한글은 대표-휴먼명조(크기 10,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5%.

(5) 각주: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크기 9, 장평 100%),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9, 장평 100%), 줄 간격 130%, 좌우여백 0pt, 첫 줄 내어쓰기 15pt. 각주 번호는 괄호(예:1), 2), 3)...)로 표시.

(6) 페이지 표시는 하지 않는다.

(7) 제목

논문제목: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 크기 13, 장평 95%, 자간 0%, 중앙정렬

소제목: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 크기 10, 장평 95%, 자간 0%, 중앙정렬

ТРЕБОВАНИЯ РЕДАКЦИИ / ФОРМАТ СТАТЬИ

1.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е и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для написания статьи.
2. Объем статьи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15 страниц по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формату.
3. Внизу первой страницы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имя автора, место работы,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в примечании с знаком *)
4. При соавторстве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имя первого автора, потом второго,... и. т. д.
5. Ссылка приводится внизу на каждой странице (не в конце статьи)
6. Статья должна быть набрана в программе 'MS-WORD'
- ① Шрифт: Times New Roman
- ② Размер шрифта в тексте 10, размер шрифта в цитате текста и в примечании 9.
- ③ См. экземпляр - формат статьи по требованиям редакции.
7. К стать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едложены резюм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объем резюме до 1 страниц, куда входят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и имя автора, и место работы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в скобках. См. экземпляр) и пять ключевых слов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8. Статьи должны высланы в редакцию журнала института iresknu@gmail.com
9. Журнал издается 2 раза в год, 30-го апреля и 31-го октября.
Стать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любое время.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31-го марта и 30-го сентября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рок подачи статьи для выпуска журнала.

ЛИТЕРАТУРА

1. Вся литература, использованная в тексте статьи, должна быть приведена в списке в конце статьи.
2.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должны быть выстроены по алфавитному порядку имен авторов.
3.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составляе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автор, назва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здательство. год издания.

Например:

① Монография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② Журнал,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③ Интернет, Сайты.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④ Ссылки - (приводятся примечания внизу на каждой странице с
очередными номерами по арабской цифре)

- 1) Монография: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С.328.
- 2)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или журнал: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С.323.
- 3) Сайты в интернете: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

제4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4) 예비조사는 연구지원 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연구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며,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및 임명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

켜서는 아니 된다.

3.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칭함)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5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의 공개

1.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e저널을 포함하여 본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한편, 해당 논문 투고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도 통보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 투고를 금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제13호

인쇄일: 2025년 4월 28일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발행인: 김민아

편집인: 이종현

발행처: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인쇄처: 도서출판 책과세계
